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통권 5호



**서장의 길**  
돈이 보이는 내비게이션

May 2020

창업, 벤처, 투자, R&D, 정책자금, 수출,  
소상공인, 글로벌 사업화

5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무료배포  
자료문의 010-3899-6160

이웃사랑 참사랑  
K-BMC

# 목 차

## 1장 사람과 말, Opinion

1.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행운, 대박의 기회가 왔다 ..... 1
2. 포스트 코로나, 대변혁의 시대 ..... 5
3. 경제 대전환 선언...‘한국판 뉴딜’ 속도 내나 ..... 17

##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1. [이슈분석] 방사광가속기 ‘청주’ 시대 열린다 ..... 28
2.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방사광 가속기 ..... 33
3. 코로나 시대, 에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기회 ..... 38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 주문 결제 비대면 가능 스마트상점 본격 도입 ..... 41
2.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Arm과 함께 동반성장 ..... 49
3.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25조원 벤처펀드 선정 결과 발표 ..... 53
4.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본격 지원 ..... 61
5. 국가대표 ‘브랜드 K’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 ..... 64
6.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 마련 ..... 80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 ..... 88
8.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 99
9.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101
1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울산·전남·충북에 추가 설치 ..... 104
11.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 106
12. 국내 소셜벤처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110

## 목 차

13. 안산·서천·진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가 지정 ..... 125
14. 청년 창업가의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130
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팁스(TIPS) 운영사 모집 .... 135
16. 사내벤처 육성할 기업을 찾습니다 ..... 154
17.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 159
18. 마스크 대란 해소 1등공신 스마트공장, 진단키트 생산에 도입 ..... 164
19. 비접촉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168
20. '스마트화'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50개사 지원 ..... 171
21.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 핵심 주역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 175
22.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안전관리에 국비 지원 ..... 182
23. 강원·세종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 186
24. SKC, 14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 ..... 189
25.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 195
26. 컴업(COMEUP) 유튜브 '글로벌 구독자 관심 집중 ..... 200
27. K-유니콘 서포터즈 영상 IR 개최 ..... 203

## 1장 사람과 말, Opinion

### 1.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행운, 대박의 기회가 왔다.

[강소기업이 경쟁력이다] (138) 생각을 바꾸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행운, 대박의 기회가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객이 가장 중요시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과 '건강'이다.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속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다.

이제는 싸다는 장점이 있는 중국산 제품보다 안전한 이미지를 세계인에 각인시킨 한국 제품이 더 선호되고, 훨씬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면역력, 백신, 건강용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방역체계, 의료용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품목의 수출기회가 활짝 열렸다.

그렇다면 이런 대박 기회를 살리기 위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의료, 온라인 오락 등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화상회의와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빌딩이나 상가의 공실은 증가할 것이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는 이제 일상적인 소비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인 주문방식의 키오스크(Kiosk) 주문에 익숙해졌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도 흔한 일상이 되었다. 생필품과 가정간편식(HMR)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언택트 스마트레스토랑, 언택트 음식주문, 무인소매점, 스마트물류 등도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마트 배송이나 택배 배송까지도 배달원을 만나지 않고 물건을 문 앞에 두고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언택트 방식은 재택근무와 함께 원격 화상강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아파트나 주택에 사무실을 추가하기도 한다.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성 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의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문서보안 서비스 등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홈이코노미(home economy)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취미활동을 하며, 마트를 가는 대신 앱으로 밀키트나 장을 보는 일이 흔하게 될 것이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용품에 대한 매출은 증가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또한 의료 및 바이오산업도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바이러스 및 세균, 화학적 위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청결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소독, 방역, 새집증후군 등의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빌려쓰는 렌탈 비즈니스, 필요한 물품을 소유가 아닌 구독으로 경험하고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형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사이버 교육,

SNS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산업,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함께 생산시설 폐쇄,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려 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소비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디지털 원격회의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생산 현장의 디지털화, 사무 및 공정 자동화, 인공지능 관리까지 단계별 스마트화 변신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회복을 위해 기존 거래선과 유통망을 발빠르게 재정비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세분시장과 목표타겟을 정확히 재설정후 집중공략해야 한다

셋째,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유통업, 콘텐츠 및 비디오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등의 다양한 창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장기회가 있는 관련 사업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사생활로만 여겨지던 개인 동선과 건강 정보가 감염자 전염 경로 발견과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했다. 중소기업도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 취약점 중의 하나는 품질에 비해 디자인이 너무 약하다.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좋아야 더 잘 팔린다. 코로나19 이후 안전, 건강을 강조하는 세련된 디자인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빠른 대응이다. 회사 의사결정 구조를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고, 속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업은 서로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상생협력과 제휴 마케팅을 강화하면 비용은 줄이고 성과는 더 높일 수 있다.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겨내는 방법은 '상생협력'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여덟째,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의 주요 생산시설 폐쇄와 유통 봉쇄로 제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미국도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고,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링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산라인을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와 제3국으로 다변화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존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 확대, 바이오·헬스케어 집중 육성, 산업과 행정의 디지털 혁신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시기에 한국에 생산기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다. 지금은 법을 만드는 국회보다 법을 없애는 국회가 더 필요한 때이다.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ohmyjapan/221909056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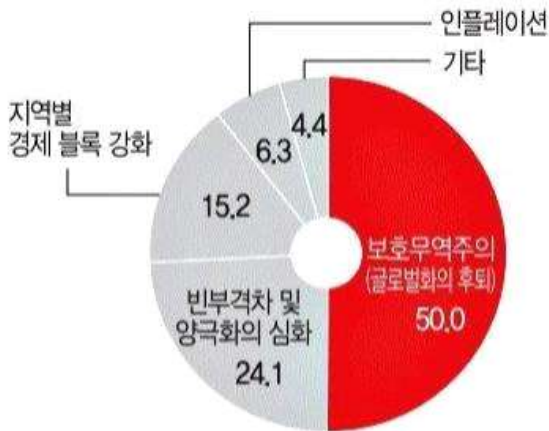
# 1장 사람과 말, Opinion

## 2. 포스트 코로나, 대변혁의 시대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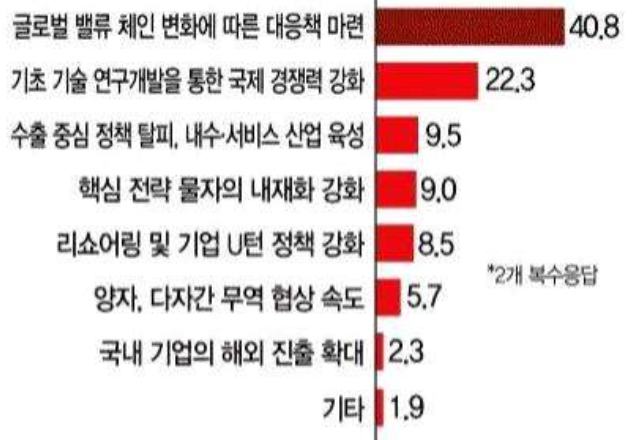
### [코로나 대변혁] "세계화의 후퇴...GVC 변화 대비해야"

각계각층 전문가 112명 긴급 설문, 보호무역주의·양극화 심화 우려, 22.3% "R&D로 국제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단위: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단위: %)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 국내 경제전문가 11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맞이할 가장 큰 변화로 '세계화의 후퇴'를 꼽았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기초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제시됐다.

아시아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대변혁의 시대'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1~23일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50.0%)이 '보호무역주의(세계화의 후퇴)'라고 답했

다. 이어 빈부격차 및 양극화의 심화(24.1%), 지역별 경제 블록 강화(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취약해졌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는 등 세계화의 반대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40.8%)가 'GVC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초 기술 R&D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22.3%), 수출 중심 정책에서 탈피·내수 및 서비스 산업 육성(9.5%), 핵심 전략물자의 내재화 강화(9.0%), 리쇼어링 및 기업 U턴 정책 강화(8.5%),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양자·다자 간 무역 협상 속도(5.7%) 등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는 27.6%가 '혁신 산업 발굴 및 지원'을 택했고,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25.8%), 기업 규제 혁파(19.6%)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의 정도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51.8%)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1929년 대공황 수준으로 보는 의견도 23.2%나 됐다.

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U자형(2~3년에 걸친 점진적 회복)을 그릴 것이라는 응답(55.4%)이 가장 많았다. 느린 반등의 나이키형과 장기 침체의 L자형을 꼽은 전문가도 각각 24.1%, 9.8%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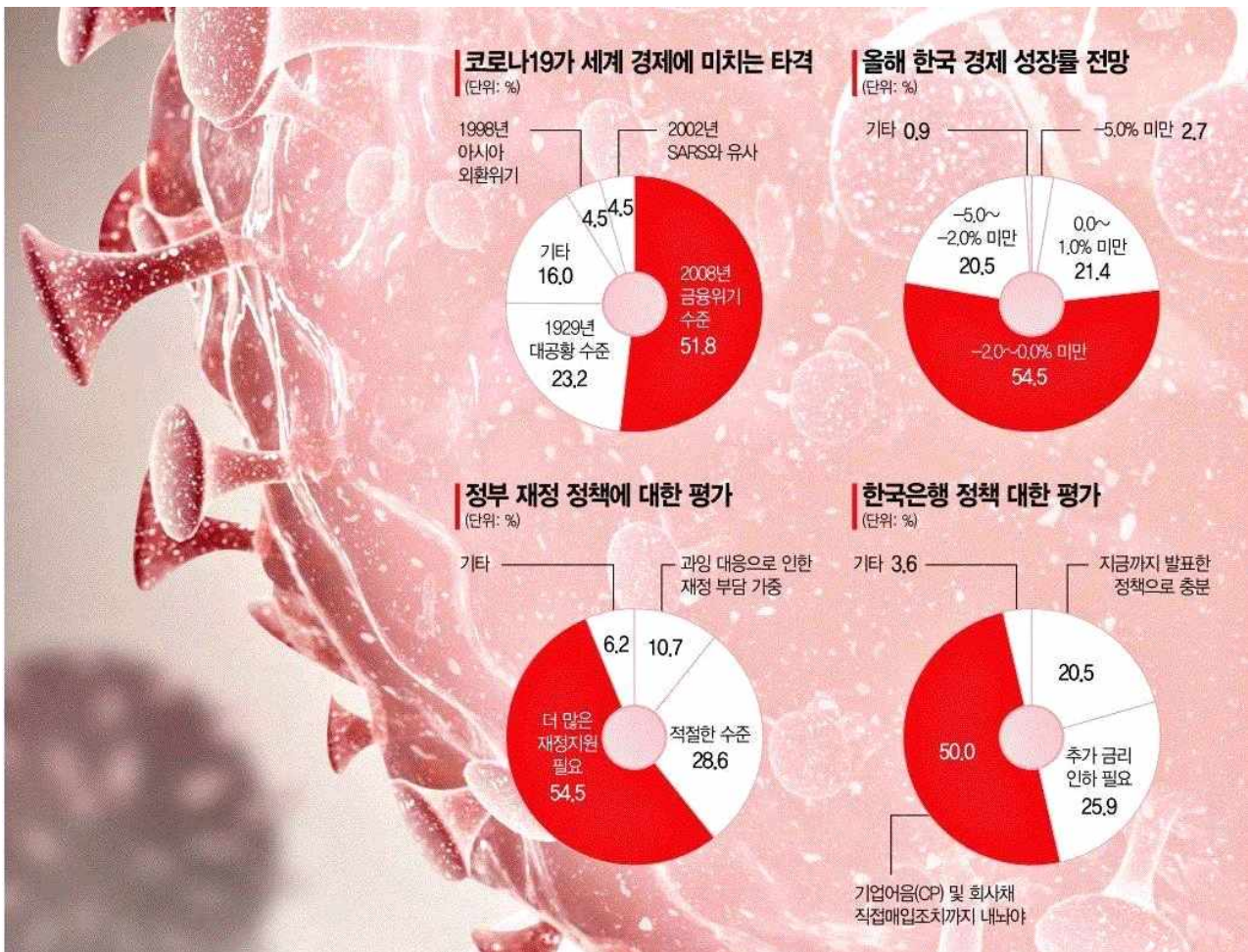
됐다.

국내 경제 충격이 마무리되고,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선 31.2%가 '올해 4분기'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모두 회복하고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대해 42.3%가 '내년 중'으로 관측했으며 40.5%는 '2022년 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1094732513>

### [코로나 대변혁] "대공황·금융위기 수준 경제심각...정부, 돈 더 풀어야"

추경 등 정부 돈 이미 161조 풀었지만..."CP·회사채 직접 매입해야" 50%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26% 응답...양적완화 가능성도  
대기업 무너지면 엄청난 파급효과, 핀셋지원 필요 등 주장



경제·금융·산업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시장엔 161조원이 넘는 돈이 공급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경제 타격 정도가 크고,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28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47%(61명)가 '정부 재정정책은) 아직 부족하며, 더 많은 재정을 동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57%(32명)로 뒤를 이었다. 과잉 대응으로 인해 앞으로 재정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0.71%로 12명에 그쳤다.

27일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해 푼 돈은 이미 16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각각 11조7000억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자금 공급,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지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 금융 지원에 135조10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이 절반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은은 이와 더불어 기준금리를 0.75%로 대폭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은에 대해서도 추가적 조치를 주문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50.0%·56명)이 '한은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직접 매입 조치까지 내놔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로 부실해진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한국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와 한은, KDB산업은행 등은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도 25.89%(29명)에 달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진용을 갖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 금통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면 실효하한(시장에선 0.5% 수준으로 파악)에 다다른 만큼 향후 한은이 어떤 정책을 더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효하한까지 금리를 내린 후엔 전통적 의미의 양적완화(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정부와 한은에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9%(58명)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답했다. 1929년 대공황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21%(26명)로 뒤를 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이 될 것이란 의견도 4.46%(5명)였다. 금융위기보다는 심각성이 큰데 대공황 수준은 아니라는 기타 답변도 있었다.

단 응답자들은 추가로 풀 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풀되,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핀셋 지원은 특히 기업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며 "항공·정유 산업 등에 대한 추가 재정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투자 감소→고용 위축→가계소득 감소→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뉴딜 사업과 관련해선 "뉴딜은 소비가 위축됐을 때 쓰는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소비와 생산이 무너졌을 때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버퍼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재원 마련에 있어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적자국채를 사주면 부도는 면할 수 있지만 주변통화국인 우리는 한은이 적자국채를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1053874662>

## [코로나 대변혁] "코로나 2분기 진정돼도 韓 마이너스 성장 78%"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 55%, 한국 경제 올 4분기 반등 31%

국내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열에 여덟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국내의 각계각층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4%(62명)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U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계경제 회복이 향후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 것이다.

전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전 세계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올 하반기의 경기 반등도 미약하고 최악의 경우엔 세계 경제가 내년 말까지도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문 응답자의 24.1%(27명)는 스포츠업체 나이키의 로고

모양처럼 경기가 급격히 하강해 저점을 찍은 뒤 장기간 느리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속적 추락을 뜻하는 'I자'형 회복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지만 9.8%(11명)는 'L자'형(장기침체)을 전망했다.

회복 시기의 관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꼽았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치료제·백신 개발 이후 세계 경제는 급반등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발이 늦어질 경우 나이기형 회복세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백신개발까지는 L자형, 이후엔 수직회복해 결국엔 U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 중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이 마무리되고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31.2%(35명)는 올 4분기를 꼽았다. 이보다 이른 3분기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응답자도 18.7%(21명)에 달했다. 이 외에 16.1%(18명)는 2021년 1분기, 10.7%(12명)는 2분기, 11.6%(13명)는 3분기로 예상했다. 6.3%(7명)는 2021년 4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봤고, 5.4%(6명)는 올 3분기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다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80% 이상은 적어도 2022년에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42.3%(47명)가 2021년 중, 40.5%(45명)는 2022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의 16.2%(18명)는 회복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2분기 중 진정될 것이란 가정을 전제로 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0~0.0% 미만'이 54.5%(61명)로 가장 많았다. 20.5%(23명)는 '-5.0~-2.0% 미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5.0% 미만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도 3명(2.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78%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 21.4%(24

명)는 '0.0~1.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2811123663472>

## [코로나 대변혁] "정책 우선순위는 기업지원·내수확대·고용유지"

전문가 112명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최대 리스크 요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규모 도산

"기업이 경제 엔진...한 번 꺼지면 회복 힘들어"

국내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규모 도산'을 꼽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급격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을 택한 응답은 소수였다. 실물경제 뿐 아니라 고용 및 금융시장으로의 여파를 고려하면, 기업 정상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28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40명)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규모 도산'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적인 외식·관광·쇼핑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감,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는 이들이 벼랑 끝에 놓은 상황을 우려한 응답이다. 이는 실제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은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라도 폐업할 것 같다는 응답자도 23.9%에 달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실업자 급증 등 고용대란(30명, 27.0%), 주력 산업 경영 위기(22명, 19.8%),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13

명, 11.7%), 기업·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 부실(4명, 3.6%)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2개 복수응답)은 '육상·수상·항공 운송업(85명, 38.5%)'이 꼽혔다. 숙박업(43명, 19.5%), 음식점 및 주점업(27명, 12.2%), 자동차 제조업(20명, 9.1%) 등도 뒤를 이었다.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나 회계·광고·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화학제품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분야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거나 비교적 빨리 피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가장 서둘러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40.2%(45명)가 '급격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지원'을 지목했다.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확대정책(23명, 20.5%),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대책(19명, 16.9%) 등도 손에 꼽았다. 도산 가능성이 높아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꼽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16.1%(18명)로 네 번째에 그쳤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 국민소득 보전을 꼽은 응답은 5명(4.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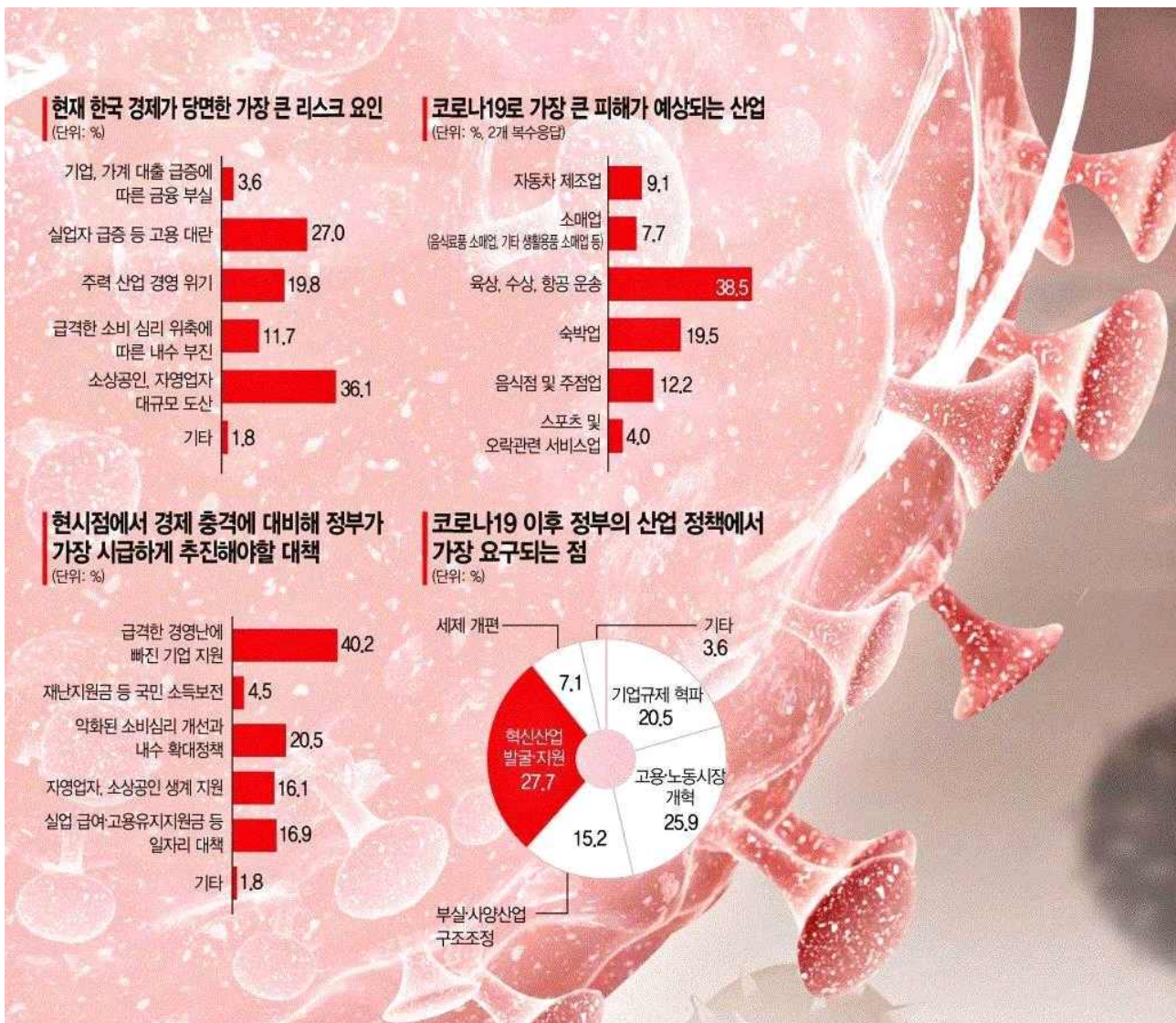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과급력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키워드는 결국 '기업 살리기'라고 진단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이나 내수 살리기, 자영업자 생계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고용유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면서 "기업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고, 세금으로 꾸려진 정부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경제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

산한 기업의 일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2명 중 한 명(59명, 52.7%)은 자구 노력을, 18명(16.1%)은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꼽았다. 4명 중 한 명(28명, 25.0%)은 피해 업종과 무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기업 지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명(1.8%)에 그쳤다. 한 증권사 리서치본부장은 "선 지원 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료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1112443536>



[코로나 대변혁] 정부 과감한 절책 절실... "혁신산업 발굴·지원해야" 27%

### '언택트 서비스' 뜬다

바이오헬스·원격의료, 코로나 이후 부상 전망 25.9%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원격의료 등 비대면(언택트)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를 혁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도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전문가 112명을 상대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서비스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부상할 산업군 및 직종은 무엇이라고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바이오 헬스 및 원격의료'라고 답한 응답자가 25.9%(2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유통(28명 · 25.0%)' '화상회의 · 온라인 교육 플랫폼(18명 · 1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 밖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16명 · 14.3%)'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 14명 · 12.5%)' '로봇산업(3명 · 2.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온라인시장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 파악을 위한 통계와 관련 산업 분석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강동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 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나타나고, 기존 산업 분류와 통계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소비 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가 더욱 세분화돼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할 산업계를 뒷받침하

려면 혁신 산업 발굴·지원,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가장 요구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혁신 산업 발굴 및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31명(27.7%)로 가장 많았고,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29명·25.9%)' '기업 규제 혁파(22명·20.6%)'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경연은 최근 '성장력 약화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장 위축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 하락 때문이라며 규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이다. 생산 과정에서의 혁신, 기술 개발, 노사 관계, 경영 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정부 산업 정책에 '부실·사양산업 구조조정(17명·15.2%)', '세계 개편(8명·7.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계의 한 인사는 기타 의견으로 "자율적 시장경제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금융과 보건 제도에 실력 있는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 인사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1242119332>

## 1장 사람과 말, Opinion

### 3. 문재인 대통령, 경제 대전환 선언... '한국판 뉴딜' 속도 내나

#### 규제개혁 신호탄 쏘나? 재계 '칭신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 국정운영의 방점을 '경제혁신'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K방역의 자신감을 발판으로 삼아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가 아닌 세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방역 자신감, '세계 선도국가'로 재탄생  
고용 확대·한국판 뉴딜...성장의 '양날개'  
한숨들린 재계, 혁신성장·규제개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하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은 '경제 대전환'이다.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이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대규모 실업 앞에 속수무책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노동자의 일자리가 혁신경제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이는 집권 초반부터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소득주도성장(일명 소주성)의 '시즌2'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3년전 집권 당시부터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정부→대기업→중소·벤처' 순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사람(노동자)'을 중심에 두는 쪽으로 재편해 일자리 안정 등 삶의 질을 높여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다.

#### '소주성' 시즌2 개막

이번 특별연설은 이런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세계가 극찬한 대한민국만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일명 K방역)을 경제혁신에 접목

시켜 한국판 뉴딜과 소주성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이번 연설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22차례 사용했고, '선도'라는 단어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위기가 기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되레 기회로 삼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세계가 극찬한 K방역 시스템의 근간이 된 바이오·ICT부문을 발전시켜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

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 대기업들 “우려가 기대로”

재계는 이번 문 대통령의 선언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사실 재계는 지난 4.15총선에서 대기업 규제와 친노동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300개 의석 중 177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점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었다. 친서민·친노동자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재벌에게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재벌개혁 보다 오히려 규제 완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 친기업 성향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재신임했다는 점도 이런 기대에 힘을 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7조6000억원을 들여 수소차 생산 능력을 연50만대로 늘리고 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FCEV(수소차) 비전 2030’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그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로봇 분야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강조한 4차 산업혁명과 맞아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가 시민정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년에 대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앓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 (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45863>

##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 1. [이슈분석] 방사광가속기 '청주' 시대 열린다

정부 예산을 포함, 1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경쟁에서 충북 청주(오창)가 웃었다. 디스플레이·화학·바이오기업이 밀집했고, 1일 분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주효했다.

충북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수도권 남부에서 충북-세종-대전으로 이어지는

'신수도권 혁신산업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



#### 부지선정 평가기준

기본요건(25점)	제공부지 면적(15)	• 사업유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
	부지정지(7)	• 부지정지(최소 26만㎡ (500m×520m)) 공사
	진입로 및 부대시설(3)	• 진입로(4차선 이상)      • 전력인입선로
입지조건(50점)	부지 만족성(20)	• 부지 안전성      • 자연재해 안전성
	지리적 여건(15)	•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 여건
	발전 가능성(15)	• 현 자원의 활용 가능성      •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25점)	지원계획 적절성(17)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확실성
	지원체계 및 역량(8)	• 지원체계의 적절성      • 지원 의지 및 능력

#### 부지선정 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b>1차   3월 17일(화), 16:30</b> •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계획 설명 • 부지선정 평가기준(안) 설명 및 사전검토	<b>2차   3월 26일(목), 16:30</b> • 부지 선정 평가기준 등 확정 ※부지유치 계획 공고·공문발송 (3.27(금))	<b>현장 확인   4월 9일(목)~4월 21일(화)</b> • 실무지원팀 사전조사 ※지자체 설명회(3.30(월)) ※유치의향서 접수(~4.8(수))	
<b>현장 확인   5월 7일(목)</b> (5.6(수)~5.7(목), 1박 2일) • 평가결과(1,2순위 지역) 현장 확인점검 • 최종 선정평가 결과 확정	<b>발표 평가   5월 6일(수)</b> • 유치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b>서면 검토   4월 30일(목)~5월 5일(화)</b> • 지자체 제출 유치계획서 서면검토 ※유치계획서 접수 (3.27(금)~4.29(수))	<b>3차   4월 22일(수), 15:00</b> • 사전조사 결과 선정평가위 보고

4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으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은 유치전이 막을 내렸지만 일부 잡음도 남았다. 선정 세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모 및 평가 방식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접근성'에 손들어 줘

청주가 경쟁 지역을 제치고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선정된 데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청주는 총점 90.54점으로, 87.33점을 받은 전남 나주를 제치고 방사광가속기 최종 구축 지역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서 제시한 부지 주요 평가항목·기준은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이다.

기본요건은 제공부지면적, 부지정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 등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됐다.

입지조건은 부지 만족성(지질·지반구조 안정성, 자연재해 안정성), 지리여건(시설 접근성, 배후도시 정부 여건), 발전 가능성(활용 가능성, 미래 자원 확장 가능성)을 검증했다.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참여 협력 기관 역량 등을 평가했다.

청주는 배점이 가장 높은 입지조건에서 우위를 점했다.

청주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할 있어 1일 분석권을 제공할 수 있고 청주국제공항 덕분에 해외석학 유치에도 유리했다. 주 수요처인 바이오, 반도체, 화학기업이 1000여개가량 밀집돼 있고 대전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 대학이 포진해 산업, 기초연구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앞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환경평가, 지질조사, 문화재조사에서 화강암반이 넓게 분포돼 있어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면 건설 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 방사광가속기 조기 가동이 가능한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이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정부 국정 어젠다인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과의 연계 전략, 평택~이천~천안~오창·오송~대전을 아우르는 신산업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마련, 미래 확장성 평가에 대비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당초 지역균형발전 논리에선 청주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박빙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격차가 있었다”면서 “선정위가 사업 취지에 따라 산업·기초연구 활용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했다.

청주와 경쟁한 나주는 충청, 영남권에 연구 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 유치 필요성 주장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나주는 한전공대와의 연계로 호남과학벨트를 형성할 계획이었지만 선정위는 지리적 이점, 산업 기여도가 오창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최근 전남 해남에서 일어난 지진이 부지 선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선정위는 사업 공고일 이전 발생한 지진만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6~7일 1박 2일에 걸친 최종 평가를 통해 청주를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구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이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MOU)를 마련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청주, 대표 과학도시로 거듭

과기정통부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늦어도 2022년 착공, 2028년 방사광가속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기점으로 미래 신산업 핵심 거점지역으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북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청주 오송과 대전 대덕을 연결하는 바이오벨트가 완성되고, 청주와 충남 천안·아산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메카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주, 세종, 아산을 잇는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산업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 핵심산업이 맞물린 미래성장 벨트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충북도는 구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속기를 활용할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집적도 측면에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기관이 인접해 있고, 반도체 산업과 의약품, 화학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려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과학자를 위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대로 로드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방사광가속기 연구 성과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해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보고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각 지자체가 열을 올린 것은 막대한 파급효과

때문이다. 방사광가속기는 거대 연구시설 가운데 가장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자, 중이온 입자가속기는 기초연구분야 쓰임새가 많은 데 반해 방사광가속기는 기초연구, 산업 분야에서 두루 활용된다.

산업 분야에서 실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광통신 반도체소자 불량률을 70%에서 10%로 개선했고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에 사용되는 국산 철판이 영하 160도에서 깨지는 원인을 규명, 수입 철판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로 구축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관련 연구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요구가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도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포함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마련,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https://www.etnews.com/20200508000296>

##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 2.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방사광 가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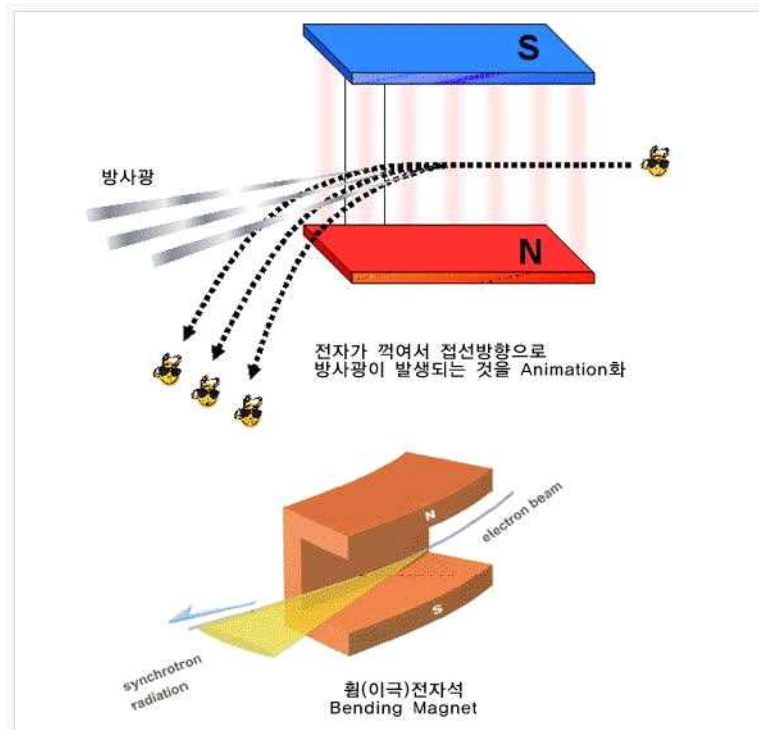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구축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정지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4개 지자체 가운데 계획발표와 현장 방문을 거쳐 입지와 안전, 이용도 측면에서 최적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6조7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 2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3만7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사진출처=충청북도>

Q:방사광은 무엇인가요.

A:방사광은 전자를 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X선으로, 나노세계를 관찰하는 기초과학 연구, 산업계의 재료 분석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7년 제너럴일렉트릭이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어 가속기를 작동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Synchrotron Radiation'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이 용어가 국내에서 번역될 때 빛이 햇살처럼 퍼진다 해서 방사광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방사광 발생 그림. 사진출처=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

Q:방사광가속기가 왜 필요한가요.

A:방사광가속기는 태양보다 100경 배 밝은 아주 강력한 X선을 활용해 원자 크기의 물질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단백질 구조나 1000조분의 1초에 준하는 찰나의 세포 움직임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노 단위 분석이 필수인 미래 소재나 바이오 산업의 핵심 연구자원으로 꼽힙니다. 최근 인류에 막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필수 장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측정과 분석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신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국가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포항에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능 저하와 시설 용량 한계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구축합니다.

Q: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무엇을 만들었나요.

A: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대표적인 신약 개발 성과로는 미국 길리어드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와 에이즈 치료제 '사퀴나비르'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표적단백질 3차원 입체구조를 포항가속기연구소를 통해 규명하고 2003년 네이처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아그라가 개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인텔사는 반도체 소재의 불순물 검사 정밀도 향상에 활용하고 있고, 일본 토요타는 자동차 부품소재 분석 전용 빔라인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에서 LNG 선박의 강철판이 영하 169도 이하에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도록 주석 성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전경. 사진출처=포항가속기연구소>

Q:방사광가속기의 '세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A:1960년 방사광은 기존 X선 광원의 단점을 극복한 우수한 성질을 가진 빛으로 인식됐습니다. 이 때문에 입자물리 연구를 위해 건설한 가속장치의 X선을 각종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방사광가속기의 1세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방사광가속기가 방사광을 얻는 것에 주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방사광가속기가 방사광 발생 및 사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 이후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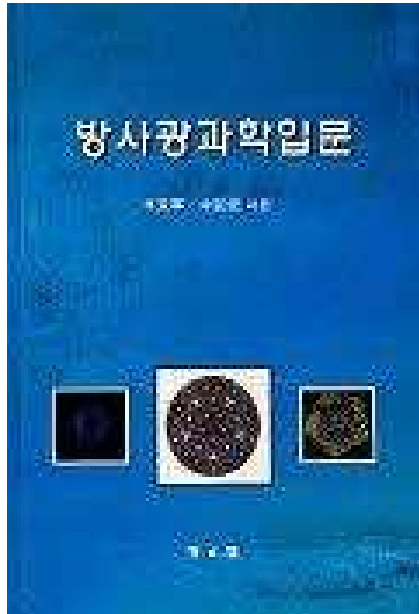
방사광가속기 2세대로, 비로소 물리, 생물, 화학 등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후반 들어서면서 방사광가속장치에서 전자빔을 조절하는 기술이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보다 밝은 고품질의 방사광을 얻으려면 전자빔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때부터 방사광가속기가 대형화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994년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세계 다섯 번째로 구축됐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레이저처럼 '결맞음'이 좋은 X선을 생산하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미국 스탠퍼드선형가속기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구축, 2009년 광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포항가속기연구소가 2017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4세대 광원을 생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Q:미국·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지 않나요.

A:현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30여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국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5개 국가뿐입니다. 1조원대 거대한 예산과 함께 기술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선형가속기연구소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일본, 한국, 유럽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산업계에 활기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유럽은 독일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했습니다. 이 가속기는 전체 예산 중 60%를 독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마련해 유럽연합 공동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방사광가속기를 건설 중입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관련도서]

◇ '방사광과학입문', 이동녕 지음, 청문각 펴냄

방사광 이용이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과학자, 이공계와 의학도, 방사광 이용자라도 자기 분야 이외의 분야를 이해함으로써 활용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하는 과학자들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방사광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해준다. 활용사례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원리로 이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빛을 만들어 낸 이야기', 고인수 지음, 동인기획 펴냄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에 얽힌 일화를 정리한 책.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결정된 배경과 공정 및 시운전 과정에서 연구소 연구원과 파견 근무했던 포항제철 및 포스콘 직원들이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포항방사광가속기가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도 소개한다.

자료출처 <https://www.etnews.com/20200508000233>

##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 3. 코로나 시대, 에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기회

무협 '에듀테크 시장 현황' 보고서  
 세계 각국 휴교령으로 온라인 교육 급부상  
 글로벌 시장 규모 2025년 3420억달러로  
 美 2019년 16억달러 투자... 5년 만에 최고  
 한국, 주요국 비해 성장 늦고 영세업자 많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 한국무역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하나의 탈출구로 인식되는 온라인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해외 진출기업들은 자금과 해외유통망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력이나 상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에듀테크 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018년 1530억달러에서 2025년엔 342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에듀테크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정보기술)와 교육 서비스 융합으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들의 투자액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에듀테크 투자액은 지난해 16억6000만달러로, 5년 만에 최고액을 달성했다. 에듀테크 투자액 세계 1위 중국은 세계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을 보유할 만큼 입지를 다졌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8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다.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느리고 영세사업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소수의 대형사업자들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반면 사업자 수 절반을 차지하는 영세사업자 매출은 1.6%에 불과해 산업 내 양극화도 존재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 에듀테크 사업은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 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공교육 부문에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교육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이퓨처’는 국가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글로벌 유아·초등용 영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출국과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비상교육은 에듀테크 플랫폼 ‘올비아’를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교실 환경이나 언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구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2017년 중국 최대 교육기업 ‘신동방교육과학기술그룹’과 현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캐나다, 베트남 등에도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고서는 “국내 교육서비스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춘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 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조언도 내놓았다. 기업은 신흥국을 겨냥해 인프라·콘텐츠·서비스 연계

패키지형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수출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어 교육 등 콘텐츠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0513471?OutUrl=naver>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 주문 결제 비대면 가능 스마트상점 본격 도입

- 전국 20개 '스마트 시범상가' 설치해 1,000여개 상점에 비대면 주문·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의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전국 20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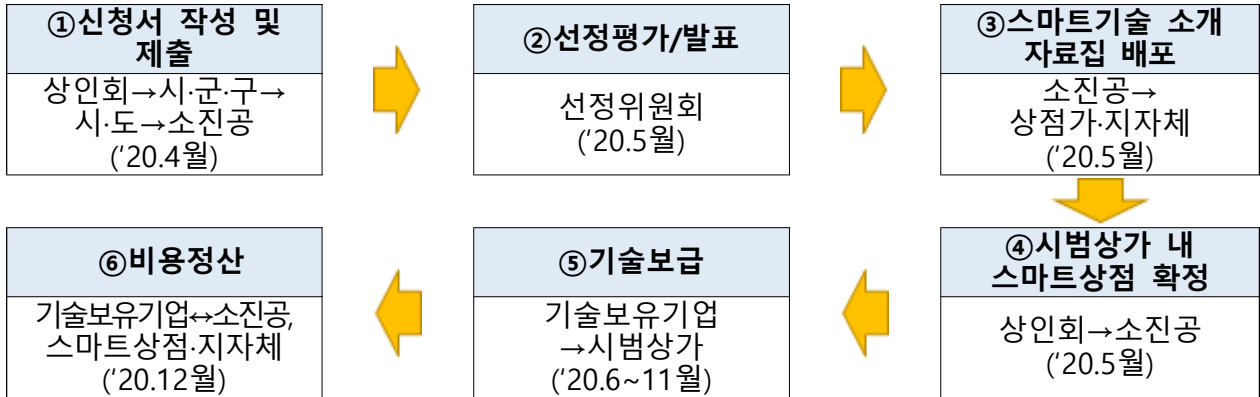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내용 >

구분	점포별 지원		상점가 지원	비고
	집약형상가	일반형상가		
지원 기술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b>&lt;최대지원금&gt;</b> <b>집약형 상가당 215백만원</b> (기술+오더+사이니지)  <b>일반형 상가당 115백만원</b> (오더+사이니지)
지원 규모	약 50~70곳 (스마트기술 20곳+스마트오더 50곳)	약 50곳	1개	
지원 예산	(스마트기술) 500만원 (스마트오더) 30만원	30만원	1억원	

중기부는 시범상가 설치 대상 모집은 오는 5월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h.or.kr](http://www.semash.or.kr))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 스마트시범상가 운영체계도 >



선발된 곳은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를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으로 전국에 400개 설치 예정

중기부는 스마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을 D/B를 구축해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모델숍을 개설해 스마트 인식 향상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전국 상점가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공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스마트상점 관련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 하여 서비스·마케팅을 혁신하는 '스마트상점'의 도입 및 확산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미러, 풋스캐너 등 서비스 개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 소상공인 점포에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
  - \*\*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상권과 지자체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소개 자료를 제공 예정(소진공)
-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
- (디지털사이니지)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 하는 디지털사이니지 도입 지원

## 2. 모집개요

□ (추진목적)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스마트기술을 집중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지원대상)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상인조직 역할 대행 가능)

□ 선정규모

○ 집약형상가 : 5곳 내외(총 350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일반형상가 : 15곳 내외(총 750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디지털사이니지 : 5곳 내외

\* 시범상가 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

□ 시범상가별 지원내용

구분	점포별 지원		상점가 지원	비고
	집약형상가	일반형상가		
지원기술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b>&lt;최대지원금&gt;</b> <b>집약형상가당 215백만원</b> (기술+오더+사이니지)  <b>일반형상가당 115백만원</b> (오더+사이니지)
지원규모	약 50~70곳* (스마트기술 20곳+스마트오더 50곳)	약 50곳	1개	
지원금액	(스마트기술) 500만원** (스마트오더) 30만원	30만원	100백만원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 복수지원 가능

\*\* 스마트기술 도입은 국비(90%), 자부담(10%)으로 추진하되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및 면책 가능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0. 11월 까지

□ 지원 제외 대상(사업비 지급일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상점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상점

□ 참여 주체별 역할

- (지자체) 사업계획서 및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범상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가 내 참여점포 모집\*·선정, 스마트오더 기술 보유기업 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등

\* 시범상가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前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 수요(시범상가 내)를 파악

- (스마트상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계약 및 기술 도입, 스마트기술 도입 후 운영성과 제출(6개월 경과) 등

\*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상권과 지자체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소개 자료를 제공 예정(소진공)(단, 소진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진공에 기업 자료 제출 후 도입 가능)

- (기술보유기업)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기술 보급 및 결과(성과)자료 제출 등

□ 기타사항

- 조직화된 사업 주체(상인회 또는 번영회)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 필요 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상인조직 역할 대행 가능

- 지원금액 범위 이상의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상점(소상공인)이 차액분에 대해 자부담으로 진행 가능

###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 4. 6.(월) ~ 5. 8(금) 18:00까지
- 신청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 광역 시·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양식 1】
    -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양식 2】
    -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집약형, 일반형)\* 【양식 3-1, 3-2】
      - \* 집약형상가 및 일반형상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
    -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협약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붙임 2】
  - 선택서류
    -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계획서(선택) 【양식 3-3】
    - 스마트 시범상가 지방비 투자 협약서\* 【붙임 3】
      - \* 시·도 부담의 경우 시·도에서 작성 가능

###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현장평가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운영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평가 수행

□ 평가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가 점
지방비 지원 (1~2점)	소상공인의 자부담 전액(10%)를 지원하는 지자체	2점
	소상공인의 자부담 일부(10%미만)를 지원하는 지자체	1점
사업수행 계획 (1~3점)	집약형상가+일반형상가(3) 운영을 제안한 지자체	3점
	집약형상가+일반형상가(2) 운영을 제안한 지자체	2점
	집약형상가+일반형상가(1) 운영을 제안한 지자체	1점
사후관리 의지 (5점)	사업종료 이후 스마트 시범상가에 대한 지속 관리·운영(사후관리 계획, 추가지원, 예산규모 등 기재)을 통해 소상공인 상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지속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	5점
<b>합 계</b>		<b>10점</b>

## 5. 문의처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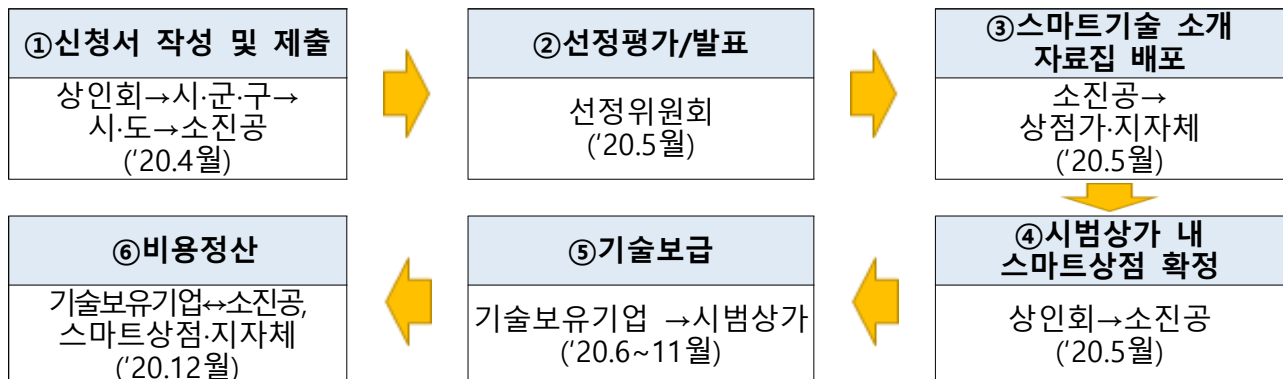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2-481-3914, 3967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042-363-7732, 7733, 773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스마트지원팀

□ 본 공고관련 향후일정

- 스마트 시범상가 접수마감 : '20. 5. 8
-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평가 및 발표 : ~'20. 5. 18(예정)

□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향후계획(안)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의 설명영상을 참고바랍니다.
- 집약형상가와 일반형상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은 집약형상가 중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만 해당되며, 상가당 최대 1,000만원(상점당 50만원×20곳)입니다.
- 선정된 상가의 일부 상점(영세자영업자 또는 청년 등)에 키오스크 무상보급 추진(동반성장위원회 협업)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Arm과 함께 동반성장

-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 Arm, 서울대, 벤처기업협회와 자상한 기업(12호) 업무협약
-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벤처기업 Arm의 IP 무료 사용 길 열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영국의 Arm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 패키지인 Flexible Access\*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시스템반도체 설계 시 필수적인 CPU·GPU 등 IP 이용, 기술지원을 포함한 설계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월 22일(수)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12호) 업무협약을 최초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다고 밝혔다.

\* 시스템반도체 설계 시 필수적인 CPU·GPU 등 IP 이용, 기술지원을 포함한 설계 패키지

#### 《 온라인 업무 협약식 개요 》

- [일시] '20.4.22(수) 9:00 \* 온라인 영상플랫폼을 통한 전자협약(URL 추후 공지)
- [협약참여자] 중기부 장관(박영선), 사이먼 시거스(Arm CEO), 오세정(서울대학교 총장), 안건준(벤처기업협회 회장)
- [협약내용] Arm의 설계자산(Flexible Access) 활용 및 기술지원,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기술교류 등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이번 협약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Arm(CEO 사이먼 시거스)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관련 우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와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참여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IP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혁신적인 도전을 꺼리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m과 개발지원 프로그램(Flexible Access)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Arm을 자상한 기업 12호로 지정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11개\*를 선정했으며, Arm은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차,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번 협약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 분야의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분야 10개 기업 선정 중(6월중 선정 예정)

이는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에 발표되었던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경제활력대책회의, ‘19.12.11)의 후속 지원으로 진행된다.

\*\* BIG 3 분야 15개 세부분야 250개(시스템반도체 50, 바이오헬스 100, 미래차 100) 기업 집중 육성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19.12)

Arm의 사이먼 시거스 CEO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인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업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협약식 소감을 말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인프라 등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는 비대면 확산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기부의 입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주)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의 온라인 화상 기술을 활용한 협약 체결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협약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혁신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협약식 개요**

- (행사명) 「Arm·서울대, 자상한 기업(12호) 업무협약식」
- (일시) '20. 4. 22(수), 09:00 (미국 17:00)
- (참석) 중기부 장관, 사이먼 시거스(Arm CEO), 오세정(서울대학교 총장), 안건준(벤처기업협회 회장)
- (진행)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한 인사말씀→지원내용→전자서명\* 순

□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02(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및 통역
09:02~09:20(18')	■ 인사말씀	장관님→Arm CEO→서울대 총장→벤처기업협회장
09:20~09:30(10')	■ 자상한 기업 지원계획	Arm, 서울대
09:30~09:35(05')	■ 업무협약	

□ **주요 협약내용**

- ①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중기부, Arm)**
  - Arm(英)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Flexible Access\*)를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제공하고 Arm과 중기부가 비용을 분담
  - Arm 기술진(15명)은 실시간 온라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 지원
- ②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중기부, 서울대)**
  - 부처 간 협업, 전주기 성과관리를 위해 중기부 장관(위원장), 민간 전문가 6인, 관련 부처로 구성된 미래기업지원위원회 구성
    - \* 시스템반도체 등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전략 마련('19.12.11)
  -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필요한 지원사항 연계 등 전주기 밀착지원을 위해 기업혁신멘토단(서울대) 지정
- ③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중기부, 서울대)**
  - 산·학·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창업멘토단(서울대)을 활용하여 주기적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수요기업 연계 지원
    - \* 개방형혁신네트워크(I-con) : 서울대, 전품연, 주성엔지니어링 등 143명 참여
    - \* 서울대 창업멘토단 : VC 50인으로 구성, 주기적 IR(연 3회) 실시
- ④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 및 취업 연계 지원(서울대, 벤처기업협회)**
  - 시스템반도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신설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 \* (교육 지원) 임직원 대상 설계 및 공정 교육(연 300명), AI-반도체 연합전공(연 100명) (창업 활성화) 대학 보유 특허 기반 창업프로그램(테크비즈 컨서트) 운영(연 2회) (취업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연계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3.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2.5조원 벤처펀드 선정 결과 발표

-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는 모태펀드 1조 841억원 출자를 통해 당초 계획한 2조 2,225억원보다 2,573억원 많은 81개 펀드 2조 4,798억원을 조성
- 창업초기 이후 대규모 후속성장 투자가 가능한 1,000억원 이상 중대형 펀드가 4개 5,860억원 조성,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올해까지 펀드 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면 우선손실충당 및 성과보수 추가배분 등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패스트클로징(Fast-Closing) 제도도 적용

\* 패스트클로징 : (기존) 펀드 자금 100% 확보 후 펀드 등록 → (개선) 70% 확보 후 펀드 등록 및 투자 개시하며, 3개월 내 나머지 30% 확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8개 부처는 4월 28일,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사업은 1조841억원을 출자해 81개 펀드 2조4,79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당초 결성 목표 2조2,225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1년 동안 모태펀드가 출자해 선정한 2조4,130억원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창업초기 이후 후속성장 단계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 가능한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펀드도 4개 5,860억원이 조성됐다. 올해 본격 가동되는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해 유니콘 성장단계에 있는 도약·성장기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벤처투자 촉진 제도'가 적용되는 첫 펀드로서 코로나19로 일부 위축된 투자심리를 만회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에 20% 이상 투자를 집행하면 모태펀드가 투자 손실액을 우선충당하며 모태펀드 수익분의 10% 운용사 추가제공과 관리보수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운용사들은 펀드 결성액의 70%만 확보해도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도 활용할 수 있다.

\* 패스트클로징 : (기존) 펀드 자금 100% 확보 후 펀드 등록 → (개선) 70% 확보 후 펀드 등록 및 투자 개시하며, 3개월 내 나머지 30% 확보 가능

**<'20년 신규조성 펀드가 올해 20% 투자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구 분		투자목표 달성시
투자위험	우선손실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최대 10% 우선 충당*
보수체계	성과보수	정책펀드 수익분의 10%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 투자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1% 지급
	관리보수	
출자우대	출자비율	내년도 출자비율 상향 (최대 +10%p)
	평가방식	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 시 가점부여

\* 단, 펀드별 재정 출자비율 이내

**분야별 펀드 선정 결과**

① 중기부는 '스타트업' 분야에 38개 펀드 7,451억원, '점프업' 분야에 13개 펀드 1조2,725억원을 선정했다. 스타트업 분야는 창업초기펀드 4,614억원, 청년창업펀드 1,112억원, 소재부품장비펀드 5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점프업 분야는 DNA+BIG3\* 혁신성장펀드 5,360억원, 스케일업펀드 3,250억원, M&A펀드 4,115억원을 선정했다.

\* DNA+BIG3 분야 : Data, Network(5G), AI의 DNA 혁신 인프라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의 BIG3 신산업 분야

올해 처음 도입된 점프업 분야는 당초 결성목표인 9,500억원을 3,225억원 초과한 민간자금이 매칭돼 재정 효율성도 확보했다.

소재부품장비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한 이후 처음 조성되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9:1을 기록해 1차 정시사업 전체 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그간 지방은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손꼽혀 왔으나 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투자 주체로 적극 나서면서 지역 플레이어가 확장됐다. 대표적으로 울산·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기술지주회사가 펀드에 선정되어 올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② 관광·스포츠, 실감콘텐츠, 환경, 해양, 국토, 교육 등 특정분야 투자 전문펀드도 총 4,622억원이 조성된다.

문체부 소관의 문화콘텐츠, 영화, 관광, 스포츠 분야는 17개 펀드 3,364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게임·애니메이션·모험콘텐츠·한국영화 등 콘텐츠 전문 펀드는 13개 2,832억원을 선정했다. 관광 벤처기업·프로젝트 투자 목적의 관광펀드는 3개 432억원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관광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2.4:1의 경쟁률을 기록해 벤처 생태계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포츠 용품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스포츠 펀드는 1개 100억원이 조성된다.

과기정통부는 5G시대 핵심 서비스이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비대면 (Untact)으로 성장성이 주목되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초기투자과 성장지원(scale-up)을 목표로 총 321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펀드 2개를 선정했다.

\* 디지털콘텐츠에 실감기술(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현실과 같은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환경부 주도로 미래 혁신 녹색기술·산업, 미세먼지 배출저감 등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도 2개 354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해수부는 첨단 해양장비·해양레저관광·스마트 해상물류 등 해양 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금번에 선정된 1개 155억원 규모를 포함하여 올해 총 2개 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건축·도로·물류 등 관련된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1개 170억원 조성한다.

교육부는 교수·대학원생 등 대학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6개 200억원 선정하였으며,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기업 펀드를 1개 58억원 선정했다.

<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 억원, 개) >

부처	투자분야	공고		선정결과		
		출자금 (A)	결성액	출자금	결성액	펀드수
중기부	스타트업	4,400	8,060	4,091	7,451	38
	점프업	3,800	9,500	3,800	12,725	13
	중기부 소계	8,200	17,560	7,891	20,176	51
문체부	문화콘텐츠	1,460	2,301	1,460	2,368	11
	영화	310	450	310	464	2
	스포츠	100	143	70	100	1
	관광	300	430	300	432	3
	문체부 소계	2,170	3,324	2,140	3,364	17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100	167	100	200	1
	미세먼지해결	100	143	100	154	1
	환경부 소계	200	310	200	354	2
과기정통부	실감콘텐츠	220	320	220	321	2
교육부	대학창업	150	200	150	200	6
국토부	국토교통혁신	100	167	100	170	1
해수부	해양신산업	200	286	100	155	1
고용부	사회적기업	40	58	40	58	1
합계		11,280	22,225	10,841	24,798	81

## 이번 출자사업의 역할과 기대효과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2,777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금년 조성되는 펀드가 투자 열기를 이어나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벤처투자 : ('17) 2조 3,803억원 → ('18) 3조 4,249억원 → ('19) 4조 2,777억원

특히, 이번에 선정된 펀드부터 본격 적용되는 우선손실충당 등 벤처 투자 촉진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전시키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이영민대표는 “이번에 조성되는 문화콘텐츠, 실감콘텐츠, 환경, 해양, 국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섹터펀드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다양성을 더하고, 다방면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도 이어진다. 특허청, 복지부, 문체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5개 부처가 835억원을 출자하여 3,300억원 결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공고는 분야별로 해외진출 제약·의료 분야 1,0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등 1,790억원, 해양신산업 143억원, 스포츠산업육성 186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업육성 19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선정 운용사

부처	출자분야	회사명	결성 예정액	출자 예정액	모태 출자비율
중기부	창업초기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500	250	50%
		인터베스트	300	150	50%
		마그나인베스트먼트	250	150	60%
		키움인베스트먼트	300	150	50%
		디티앤인베스트먼트/ COLOPL NEXT. Inc.	500	250	50%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400	200	50%
		메가인베스트먼트	250	150	60%
		비에이파트너스	200	120	60%
		위벤처스	500	300	60%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200	100	50%
		티인베스트먼트	350	175	50%
		티비티	300	180	60%
		인라이트벤처스	209	125	60%
	창업초기 (개투)-일반	인포뱅크	60	25	42%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60	30	50%
		퓨처플레이	50	30	60%
		씨엔티테크	30	15	50%
	창업초기 (개투)-지방	제피러스랩	50	30	60%
		로우파트너스	15	9	60%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40	24	60%
		시리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50	30	60%
	청년창업	데브시스템즈벤처스	200	120	60%
		메가인베스트먼트	200	110	55%
		KT인베스트먼트	240	120	50%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330	165	50%
		엘로우독	142	85	60%

부처	출자분야	회사명	결성 예정액	출자 예정액	모태 출자비율	
중기부	기술지주 (개투)-일반	미래과학기술지주	60	30	50%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50	30	60%	
	기술지주 (개투)-지방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75	30	40%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부산대학교기술지주	50	30	60%	
		충남대학교기술지주	30	18	60%	
	여성기업	에이벤처스	200	120	60%	
	소셜임팩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200	120	60%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100	60	60%	
	소재부품장비	코오롱인베스트먼트	500	300	60%	
	지방기업	어니스트벤처스	200	120	60%	
		비앤케이벤처투자	160	80	50%	
	규제샌드박스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100	60	60%	
	혁신성장	한국투자파트너스	1,610	220	14%	
		에스엘인베스트먼트	750	220	29%	
		스톤브릿지벤처스	750	220	29%	
		스틱벤처스	750	190	25%	
		미래에셋벤처투자	750	190	25%	
		프리미어파트너스	750	160	21%	
	스케일업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000	500	25%	
		케이티비네트워크	1,250	500	40%	
	M&A	티에스인베스트먼트	800	320	40%	
		에이비즈파트너스산은캐피탈	1,000	400	40%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915	320	35%	
		하나벤처스	650	260	40%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750	300	40%	
	<b>중기부 총계</b>			<b>20,176</b>	<b>7,891</b>	<b>39%</b>

부처	출자분야	회사명	결성 예정액	출자 예정액	모태 출자비율
문체부	게임	코나벤처파트너스	300	150	50%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이다스동아/농심캐피탈	150	105	70%
		크릭스벤처파트너스	109	75	69%
	해외연계	이수창업투자	150	90	60%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84	110	60%
	콘텐츠 IP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60	150	58%
	5G기술융합 콘텐츠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케이제이엔투자파트너스	400	180	45%
		모험콘텐츠	화인인베스트먼트	300	225
	이수창업투자		215	150	70%
	라구나인베스트먼트		100	75	75%
	가이아벤처파트너스		200	150	75%
	스포츠산업육성	마이스터프라이빗에쿼티	100	70	70%
	관광기업육성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208	145	70%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102	70	69%
			122	85	70%
한국영화 메인투자	미시간벤처캐피탈	300	210	70%	
중저예산 한국영화	케이씨벤처스	164	100	61%	
<b>문체부 총계</b>			<b>3,364</b>	<b>2,140</b>	<b>64%</b>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00	100	50%
	미세먼지해결	비엔케이벤처투자	154	100	65%
	<b>환경부 총계</b>			<b>354</b>	<b>200</b>
과기 정통부	실감콘텐츠	메이플투자파트너스	204	140	69%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117	80	68%
	<b>과기정통부 총계</b>			<b>321</b>	<b>220</b>
교육부	대학 창업	연세대학교기술지주 벤처박스	50	37.5	75%
		주식회사,충북대학교기술지주(주),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	10	7.5	75%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	40	30	75%
		미래과학기술지주	50	37.5	75%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30	22.5	75%
		주식회사 국민대학교기술지주, 특허법인 지원	20	15	75%
<b>교육부 총계</b>			<b>200</b>	<b>150</b>	<b>75%</b>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혁신	패스파인더에이치	170	100	59%
해양 수산부	해양 신산업	케이엔투자파트너스/ 비엔케이투자증권	155	100	65%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	임팩트스퀘어	58	40	69%
<b>선정 총계</b>			<b>24,798</b>	<b>10,841</b>	<b>44%</b>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4.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본격 지원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BIG 3 분야 본격 지원

- 1차 모집결과 98개사 선정, 2차 공고(5.1~5.20)로 150개사 추가 선정 계획
- 기업당 3년 간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와 130억원 규모의 R&D등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BIG 3 분야 1차 모집결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98개사를 선정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에 발표됐던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경제활력대책회의, '19.12.11)의 후속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BIG 3 분야 15개 세부분야 250개(시스템반도체 50, 바이오헬스 100, 미래차 100) 기업 집중 육성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19.12)

1차 모집에는 315개의 기업이 신청해서 98개사가 선정돼 평균 경쟁률 3.2:1을 보였고,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17개, 바이오 61개, 미래차 20개사가 선정됐다.

##### 【 분야별 선정기업 현황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SoC	센서	아날로그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의료 기기	의약	V2X통신	자율주행 센서	그린카 (성장지원)
11개	2개	3개	1개	7개	12개	18개	24개	4개	4개	12개
<b>17개</b>				<b>61개</b>				<b>20개</b>		

분야별 225명의 전문가의 평가와 58명의 국민심사단 의견을 반영해 기술성과 혁신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선정된 17개사 중 SoC(System on the Chip) 분야가 11개사로, 글로벌 IP 설계기업인 Arm의 설계패키지(Flexible Acces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oC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 SoC 선정기업 11개 중 5개가 Arm의 설계패키지 사용 예정

**<시스템반도체 분야 선정기업 사례>**

퓨리오사에이아이사는 인공지능(AI) 연산에 최적화된 추론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17년 설립 후 1년만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딥러닝 추론은 방대한 양의 연산을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 선정으로 Arm의 설계 패키지(Flexible Access)를 활용해 보다 빠른 고성능 NPU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는 전체 신청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이런 수요가 반영돼 61개가 선정됐다.

특히, 이중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 개발 등 의약·의료기기 관련 기업이 24개가 선정돼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헬스 분야 선정기업 사례>**

온코크로스는 유전자 발현 패턴에 기반한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제 조합을 발굴하는 신약 벤처기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R&D를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 후보군에 대한 RNA염기서열(RNA-seq)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전염병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 후보군을 선별·개발하려 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2019년 4차 산업혁명시대 SW활용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국내 레이저 응용기술 선도기업인 컨셉션이 선정돼 눈에 띈다.

**<미래차 분야 선정기업 사례>**

컨셉션은 R&D 지원을 받아 무인 방열소재를 적용한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제작 기술을 개발한 뒤,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구미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상생형 일자리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중기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혁신 멘토단을 꾸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부터 성과관리까지 상시 지원하는 등 체계

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2차로 BIG 3 분야의 150개를 추가 모집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공고를 시작으로 참여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신청·접수는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의약 분야는 총 30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 의약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최대 60개로 확대해 유망한 스타트업 36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IP 설계 기업인 Arm과의 협약(4.22)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Flexible Access)를 무료로 지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BIG 3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 당 3년 간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와 R&D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2차에 선정 예정인 분야도 △SoC, 아날로그반도체, 스마트센서, 패키징·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 e-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친환경차 배터리, 친환경차 조향장치, 친환경차 엔진 등 1차와 동일하다.

BIG 3분야 기업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http://www.kiat.or.kr))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BIG 3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을 대폭 확대해 모집하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희망을 전했다.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5. 국가대표 '브랜드 K' 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 100인의 평가 및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확립
-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등 분야별 대표 브랜드 K 상품에 대한 인플루언서 라이브 홍보방송 진행 및 온라인·홈쇼핑 특판전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선정을 위한 전문가 100인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래 지난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행사 자제 분위기에 따라 연기됐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수출촉진 분위기 전환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K 바이오 중소기업에 대해 적기에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준수와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전격 개최됐다.

'브랜드 K'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표 공동브랜드인 만큼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여러 수출 유관기관들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브랜드K 선정을 위한 100인 최종품평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 4. 29(수) 13:00~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1층)
- (참석) 장관, 유관기관장(무협, 중진공 등) 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등 280여명
- (행사내용) 사전 평가를 거친 최종 후보 150개(공모 100, 추천 50)에 대한 현장 실물 평가 및 K-바이오 제품(코로나 진단키트 등) 전시·홍보
- (평가위원) **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등 총 100명 구성**
  - \* 유통채널 MD 등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등
- (홍보계획) ①'가치샵시다' 플랫폼 ②'유명 인플루언서(대도서관, 씬님, 소프) 라이브 방송 등과 연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나의 Best5') 진행
- (방역대책) 정부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 준수하여 철저한 현장 방역 실시
  - \*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 에어커튼 설치,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 등 유지

이번 2기 브랜드 K 선정에는 지난 1기 제품 선정 과정을 보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먼저 유관기관의 추천 트랙을 신설해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후보제품의 pool을 확대했고 사전심사에 서면이 아닌 실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오늘 개최된 최종 품평회에서는 총 1,045개 제품 중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1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 K바이오·K뷰티·K푸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셀럽을 포함한 100인의 평가단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투표를 병행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정제품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품평회 결과, 후보제품 15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80여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 상위제품(Top 10) 및 온라인 투표(Top5) 제품 대상으로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하는 인플루언서(대도서관, 씬님, 소프)의 라이브 홍보방송(29일 오후 6시)'을 통해 '브랜드 K'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였다.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력 개선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될 예정이고,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샵시다 플랫폼 활용 등 특판전과 전용관 운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브랜드 K 전용 수출바우처 지급(업체당 최대 1억), 전용 신성장진출지원자금(100억원) 우대, 해외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KCON 등 각종 한류행사 및 바이어상담회 우대지원 등

특히, 상위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제품별 진출시장 결정부터 상품 홍보 키 메시지 도출, 진출 전략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및 공영쇼핑을 포함한 국내 대표 홈쇼핑사의 릴레이 특판전 등 다양한 컨설팅과 홍보·판촉 특전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계기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기회로 살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서 세계시장 안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 브랜드를 통한 국가적 보증 및 측면 지원이 필수적” 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최종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80개 제품은 글로벌 시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상품으로, 향후 ‘브랜드 K’ 선정에 따른 각종 정부 수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참고 1

# 2기 브랜드 K 선정을 위한 100인 최종품평회 계획(안)

## 1 행사 개요

### □ 행사 목적

- '20년 브랜드 K 제품 선정 관련, 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개최 통해 공정·투명성 제고 및 국민이 직접 선정한 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립
- K-바이오 제품 활용 방역 시행, 사회적 거리 유지 행사장 운영 등을 통해 Post-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내수진작 행사의 시금석으로 활용

### □ 행사 개요

- (행사명) 2기 브랜드 K 선정 위한 “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 (일시·장소) '20. 4. 29(수) 13:00~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1층)
- (참석) 장관, 유관기관장(무협, 중진공 등) 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등 280여명
- (행사내용)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150개(공모 100개, 추천 50개) 및 별도 추천된 K-바이오 18개 제품에 대한 실물제품 대면 평가 진행
- (평가위원) 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등 총 100명 구성  
\* 유통채널 MD 등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등
- (평가방법) 다수 인원 집결 최소화를 위해 행사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3개 라인으로 제품들 배치 후 릴레이 방식으로 평가 진행

### □ 방역 대책

- 정부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 준수하여 출입자 및 행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현장 방역 실시
- \*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 에어커튼 설치,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 등 유지

## 2 행사 세부일정

### □ 전체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3:00~13:30	30'	▶ 제품부스 방문 및 참가기업 격려 * 각 구역별(K-바이오, A~C) 5분 내외	* 장관, 유관기관장(4), 셀럽 평가단 등
13:30~13:40	10'	▶ 품평회 오프닝 행사 * 박영선 장관 및 무역협회장 인사말씀	* 장관, 무역협회 회장
13:40~14:40	60'	▶ 품평회 (1라운드) * 3개 구역 동시 진행	
14:40~15:00	20'	▶ 휴식 및 방역 실시	
15:00~16:00	60'	▶ 품평회 (2라운드)	
16:00~16:20	20'	▶ 휴식 및 방역 실시	
16:20~17:20	60'	▶ 품평회 (3라운드)	
17:20~18:00	40'	▶ 점수 집계 및 정리	
18:00~18:30	30'	▶ 인플루언서 방송 * 브랜드 K 정책 및 최종선정 TOP10 발표	* 장관, 인플루언서 (대도서관)

### □ 행사장 배치(안)










## 참고 2

## 선정기업 현황









- (진단키트)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정식허가를 받는 즉시 자동으로 Brand K로 승격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예비 Brand K'로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연계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1	(주)인트론바이오 테크놀로지	코로나 진단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감염성 생물체 및 유전자 시약제품 등 진단시약</li> <li>· (인허가 사항) 핵산추출신고(신고) / 핵산추출키트(신고) /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2	(주)케이에이치메디칼	PCR 분자 진단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기술 기반의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li> <li>· (제품 특징) 2020년 4월까지 약 15억원 수출</li> <li>· (인허가 사항) 핵산추출기구(신고) / 핵산추출키트(신고)</li> </ul>	
3	(주)팍스젠바이오	체외진단 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PaxView COVID19 Real-time RT-PCR Kit</li> <li>· (제품 특징) 체외진단용으로 설계된 단일 튜브와 원스텝 실시간 RT-PCR을 적용, 사용하기 쉽고 간단함</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4	영동제약(주)	액상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유리스캔시험지(노검사시험지), 혈당측정기, 에이스캠(액상시약 및 분석기) 등</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5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의약품 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U-Top COVID-19 Detection Kit</li> <li>· (제품 특징) 신종바이어르서의 유전자를 역전자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검출</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6	솔젠트(주)	중합효소 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진단키트, 중합효소키트, 산업미생물 등</li> <li>· (인허가 사항) PCR 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li> </ul>	
7	(주)에스엠엘제니트리	PCR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PCR 진단키트</li> <li>· (제품 특징) COVID-19의 원인이 되는 SARS-CoV-2 Virus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출 가능</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8	(주)바이오세움	체외진단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등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수출용허가)</li> </ul>	
9	(주)씨젠	감염성 검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씨젠의 원천기술인 DPO와 MuDT 기술을 이용한 Real-time PCR 시약(코스닥 상장법인)</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수출용허가)</li> </ul>	
10	(주)젠큐릭스	진단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폐암 동반진단 키트 등 의료용기기(코넥스 상장법인)</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11	(주)캔서롭	PCR 진단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DNA Chip 및 NGS 진단, PCR 진단키트, 사후검체 제천명지, 효소/시약 등(코스닥 상장법인)</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12	(주)코젠바이오텍	유전자 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플루시약, 유전자감식, GMO분석 등</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수출용허가)</li> </ul>	
13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유전자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Dow QuickFinder 2019-nCoV Real-time PCR Kit</li> <li>· (제품 특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gene 중 3개의 특이적 타겟 영역을 정성적으로 검출</li> <li>· (인허가 사항)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li> </ul>	
14	(주)한울티피씨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NC-15 PLUS 핵산추출장비</li> <li>· (제품 특징) 32개 샘플을 25분에 처리가 가능하며, 조작이 쉽고 간편하여 현장검사가 가능</li> <li>· (인허가 사항) 핵산추출기구(신고)</li> </ul>	

□ 브랜드 K 선정제품

○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등 각 분야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1	(주)고려기연	워크스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li> <li>· (제품 특징)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한 장치, 음압/양압 사용이 가능하며 검사자와 피검사자를 격리시켜 신속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li> </ul>	
2	(주)씨앤티스 성진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설립(대표자 : 하춘옥), 부산 소재</li> <li>· 고효율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율 94%, 호흡기 저항률 70Pa이하로 편하게 착용</li> </ul>	
3	네오메디칼	방역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도 설립(대표자 : 이상돈), 경기도 소재</li> <li>· 4중 필터 구조의 초정전필터로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보호할 수 있는 방역마스크</li> <li>· 100% 국내산 제조, 3단 접이식 디자인, 고효율 하드셀필터 적용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li> </ul>	
4	고려프라스틱	의료용 고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4년도 설립 (대표자 : 이영직), 대구 소재</li> <li>· 내충격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사용, 측면보호 가능한 원렌즈를 사용하여 안정성 극대화</li> <li>· 프레임 경량화로 가볍고, 접안부를 특수 굴곡 처리하여 밀착력 우수</li> </ul>	
5	(주)삼마제약	손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설립 (대표자 : 최진철), 경기도 소재</li> <li>·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알콜이 아닌 옥수수발효 에탄올이 78% 함유 된 제품</li> </ul>	
6	투쿨포스쿨	쉐이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설립(대표자 : 심진호), 경기 과천 소재</li> <li>· 자연스러운 음영으로 표현되는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쉐이딩 제품</li> </ul>	
7	경남제약	레모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설립(대표자 : 배건우), 경남 의령 소재</li> <li>· 하루 1포로 간편하게 비타민C를 123mg 섭취 가능</li> </ul>	
8	유기농사랑	김스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설립(대표자 : 정도영), 부산 소재</li> <li>· 국내 유기농 무산김으로 만든 스낵으로 잡조류 등을 제거하고 만든 착한 김스낵</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9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컵 떡볶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설립(대표자 : 조재곤), 대구 소재</li> <li>· 전자레인지에 돌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 형태의 즉석 떡볶이</li> </ul>	
10	니코메디칼	패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설립(대표자 : 김연택), 경기 광주 소재</li> <li>· 진물 흡수, 상처보호 및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밴드</li> </ul>	
11	명품김	김스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설립(대표자 : 김재철), 충남 서천</li> <li>· 튀기지 않고 4번을 구워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MSG 무첨가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li> </ul>	
12	(주)화요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설립(대표자 : 문세희, 조태권), 경기 여주 소재</li> <li>· 자연 원료를 살려 부드러움과 쌀 특유의 풍미를 담아 내어 물로 희석하여 마셔도 맛과 향에 변함 없음</li> </ul>	
13	(주)엠알 이노베이션	앰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설립(대표자 : 김호현), 대구 소재</li> <li>· 탄산팩이 피부의 미백, 모공, 트러블 완화 등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li> </ul>	
14	(주)원스타 인터내셔널	유아용 칫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설립(대표자 : 손재훈), 인천 소재</li> <li>· 진동은 줄이고 칫솔모를 늘려 잇몸부담을 줄인 제품, 작고 미세한 부분의 플라크 제거 효과가 탁월</li> </ul>	
15	(주)마더케이	물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설립(대표자 : 김민정), 경기 성남 소재</li> <li>· <b>USDA인증된 시드오일을 첨가</b>, 한장씩 뽑히는 논팝업 기술을 적용, 한 장으로 충분한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li> </ul>	
16	(주)드림세프	팬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년 설립(대표자 : 김양영), 경기 김포 소재</li> <li>· <b>피오르드 공법으로 프라이팬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음식이 눌러 붙지 않게 해주고, 요리시간을 단축</b></li> </ul>	
17	퀸-아트	팬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 설립(대표자 : 황태옥), 경기 김포 소재</li> <li>· <b>강력한 논스틱 코팅을 적용</b>, 열내구성/강도가 높고, 가스렌지 및 인덕션렌지 모두 사용가능한 멀티제품</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18	광주요	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년 설립 (대표자 : 조태권), 경기도 소재</li> <li>· 삼베의 격자무늬를 도자기 표면에 적용, 심미적인 면과 함께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보유</li> </ul>	
19	(주)나인위시스	세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설립(대표자 : 김지훈), 서울소재</li> <li>· 고농축이지만 산뜻한 타입의 세럼으로 즉각적인 수분공급으로 피부 보습 충전 가능한 제품</li> </ul>	
20	(주)아이차밍	아이 새도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 설립(대표자 : 이희섭), 경기 안양 소재</li> <li>· 쌍커풀 라인에 형성되는 크리스 현상과 가루 날림을 없애고 발색력과 밀착력이 뛰어남</li> </ul>	
21	(주)태영	쿠션 파운데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설립 (대표자 : 황창주), 경기도 소재</li> <li>· 콜라겐추출물과 다이아몬드파우더가 함유되어 자연스러운 광채피부 표현이 가능한 쿠션 팩트</li> </ul>	
22	(주)셀리턴	LED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셀리턴 LED 마스크 플래티넘</li> <li>· (제품 특징) 유효파장 출력 촉진을 위한 LED 모듈 특허, 1026개 LED의 빈틈없는 풀케어</li> </ul>	
23	(주)씨알푸드	씨리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우리쌀 프레이크 씨리얼</li> <li>· (제품 특징) 원료를 국내산 쌀로 사용해 소화기 편함, 2012 우수쌀가공제품 TOP10 선정</li> </ul>	
24	(주)유니크미	마스크 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제주방림원 화산송이 동굴 발효 마스크팩</li> <li>· (제품 특징) 특허 받은 발효 기술로 흡수력 UP! 제주 자연이 빛은 발효화장품(JCC인증)</li> </ul>	
25	(주)명성	위생장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Right Fit Gloves 위생 장갑</li> <li>· (제품 특징) 내 손에 딱 맞게 늘려쓰는 장갑, 흘러내리지 않는 장갑</li> </ul>	
26	(주)미로	가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미로 가습기</li> <li>· (제품 특징) 세계유일 완벽 분리 세척 가습기, 대통령상, IF, 디자인어워드 등 다수의 수상</li> </ul>	
27	(주)메탈쿡	밀폐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스텐 밀폐용기</li> <li>· (제품 특징) 항균 99.9%(대장균,포도상구균),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 304 사용</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28	주식회사 PN 풍년	압력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스톤벨 압력솥</b></li> <li>(제품 특징) <b>국내산 곱돌을 더한 중력주조 압력솥, 셀프베이스팅 효과와 코니컬타입 디자인</b></li> </ul>	
29	(주)제너럴네트	가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프로폴린스 가글</b></li> <li>(제품 특징) 해외누적판매 2,800만병 돌파, 충치원인균 30초만에 박멸 찌꺼기가글</li> </ul>	
30	(주)참케어	손목형 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혈압 모니터링 손목형 밴드</b></li> <li>(제품 특징) 가장 작은 손목 밴드형 혈압계 (KFDA, USFDA 인증획득), CES 2020 최고혁신상, Edison Award 2020 동상 수상</li> </ul>	
31	한울생약 (주)	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리코베이비 구강청결 티슈</b></li> <li>(제품 특징) 121도 고온, 고압 멸균 처리, 무방부제, 100% OCS 유기농 Cotton</li> </ul>	
32	데이셀 코스메틱	앰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여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b></li> <li>(제품 특징) 여성초, 한방특허의 탈모완화 기능성, 2019년 국내/해외 300만개 판매</li> </ul>	
33	(주)뉴랩	위생비닐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뉴커터랩 위생비닐랩</li> <li>(제품 특징) 톱날랩의 불편함과 위험요소 차단, 특허획득!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절취</li> </ul>	
34	코코도르 (주)	디퓨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저</li> <li>(제품 특징) 디퓨저 미국 아마존 No 1., 대만 시장점유율 70%</li> </ul>	
35	플루토 전자	고양이 배변 자동처리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서클 제로 고양이 배변 자동처리장치</li> <li>(제품 특징) 고양이가 화장실 사용 7분 뒤 자동청소, 안전한 동작 감지 센서 장착</li> </ul>	
36	주식회사 파뷰에	도마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향균 도마세트</li> <li>(제품 특징) 뛰어난 디자인, 향균력 99.9%, 미끄럼완화, 양면사용 등의 가능성</li> </ul>	
37	메를로랩 (주)	스마트 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IoT 전구(스마트한 전구)</b></li> <li>(제품 특징) 전구 하나 바꿨더니 스마트 홈, 쓰던 가전이 스마트 가전이 되는 마법</li> </ul>	
38	(주)푸드 나무	닭가슴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맛있닭 소프트 닭가슴살</li> <li>(제품 특징) 2019 식품기술대상 동상 수상, 원적외선 공법으로 수분 코팅 가공</li> </ul>	
39	(주)유피엘 컴퍼니	종이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한장으로 30매 종이세제</b></li> <li>(제품 특징) 유일한 환경부 친환경인증 종이세제, 계량의 불편함 없는 초고농축 세탁세제</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40	(주)아임	드라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터치식 핸드프리 드라이어</li> <li>· (제품 특징) 핸드프리형 펫드라이기, 저소음! 고품량! 고객만족도 1등</li> </ul>	
41	(주)첸트랄	VR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Vright(눈운동 병행 VR기기)</li> <li>· (제품 특징) 세계 최초 미국FDA 의료기기 1등급 등록, 안구피로, 근시, 노안, 난시 등을 개선</li> </ul>	
42	(주)엘유케이	타투 아이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168 타투 아이브로우</li> <li>· (제품 특징) 아시아 No.1 유튜버 포니 극찬템, 168시간 지속 눈썹 타투 효과</li> </ul>	
43	주식회사 바이오믹스테크	쉐프 K 매직 쿡 파우더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쉐프 K 매직 쿡 파우더 세트</li> <li>· (제품 특징) 똑딱똑딱 쉽게 즐기는 K-FOOD, 당걱정 없이 즐기는 건강차</li> </ul>	
44	주식회사 다온에스아이	변기크리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주요 제품) 이지드롭 변기크리너</li> <li>· (제품 특징) 세정제+브러쉬 물이 닿으면 바로 청소가능! 살균99.9%, 사용한 브러쉬는 청소 후 변기에 버리면 청소 끝~!</li> </ul>	
45	(주)서광	호신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LUHERo(호신용품)</li> <li>· (제품 특징) 매일 쓰는 신개념 호신용품 LUHERO, 스마트호신용품 / 보조배터리 / 손전등</li> </ul>	
46	(주)한빛식품	누룽지 크래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바삭 유기농 현미 누룽지 크래커</li> <li>· (제품 특징) 남녀노소 드실 수 있는 얇고 바삭함, 유기가공식품/첨가물 NO!</li> </ul>	
47	(주)에이블루	전선정리 박스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전선정리 박스탭(boxtap)</li> <li>· (제품 특징) 지저분한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 전기료까지 잡아주는 디자인 멀티탭!</li> </ul>	
48	(주)제이아트컴퍼니	마사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팔케어 소닉 초음파 이온 갈바닉 마사지기</li> <li>· (제품 특징) 국내유일 프리미엄 초음파 피부관리기, 얼굴, 바디케어가 가능한 냉온 갈바닉</li> </ul>	
49	(주)더스킨팩토리	샴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허니&amp;마카다미아 프리미엄 네이처 샴푸</li> <li>· (제품 특징) 대한민국 No.1 샴푸! 3초에 하나씩 판매, 생두에서 추출한 카페인 탈모완화 기능성 샴푸</li> </ul>	
50	(주)오리진지앤비	세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미라클워터 다목적 세정제</li> <li>· (제품 특징) 화학성분제로, 친환경 강알칼리전해수, 물로만든 친환경 다목적 세정, 소독제</li> </ul>	
51	(주)메이드바이맘	교육용 안전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리구 에듀매트(교육용 유아 안전매트)</li> <li>· (제품 특징) 6가지 언어를 놀이하면서 배우는 매트, 홍콩베이비페어 대상 수상 제품</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52	해피밀리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브알라 소화기</li> <li>· (제품 특징) 식용유화재까지 커버하는 가정용 소화기, 2019 SBA디자인우수상품 '은상'</li> </ul>	
53	(주)푸시풀시스템	도어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SMART Door Lock 8301(도어락)</li> <li>· (제품 특징) 문 흔들림 방지 기술 51개국 특허! 신남방국가 독점 및 총판 공급 계약!</li> </ul>	
54	(주)고도	헬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에바가드(헬멧)</li> <li>· (제품 특징) 휴대가 편리한 접히는 헬멧, 특수 코팅 - 방탄, 햇빛/자외선 차단</li> </ul>	
55	(주)한스코리아	즉석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쌀로 만든 즉석면(즉석쌀국수 4종)</b></li> <li>· (제품 특징) 2014 우수쌀가공식품 BEST TOP 10 선정, 국내산 쌀, 멸치, 김 등 우리농산물 사용</li> </ul>	
56	범일산업(주)	라면 조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인덕션 라면 즉석 조리기</b></li> <li>· (제품 특징) 스마트 인덕션 멀티 정수조리기, 가정, 식당, PC방의 히트 상품</li> </ul>	
57	(주)영진산업	수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스피드랙 수납장</li> <li>· (제품 특징) 레고스타일 무볼트 조립식가구, 동탑산업훈장   굿디자인   HIT500</li> </ul>	
58	비엔씨 일렉트로닉스	무선 신발 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홈세라 무선 신발 건조기</b></li> <li>· (제품 특징) 세라믹+열분해 공기대류 살균, 건조, 탈취, 2019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li> </ul>	
59	(주)홈일렉코리아	무선 안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홈일렉 무선 안마기 CM-07</li> <li>· (제품 특징) 국내생산 780g 초경량 무선안마기, 얼굴마사지 미세진동 모터 탑재</li> </ul>	
60	(주)라니앤라이프	가스그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라니 퍼니콕 가스그릴 풀세트(RFG-3000)</b></li> <li>· (제품 특징) 어디서든 다양한 요리를 하나로 가능, 서로의 원하는 취향에 맞는 요리 가능</li> </ul>	
61	칠갑농산(주)	쌀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칠갑농산 쌀국수</li> <li>· (제품 특징) 오랜시간 숙성시켜 천천히 만든 건강면! 국내산 쌀과 햇살로 빛은 자연건조면!</li> </ul>	
62	(주)나인브릿지	차량용 거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대쉬크랩 핏 차량용 거치대</li> <li>· (제품 특징) 미니멀 디자인 무선 충전 오토 거치대, 국내 생산·하이브리드 친환경 거치대</li> </ul>	
63	루토닉스	두피모근 홈케어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볼륨 부스터(두피모근 홈케어 기기)</li> <li>· (제품 특징) 가장 가볍고 쉬운 탈모방지 디바이스, 2019 독일iENA 2개 부문 수상</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64	(주)오토싱	무선 물걸레 청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무선 양방향 자동 물걸레 청소기</li> <li>(제품 특징) 물걸레, 진공청소를 한번에, 핸디 청소기로 간편하게</li> </ul>	
65	블루필 주식회사	휴대용 선풍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휴대용 선풍기</b></li> <li>(제품 특징) 초소형, 초강력, 24시간 사용, 국내산, 2019 네이버쇼핑 선풍기 TOP3</li> </ul>	
66	체어플러스	자세교정용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체어플러스 자세교정용 의자</li> <li>(제품 특징) 바른자세, 골반교정 및 훈련의자, 일본, 대만TV홈쇼핑/세계 12개국 수출</li> </ul>	
67	(주)아베크	펫 살균 토탈케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펫 살균 토탈케어룸</li> <li>(제품 특징) 국내 유일 특허받은 살균 케어룸, 4단계 강력 살균 피부 케어룸</li> </ul>	
68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농업회사법인	알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산골알밤</li> <li>(제품 특징) 지리산 하동 알밤100% 원물모양 그대로, 무첨가 자연의 맛 그대로 국민 간식 영양간식</li> </ul>	
69	주식회사 현진금속	밀폐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Sten+ Window 밀폐용기</li> <li>(제품 특징) 내용물이 한눈에 속이 보이는 스텐 용기, 고객 맞춤형! 안전한 식품 보관 밀폐용기</li> </ul>	
70	오레스트(주)	안마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음성인식 4D 안마의자</b></li> <li>(제품 특징) 세계로 수출하는 국내생산 안마의자, 2019 G-FAIR 최우수제품상 수상</li> </ul>	
71	가온(주)	베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코튼샤워 돌로 기능성 양면베개</b></li> <li>(제품 특징) 베개! 통째로 패딩처럼 간편하게 세탁하자, 킥스타트등 해외 크라우드펀딩 40만달러</li> </ul>	
72	(주)한국미래클피플사	세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은나노스텝 시즌2 다용도 세정제</li> <li>(제품 특징) 오렌지오일 주성분, 친환경 다용도 세정제,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유망중소기업 선정</li> </ul>	
73	(주)소닉월드	음파 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b>음파 운동기</b></li> <li>(제품 특징) 모터가 아닌 우퍼스피커의 원리, 주파수별 자극부위 조절 가능</li> </ul>	
74	(주)하도에프앤씨	펫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올웨이즈 펫매트</li> <li>(제품 특징) 세계최초 반려동물 기능성 놀이 카페트, 털 및 오염물질 포집, 털 날림 방지</li> </ul>	
75	농업회사법인 (주)두레촌	견과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명인조청으로 만든 하루 든든 견과바</li> <li>(제품 특징) 대한민국 조청명인이 만든 건강한 단맛, 조청, 과일, 견과로 만든 무설탕 간식</li> </ul>	
76	광천 조양식품	광천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제품) 왕후 광천김</li> <li>(제품 특징) 비타민,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 수라상에 올리는 정성으로 구운김</li> </ul>	

연번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내용	참고 이미지
77	주식회사 자유니온	복 도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연하도움식(씹고 삼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사)</li> <li>· (제품 특징) 삼키기 좋은 멍침성 잔여물 없는 안정성</li> </ul>	
78	(주)아이콘	텀블러 살균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건조기</b></li> <li>· (제품 특징) 자외선을 이용한 소형 살균소독기기, 마스크, 공갈젓꼭지, 젓병, 텀블러 등 살균</li> </ul>	
79	(주)쓰임받는사람들	물감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UBBLE CoLoR 물감 세트</li> <li>· (제품 특징) 국내개발 특허등록 유럽인증 핑거 페인트, 손으로 느끼고 즐기는 입체 거품물감</li> </ul>	
80	(주)플랜맥스	방음 파티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소리 먹는 파티션(방음 파티션)</li> <li>· (제품 특징) 소리먹는 파티션-흡음보드+펠트 적용, 유연성이 있어 다양한 구성 가능</li> </ul>	
81	(주)더동쪽바다 가는길	대게백 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품) <b>홍영의 대게백간장</b></li> <li>· (제품 특징) 세상에 없던 투명간장 요리 색 그대로, 동해의 보석 붉은대게의 감칠맛을 품다</li> </ul>	

### 참고 3

### 1기 브랜드 K 주요 제품 및 성과

기업명(제품명)	이미지	상품군	특장점 및 우수사례
기베스트 (나인테일즈)		뷰티	·90초만에 피부주름 개선 효과, '바르는 보톡스' ·뷰티 본고장 프랑스 진출 성공(홈쇼핑 110만불), 아시아-미국 시장 수출도 대폭 증가 (20배 ↑)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혁신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한줌의 가루로 만드는 처리기 ·'19.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대상 수상 ·독일, 러시아 수출도 대폭 증가 (25배 ↑)
에브리봇(주) (로봇청소기)		혁신 생활	·바퀴없이 회전으로 주행과 청소를 수행 ·'19. 레드닷 디자인상, '18. 대한민국 로봇대상 ·'20. 17만불 수출 계약
(주)리틀캣 (Cat Wheel)		혁신 생활	·반려동물의 원격 운동유도 펫테크 제품 ·'19. CES 5만불 수출계약, '20. 83만불 수출 계약
골무트리 (포인터마우스)		IT 전자	·블루투스 방식 연결 웨어러블 포인터 마우스 ·미주 및 동남아 시장 250만불 수출 MOU
망고슬래브(주) (네모닉라벨)		IT 전자	·스마트폰 통해 잉크없이 메모 출력하는 프린터 ·'17. CES 최고혁신상, '18. 도교국제기프트쇼 그랑 프리, 11만불 수출 계약
(주)기운찬 (더기운찬건강)		가공 식품	·홍삼, 녹용 및 복합버섯균사체 함유된 건강식품 ·학교 급식납품 (200여개 초중고), 매출 214% 증가
농업법인 (주)삼흥 (강개상인)		가공 식품	·자연건조 (해풍, 서리, 이슬, 황토방건조) 홍삼제품 ·소비자중심 경영 우수업체 인증, 11만불 수출 계약
원소프트다임 (원스마트다이어트)		IT 전자	·접촉식 체성분 측정하는 스마트폰 분석기기 ·대만 대표 ICT 전시회(이노박스2019) 스타트업 어워드, '20 CES 참가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6.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 마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①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 유효기간 연장, ③ 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 벤처투자 ② 연구개발 ③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 <벤처기업 요건>

- (1) 중소기업일 것
-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 ②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 ③ 보증·대출 유형: 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 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고,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되었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하였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하였다.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하였다.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②클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

였다.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 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 정의

-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캐피탈 협회
연구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 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 기술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참고2

##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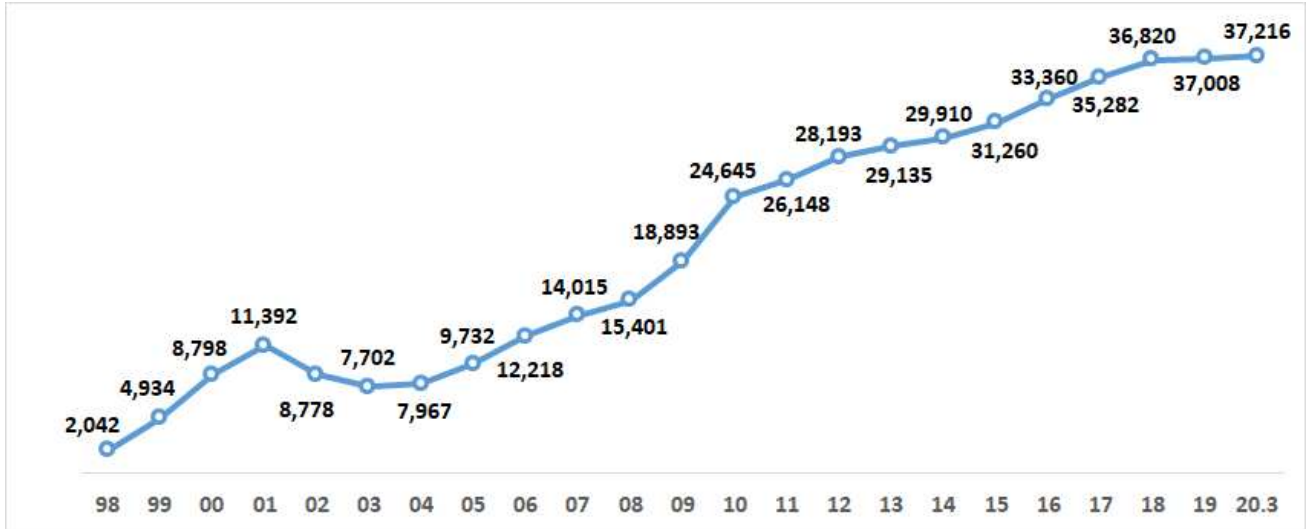
- 목적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
  - 그간 공공기관(기보·중진공)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 벤처기업 수(개) : 16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19) 37,008
    -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 입법예고('18.5) → 국회 제출('18.11) → 국회 의결('20.1) → 공포('20.2.11) → 시행('21.2.12)
    - \* '벤처창업 휴직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어기구 의원안도 포함하여 개정('20.5.12 시행)
  - 주요 개편 내용
    -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 구체적인 요건 》

  -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클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업연구소 ③창업전담부서
    -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 ③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 → 폐지\*
    -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참고3

### 벤처기업 현황 ('20.3 기준)

□ 연도별 : '15년 3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 : 보증·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 등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예비벤처	계
기업수(개)	2,335	2,699	32,080	102	37,216
비율(%)	6.3	7.2	86.2	0.3	100

□ 업력별 : 3년 미만 18.6%, 3년 이상 7년 미만 33.9% 등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예비벤처	계
기업수(개)	6,718	12,542	5,569	9,092	3,193	102	37,216
비율(%)	18.0	33.7	15.0	24.4	8.6	0.3	100

□ 업종별(대분류) : 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 등

구분	제조	정보처리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	농·어· 임·광업	기타	계
기업수(개)	24,600	6,742	678	691	879	103	3,523	37,216
비율(%)	66.1	18.1	1.8	1.8	2.4	0.3	9.5	100

## 참고4

## 벤처기업확인기관 개요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역할)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
  - 신청접수 등 행정 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 사무\*\*를 수행
    - \*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지원
- (요건) '민간 주도'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 《 구체적인 요건 (시행령 제18조의7 신설) 》

- ① 민간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③ 전문인력 :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할 것
  - \*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

- (지정 방법)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5**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58의3①②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를 0.2%p 감면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 이익률(10%→5%),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 →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 (150% → 미적용))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

##### 방역/언택트분야 R&D 성과기업 간담회 개최

- 참여기업 8개사(방역·진단분야 5, 언택트분야 3) 성과 공유, 혁신제품 사업화 성과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 요청
- 박영선 장관, “그간 노력이 성장으로 결실 맺도록 적극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4일(월) 오후 2시, 텃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중기부 R&D를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방역·진단분야 5개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언택트분야 3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바이오 진단분야 전문가인 (주)진매트릭스 김수옥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을 발제 후, 성과 공유와 제품 시연,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축적된 기술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방역물품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는 유망 중소벤처들이 함께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하며 20년간 외길을 걸어 온 (주)멕아이씨에스 김종철 대표는 고(故)이민화 회장이 창업한 (주)메디슨에서 연구수석을 역임한 의료기기 개발통이다. 지난달 미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정부와 수백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연구로 축적된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발에 착수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압 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한 (주)웃샘 이명식 대표는 최근 지자체, 소방방재청, 일선 보건소에 음압캐리어 500여대를 공급하는 등 전략 물자로서 방역물품 개발 생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확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기(리얼타임 PCR)를 개발해 유럽 인증(CE-IVD)을 획득한 (주)옵토레인 이도영 대표, 플라즈마 바이오 살균기를 개발해 의료기관과 구급차량에 공급한 (주)다우코리아 배준형 대표, 대기업에서의 백신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주)인테라 최덕영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언택트분야 유망 중소벤처들도 함께 했다.

(주)링크플로우 김용국 대표는 360도 VR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 중국 우한의 코로나 병상에서 의료진이 원격 환자 회진에 사용해 비대면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살린 김재현 대표는 VR을 이용한 교육용 증강현실 플랫폼을 개발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Innovation Program VR 부분에 선정됐다.

테크하임(주) 이원용 대표는 진단 장치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전송해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판독·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 중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제품의 기술 및 성과를 확인했다.

\* (주)멕아이씨에스 (인공호흡기), (주)링크플로우 (360도 VR카메라), (주)살린 (VR가상 강의실), (주)웃샘 (음압 캐리어), (주)옵토레인 (코로나 진단기기), (주)다우코리아 (플라즈마살균기)

이어, 참여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R&D, 스마트공장, 양산자금, 수출 등\* 정책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비축 및 제품 구매를 요청했다.

\* 일선 교육현장에서 비대면 방식을 실제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시범 서비스 추진

박영선 장관은 “올해부터 중기부는 기술개발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K바이오, 브랜드-K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망한 R&D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정신과 신속한 적응력을 DNA로 탑재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간담회 계획****1. 간담회 개요**

- (목적)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의 역할을 공유하고 R&D성과 활용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 '20.5.4(월) 14:00 ~ 15:00 (60분), 팁스타운 팁스홀
- (참석) 장관, 중소기업 대표(8명), 기정원장 등 10명 내외

**< 참석 중소기업 >**

구분	기업명	대표	지원사업	개발제품
방역	(주)메이씨에스	김종철	기술혁신 ('11)	(인공호흡기) 생체신호 연동 지능형 인공호흡장치
	(주)웃샘	이명식	산학연 ('18)	(감염예방) 감염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캐리어
	(주)다우코리아	배준형	공정품질 ('18)	(감염예방) 병원용 감염방지 플라즈마 살균기
엔택트	(주)링크플로우	김용국	창업성장 ('17)	(영상제작) 360도 VR 웨어러블 카메라
	(주)살린	김재현	TIPS ('18)	(원격교육) VR을 이용한 증강현실 교육 플랫폼
	테크하임(주)	이원용	기술혁신 ('18)	(원격의료) 의료 영상판단 및 진단시스템
진단/백신	(주)옵토레인	이도영	맞춤형기술파트너 ('19)	(감염진단) 반도체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 기기
	(주)인테라	최덕영	창업성장 ('19)	(백신개발) 바이러스 감염병 대상 백신 개발

- (진행방법) 성과발표(제품시연 포함) 및 애로·건의

**2. 세부일정(안)**

시 간	일 정	비 고
14:00 ~ 14:02	2분	참석자 소개
14:02 ~ 14:07	5분	인사말씀
14:07 ~ 14:12	5분	"POST 코로나 전망과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대표(진매트릭스)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14:12 ~ 14:24	12분	제품 시연(제품별 3분 이내)
14:24 ~ 14:58	34분	성과 공유,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등
14:58 ~ 15:00	2분	마무리 말씀

## 참고 2

## 참석 중소벤처기업 현황

### 1. (주)맥아이씨에스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 □ 기업 개요

- 대표 : 김종철 ('98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97억원), 고용(65명)
- 지원현황 : 산학연 R&D, 기술혁신 R&D 등 (총 4회, 9.9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국내 유일한 인공호흡기 제조 업체
- 인공호흡기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4.6)
- 미국 77억원 등 외국 정부와 215억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



### 2. (주)웃샘 (음압 캐리어)

#### □ 기업 개요

- 대표 : 이명식 ('08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47억원), 고용(25명)
- 지원현황 : 산학연 R&D (총 2회, 3.4억원)

- 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 국산화 성공
  - \* 기존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119 구급차와 규격이 맞지 않고 조립과 보관이 쉽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
- 지자체, 소방청, 보건소에 약 500여대 공급



### 3. (주)다우코리아 (플라즈마 살균기)

#### □ 기업 개요

- 대표 : 배준형 ('1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27억원), 고용(8명)
- 지원현황 : 공정품질 R&D (0.5억원)

- UV 및 광촉매와 플라즈마를 결합한 살균기 개발
-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포항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119 구급차량 190여대에 설치



#### 4. (주)링크플로우 (Wearable 360° 카메라)

##### □ 기업 개요

- 대표 : 김용국 ('16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13억원), 고용(40명)
- 지원현황 : 창업성장 R&D (1.8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비대면 원격진료를 위한 **Wearable 360° 카메라** 개발
- 중국(우한) 코로나 원격진료를 위해 2만대 공급계약
- 삼성,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200억원 투자유치
- '18년~'20년 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 5. (주)살린 (XR(VR/AR) Social Platform)

##### □ 기업 개요

- 대표 : 김재현 ('14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8.2억원), 고용(19명)
- 지원현황 : TIPS 등 (총 4회 8.3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아시아 최고의 **XR(VR/AR) Social Platform, (EpicLive)** 개발
- \* 사용자는 이 Platform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로 등장**, 서로 **컨텐츠를 공유**하며 놀이와 교육, 업무 등을 수행
- 태국(True)·일본(소프트뱅크)와 **플랫폼라이선스 계약 체결**



#### 6. 테크하임(주) (의료 영상 전송 · 저장 시스템)

##### □ 기업 개요

- 대표 : 이원용 ('0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100억원), 고용(47명)
- 지원현황 : 기술혁신 R&D 등 (총 2회, 3.8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원격진료용 **의료 영상 전송 · 저장 시스템** 개발
- \* CT, MRI등의 영상 이미지-데이터를 저장하여 원거리 판독 전문의 단말기에 전송하여 방사선과 의사가 판독 진단
- 병의원(2,300여개) 및 공공의료기관에 공급,  
**일본·베트남 수출**



## 7. (주)옵토레인 (반도체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 기기)

### □ 기업 개요

- 대표 : 이도영 (12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2.2억원), 고용(82명)
- 지원현황 : 맞춤형 기술파트너 등 (총 2회, 0.5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정확도가 높은 digital PCR방식 분자진단 기기 개발
- 실시간 유전자 증폭방식 진단키트 유럽 인증(CE-IVD)획득
- 총 280억원 벤처캐피탈 등 투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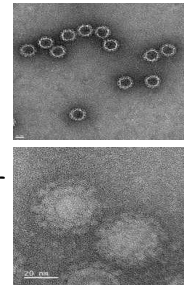
## 8. (주)인테라 (바이러스 백신)

### □ 기업 개요

- 대표 : 최덕영 (16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0.1억원), 고용(8명)
- 지원현황 : 창업성장, 산학연 R&D (3회, 8.4억원)

### □ 주요 R&D 및 성과

- 바이러스 유사입체 (VLP) 기반 백신 신속 개발 기술 보유
- 백신 미개발 바이러스 감염병 대상 차세대 예방 및 치료용 백신의 제품화 R&D 추진 중









## 9. (주)진매트릭스 (전문가 발표)

### □ 기업 개요

- 대표 : 김수욱 (00년 창업),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 기업현황(19년) : 매출액(50억원), 고용(52명), '09년 코스닥 상장
- 주요제품 : 감염진단, 정밀의료 진단 키트 등

### 참고 3

### R&D 제품 시연 계획

순번	제품명	기업명	시연자	시연내용	제품사진
1	감염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	(주)웃샘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용 음압 캐리어 작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li> <li>▶ 음압 작동 및 압력 제거 돌발 상황 시연</li> </ul>	
2	이동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주)맥아이 씨에스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치료용 인공호흡 장비 소개</li> <li>▶ 이동형 인공호흡기 및 호흡 치료기 작동 시연</li> </ul>	
3	코로나-19 디지털 진단기기	옵토 레인(주)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분자 진단장비 가동 → 진단카트리지를 삽입</li> <li>▶ 진단 및 검사결과 확인</li> </ul>	
4	360° 웨어러블 영상촬영 장비	링크 플로우(주)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어러블 카메라 착용 → 360° 영상, 음성 촬영</li> <li>▶ WIFI로 실시간 data 전송</li> </ul>	
5	VR가상 강의실	(주)살린	가정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착용 → 가상강의실 입장</li> <li>▶ VR교육 시뮬레이션 실행 → 실행화면 스크린 공유</li> </ul>	
6	플라즈마 살균기	(주)다우 코리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즈마 살균장비 소개</li> <li>▶ 플라즈마 살균 작동 시연</li> </ul>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8. 소부장 전문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가동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공고

- 작년 말 1차 55개사 선정에 이어 45개사 추가 선정 계획
  - \* 선정된 강소기업은 30여개 사업과 연계해 기업당 최대 182억원 지원 가능
- 접수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7월 중 선정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고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작년 말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이어 이번 공고를 통해 45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강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며, 45개사에 미달할 경우 차년도 선정

강소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R&D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중요성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통해 제시한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과

기술역량, 미래 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 시, AI를 활용한 기술평가 시스템인 KIBOT과 KPAS를 적용해 신청기업들의 역량을 스마트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서면·심층·최종평가 등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각 평가단계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최종평가에는 1차 선정 당시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민평가단이 다시 한 번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평가단은 최종평가 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여개 사업과 연계를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 가능하며,

추가적인 우대방안과 전용사업 등을 마련해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소기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http://cyber.kibo.or.kr))을 통해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7월중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공고문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지역별 강소기업 사업설명회는 향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1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상승했으며 수요 대기업, 해외 바이어의 구매 문의가 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번 2차 공고에도 많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8.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 육성 계획

\*기업 당 사업고도화(2억원)와 고성장을 위한 자금, R&D 등 최대 15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사업'에 총 686개의 스타트업이 신청해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내 제조혁신 역량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30%, AI·IoT 23%, 신소재 22%, 바이오·화장품 14%, 신재생에너지 11% 순으로 집계되어 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참고 1 : 접수유형별 현황>

구 분	계 (20명)	① 수요기술 과제형	② 자율기술 과제형
경쟁률	34 : 1	-	-
인원(명)	686	225	461
비율(%)	100%	33%	67%

\* ① (수요기술형) 대기업이 제시한 기술수요(RFP)와 동일·유사 기술 보유 스타트업

② (자율기술형) 대기업 수요와 관계없이 혁신적인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 참고 2 : 분야별 신청 현황 >

구분	인원(명)	비율
계	686	100%
스마트 엔지니어링	210	30%
AI·IoT	161	23%
신소재	154	22%
바이오·화장품	91	14%
신재생 에너지	70	11%

이번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20개사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선정되는 20개사는 1, 2차 경쟁을 거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한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과 매칭되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 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9.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하는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의 공고를 참조.

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인증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참여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성공 우수사례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우수사례

<p>&lt; (주) R사 &gt;</p>	<p>◇ 수출 : '18년 1,972천불 → '19년 22,148천불(11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가격표시기 전문회사로 '18년 사업에 참여, 32백만원을 지원받아 FCC(미국), JAPAN MIC(일본), CE(유럽) 인증 획득</li> <li>○ 일본 대형 가전양판점에 500만대 계약 체결하는 등 '18년 대비 '19년 수출액이 약 11배 증가</li> </ul>
<p>&lt; (주) I사 &gt;</p>	<p>◇ 수출 : '18년 창업 → '19년 34만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창업한 I사는 소형 의류건조기 제조업체로 18년 사업에 참여하여 14백만원 지원받아 ,CQC(중국), IECEE(국제) 인증 획득</li> <li>○ 창업 다음해인 '19년에 중국, 칠레, 러시아 등에 34만불 직접 수출 성공</li> </ul>
<p>&lt; (주) K사 &gt;</p>	<p>◇ 수출 : '18년 3,841천불 → '19년 7,057천불(2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 운반하역기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K사는 18년 사업에 신청하여 17백만원을 지원받아 CE(유럽), CU(러시아) 인증 획득</li> <li>○ 전체 매출 중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력으로 글로벌에서 인정</li> </ul>
<p>&lt; (주) B사 &gt;</p>	<p>◇ 수출 : '18년 19천불 → '19년 207천불(10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창업한 B사는 스마트 줄자 및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17년 사업에 참여하여 7.6백만원 지원받아 FCC(미국), CE(유럽), JAPAN MIC(일본) 인증 획득</li> <li>○ 인증획득 후 미국,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까지 수출 대상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액이 10배 이상 증가</li> </ul>
<p>&lt; (주) S사 &gt;</p>	<p>◇ 수출 : '18년 16천불 → '19년 702천불(43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생산 유통회사인 S사는 '17년 사업에 신청하여 6.6백만원을 지원받아 중국위생허가 인증 획득</li> <li>○ 중국위생허가 인증획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수출 다각화를 이루어 전년 대비 수출액이 43배 증가</li> </ul>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울산·전남·충북에 추가 설치

-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존 9개에 이어 3개 지역 추가 설치
-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산하여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요람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를 올해 울산, 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사관학교는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이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전북, 경남

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협업과 활용 계획,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먼저, 울산시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대폭 보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 울산시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연계 지원

전남도(순천시)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 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자영업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관학교 입교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심화 교육, 멘토링, 자금, 점포 입점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청주시)는 지역 내 대학 등에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풍부한 청년 자원\*을 예비 소상공인으로 발굴해 충북도·청주시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관학교를 충북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주 지역 전체 인구 84만 중 청년 인구가 30만에 해당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 사관학교를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자원과 역량들을 결집하고 디지털·온라인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1.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 전국 17개 시·도 일반랩 62개, 전문랩 4개 선정, 경쟁률 7:1

\* 일반랩 5년간 최대 5억원, 전문랩 5년간 최대 40억원 지원

□ 디지털콘텐츠(15개소), ICT(8개소), 바이오(3개소)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점 분야 선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혁신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을 66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찾아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19년말 기준 전문랩 8개, 일반랩 115개 등 12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다.

일반랩은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목공장비,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랩은 레이저 커팅기, CNC(컴퓨터 수치제어) 선반 등의 전문 제조 장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491개 기관이 신청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랩 62개와 전문랩 4개\*가 추가 선정됐다.

\* SW, 에너지신산업, 탄소소재, 목공·금속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랩은 5년간 최대 5억원, 지역 내 전문 창작활동의 거점공간인 전문랩은 5년간 최대 40억원의 공간·장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기간은 최대 5년(3+2)이며,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목공·금형·3D 프린터 등의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ICT·바이오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제작 및 AR·VR 제작(콘텐츠 분야), SW와 무선통신 지원(ICT 분야), 각종 압 치료, 치기공, 푸드테크(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 전문기관이 선정됐다.

【분야별 메이커스페이스 선정현황】

구분	제조업	콘텐츠*	ICT	바이오	계
전문랩	3(75%)	-	1(25%)	-	4
일반랩	37(60%)	15(24%)	7(11%)	3(5%)	62
합계	40(62%)	15(23%)	8(11%)	3(4%)	66

\* 애니메이션, 미디어, AR·VR 등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디지털공예

중기부는 “현재 제조업 기반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코로나 19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등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1

## 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기관 현황 (총 66개)

지역	분야	기관명	특징
서울 (8)	제조업	(주)픽스텍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덕성여자대학교	재봉틀을 활용한 가죽 제품 만들기
	콘텐츠	(주)축	3D모델링 리소스를 활용한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특화
		(주)그래피직스	캐릭터, 오토마타, 일렉트로닉 토이 등의 콘텐츠 특화
		광운대학교	VR/AR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영상 제작
		삼육대학교	드론과 확장현실(XR)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성동구립도서관	가죽과 수공수를 활용한 DIY 제작
동양미래대학교	미디어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경기 (13)	제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물, 목재 소재 가공 및 미디어 교육 장비 활용
		청강문화산업대학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중앙대학교	잉여농산물, 부산물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목공과 디지털장비를 결합하여 창작활동 지원
		(주)에코메이커스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 맞춤 환경개선 및 신체보조기구 제작 지원
		용인송담대학교	드론 제작 및 드론 조종 교육 특화
	콘텐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기기 장비를 활용한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원예술대학교	3D프린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모델링
		(주)유니크 마이스터	가구와 CNC&3D프린터의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공예 제작
	ICT	(주)이손소프트	3D모델 자동 검증 및 복원 소프트웨어 개발 특화
		(주)제이알코딩연구소	페어링 없이 IoT사물 제어 무선통신 인프라 제공
	바이오	국립암센터	신체 측정 및 측정기기를 통한 암 관련 제품 상용화
인천 (4)	제조업	한국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3D프린터를 활용한 프라모델 및 4WD 제작 전문
		(주)로보메카	3D프린터를 활용한 하드웨어 개발 지원
	ICT	(주)디엠비	3D모델링 활용 상태 실시간 확인 프로그램 및 컨설팅
		연세대학교(전문)	SW 분야(IoT, VR, 인공지능 등)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부산 (6)	제조업	(주)공공플랜	나무 소재를 활용한 조립형 굿즈 및 생활용품 제작
		(사)부산벤처기업협회	소재·부품·가공·연마 등 제조특화 가공 컨설팅
		동서대학교	3D프린터 후가공·도색 특화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전자관련 하드웨어 전문
	(주)팸몬스터(전문)	성형품(목공, 금속 등) 분야 메이커 스페이스	
콘텐츠	코나	북 바인딩 손 공구를 활용한 나만의 책 만들기	
경남	제조업	한국폴리텍 7대학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역	분야	기관명	특징
(6)	콘텐츠	(주)엘앤씨	저관수 수직농법을 통한 수경재배시설 및 재배기 제작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3D프린터 레이저 컷을 이용한 디자인 모델 가공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피머신 관리 및 카페메뉴 개발
광주 (2)	제조업	인제대학교	Inventor 의료용 부품 및 치과공구 설계 특화
		코끼리협동조합	금속/도자기 공예 분야 크리에이터 육성
전남 (4)	제조업	한국공기안전원	공기(Air)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메이커 활동 지원
		(주)공장공장	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공, 제작, 철거, 가드닝 등
전북 (3)	제조업	(사)한들청소년센터	가죽공예, 손바느질, 캘리공예, 재봉틀 등을 활용한 DIY
		동신대학교(전문)	에너지신산업(EES, LoE 등)의 제조 창업 지원
전북 (3)	제조업	지리산씨 협동조합	온도, 습도, 관수 등 농업분야 스마트팜 구축
		옷칠목공체험 관광협동조합	원목 가공 및 전통 옷칠마감 기술 특화
		전주기전대학	가구 목공예 특화
대구 (3)	제조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문)	탄소·융복합 소재 기반의 메이커 확산 지원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작활동 지원
		콘텐츠 (주)이엘디지털랩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활용한 웹 기반 일러스트레이터 특화
경북 (4)	제조업	에스아이오티 주식회사	AI, IoT, 기반 제품모델링 중심 시제품 개발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문화 활동 지원
	콘텐츠	경북전문대학교	성형품(목공, 3D모델링 등)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컨텐츠(영상 등) 분야의 교육용 3D 프린터 활용
울산 (2)	제조업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VR 콘텐츠 제작 장비, 3D 프린터, 1인 방송, 로봇 코딩
		오토바이진흥연구원	오토바이 전용(점검, 제작, 수리 등) 특화
대전 (2)	제조업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HW(PCB)+SW(기능)의 기능 상품화 시제품 제작 지원
		유한책임회사 팍디노	3D프린터 및 CNC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세종	제조업	(주)박기태	목공 장비를 활용한 DIY 제품 제작
		콘텐츠 (사)사회적공유연구원	IoT기반 스마트 목공(도시재생, 스마트시티)제품 생산
충남 (3)	제조업	순천향대학교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주)살림	목재를 활용한 전통가구 제작 특화
		충남메이커 협동조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충북 (2)	제조업	업사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	폐기물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특화
		바이오	건국대학교
강원 (3)	제조업	한라대학교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제조 중심
		메이커월드 주식회사	RC카 메이커톤 교육, 1인 메이커 미디어 육성
	콘텐츠	(주)메이커스나래	3D 동화책 콘텐츠, AI 창작동화 체험존 구성
제주	제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니 전기차(RC카) 제작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2. 국내 소셜벤처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 및 소셜벤처 현장 간담회 개최

- 국내 소셜벤처는 1,000여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
-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43.1%를 차지하고,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가 79.1%로 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 고용 분석결과 여성 고용 비율(49.4%)이 높으며, 38%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6일 성동구 소재의 헤이그라운드에서 소셜벤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온·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는 2019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님

#### '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들을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을 발굴한 뒤, 소셜벤처로 판별된 998개사 중 설문에 응답한 77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성,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1월에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추출】** ①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 발굴 → ②소셜벤처 여부 판별 → ③소셜벤처 실태조사

① 발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3,117개사 추천  
 \* 중기부(기보, KVIC, 창경센터) 704개사, 지자체(서울시, 성동구청) 447개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34개사, 민간(대기업, 임팩트VC 등) 432개사 등

② 판별 : '19.1월에 마련한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998개사

③ 실태조사 : 998개사 중 771개사가 응답

◇ **【분석대상】** 소셜벤처로 판별되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771개사 대상

◇ **【조사기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 입소스(리서치업체)

◇ **【조사기간】** '19. 9월 ~ 12월(3개월)

① 국내 소셜벤처 기업수는 998개사이며, '16년말 601개사에서 급속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말
업체수	601개	724개	853개	998개

② 대표자가 20~30대인 기업이 43.1%,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79.1%를 차지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연령>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비율	15.0%	28.1%	28.6%	22.0%	6.3%	42.3세

<소셜벤처 업력>

업력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초과	업력 평균
업체수	130개	227개	146개	107개	161개	4.5년
비율	16.9%	29.4%	18.9%	13.9%	20.9%	

③ 최근 3년간 3,54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으며, 여성 고용 비율(49.4%)과 취약계층 고용 비율(38%)이 높게 나타나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기업 771개사에서 8,860명을 고용(평균 11.6명)하고 있으며, 신규창업 등으로 최근 3년간 3,54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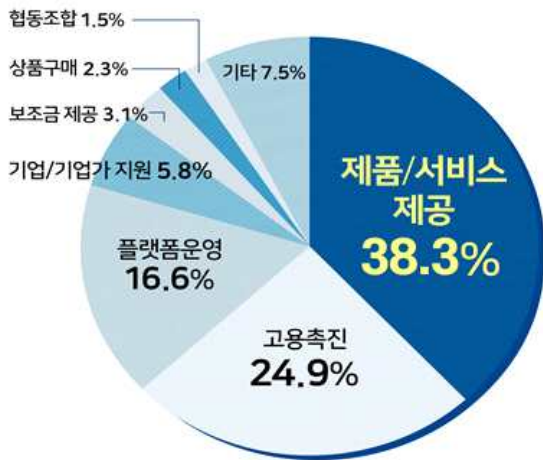
특히, 여성고용 비율이 49.4%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59명을 고용(8,860명 대비 38%)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771개사 기준)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총합
399개 (51.8%)	2,115명 (평균 2.7명)	549명 (평균 0.7명)	695명 (평균 0.9명)	3,359명 (평균 4.4명)

④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제공’ (38.3%) , ‘취약계층 고용촉진’ (24.9%), ‘취약계층을 위한 플랫폼 운영’ (16.6%)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생산·제공
고용 촉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직업훈련 서비스 등 제공
플랫폼 운영	취약계층 판매자-소비자 연결 플랫폼 운영(직접매입 없음)
상품 구매	취약계층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시장 제공(직접매입 있음)
기업/기업가 지원	사회적기업/기업가의 경영활동 지원
보조금 제공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환원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전용서비스/혜택 제공(자조활동)

⑤ 아울러, 기술기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으며, R&D 조직·인력 보유비율 51.4%,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율 65.9% 등 기술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등 제조업 중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중 15개 업종 (OECD 및 EU 지식기반산업 분류 재구성)

## 소셜벤처 간담회 주요내용

중기부는 소셜벤처 간담회에서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의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18.5) 발표 이후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왔으며,

- \* 주요내용 : ① 소셜벤처 판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 기반 조성 ② 소셜벤처의 창업지원과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③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금융 확대, 소셜벤처 Hub 구축, 국내외 판로,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소셜벤처 전용 창업·R&D 사업을 마련하고, 임팩트 금융을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의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벤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허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소셜벤처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인 임팩트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정윤모 이사장은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소셜벤처 전국 지도와 온라인평가를 하는 시스템인 소셜벤처 스쿼어\*를 설명하면서 소셜벤처 관계자들에게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 \* 소셜벤처스쿼어(sv.kibo.or.kr) : 소셜벤처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평가관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맵 등 정보 제공

간담회에서는 소셜벤처 기업인\*과 투자와 멘토링 등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참여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 \* 짜각악어(주) 김희정 대표, (주)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 (주)소리를보는통로 윤지현 대표, 수퍼빈(주) 김정빈 대표, (주)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

- \*\*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

특히 이날 간담회의 모든 내용은 소셜벤처인 (주)소리를보는통로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과 온라인에 송출돼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셜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셜벤처 인식개선, 소셜임팩트 투자·보증제도 신설 등 성장자금 공급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기 진작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소셜벤처 실태조사는 충분한 표본을 바탕으로 실시한 최초의 조사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혁신적인 기술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 정부 최초의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소셜벤처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일시·장소 : 5.6(수) 14:30~16:00,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7층, 10층

□ 참석자 : 중기부장관, 기보 이사장, 소셜벤처 대표(7명) 등 10명 내외

\* 소셜벤처 : 째각악어(주), (주)트리플래닛, (주)소리를보는통로, 수퍼빈(주), (주)마린이노베이션  
 중간지원조직 :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루트임팩트

□ 주요 행사내용 ※ 행사전체 언론 공개, 간담회 온라인 생중계(K-TV 및 중기부 유튜브)

- (주)째각악어, 헤이그라운드 투어(20')

※ 째각악어(대표 김희정, '16.9월 창업, 소셜벤처)

- 모바일 앱을 통해 아이돌봄 교사와 육아가정을 매칭하는 서비스 제공(보육문제 해결)
- 재이용률 93%, 국내 아이돌봄 업계 시장점유율 1위, '20.3월 63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 코로나19 이후 '20.2월 신규돌봄 신청 전월대비 250% 상승

※ 헤이그라운드 : 루트임팩트에서 운영하는 코워킹 커뮤니티 (소셜벤처 공간 등 업무환경지원)

- 루트임팩트 (대표 허재형, '12.7월 창업) :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 운영

- 실태조사 결과, 정책방향 공유(10') 및 소셜벤처 간담회(50')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50	20' ■ 소셜벤처 기업 및 헤이그라운드 투어 (7층~10층)	중기부 장관
14:50~14:55	5' ■ 모두말씀	중기부 장관
14:55~15:00	5' ■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및 소셜벤처 정책방향	벤처혁신정책관
15:00~15:05	5' ■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지원현황	기술보증기금
15:05~15:55	50' ■ 소셜벤처 현황, 건의사항 등 청취 -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온라인 참여자	
15:55~16:00	5' ■ 마무리말씀	중기부 장관

※ 사회자 :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 (스웨덴경제사절단 소셜벤처 방문팀 참석)

〈조사 개요〉

- ◇ **【의의】**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실시한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정식 실태조사**
- ◇ **【조사대상 추출】** ①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 발굴 → ②소셜벤처 여부 판별 → ③소셜벤처 실태조사
  - ① 발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3,117개사 추천
    - \* 중기부(기보, KVIC, 창경센터) 704개사, 지자체(서울시, 성동구청) 447개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34개사, 민간(대기업, 임팩트VC 등) 432개사 등
  - ② 판별 : '19.1월에 마련한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998개사
  - ③ 실태조사 : 998개사 중 771개사가 응답
- ◇ **【분석대상】** 소셜벤처로 판별되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771개사 대상
- ◇ **【조사기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 입소스(리서치업체)
- ◇ **【조사기간】** '19. 9월 ~ 12월(3개월)

1. 소셜벤처 기업수

□ (기업수) 전국에 **소셜벤처로 확인된 기업은 총 998개**

○ 업체수는 '16년 601개사에서 '19년 8월 998개사로 급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말
업체수	601개	724개	853개	998개



## 2. 소셜벤처 일반현황

① (대표자 연령) 20~30대 대표자가 43.1%로 청년 비중이 높음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비율	15.0%	28.1%	28.6%	22.0%	6.3%	42.3세

② (대표자 학력) 대표자의 77.3%는 학사 이상이고 그중 29.4%는 석박사임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대표자학력	7.7%	21.7%	47.9%	10.5%	12.2%

③ (소재지) 소셜벤처의 54.4%가 수도권에 소재

구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비율	54.4%	18.0%	11.6%	11.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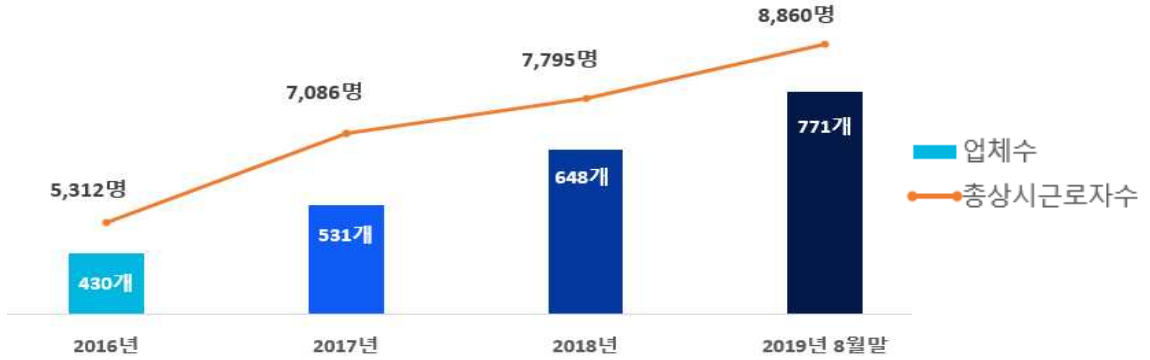
④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비중은 79.1%이고, 그중 3년 이내 창업 기업이 46.3%에 달하는 등 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업력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초과	업력 평균
업체수	130개	227개	146개	107개	161개	4.5년
비율	16.9%	29.4%	18.9%	13.9%	20.9%	

### 3. 고용현황

□ (고용) 771개社에서 8,860명 고용, 평균 11.6명(19.8 기준, 무응답 제외)

○ 신규창업 등으로 **최근 3년간 3,548명의 고용창출**



○ 30대 이하 근로자가 45.1%로 **청년 채용 활발**

구 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비율	18.1%	27.0%	19.3%	35.2%	0.4%

○ 여성고용 비율이 49.4%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

<소셜벤처>

<일반기업>



○ 771개社 중 399개사(51.8%)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59명을 고용 (8,860명 대비 38%) →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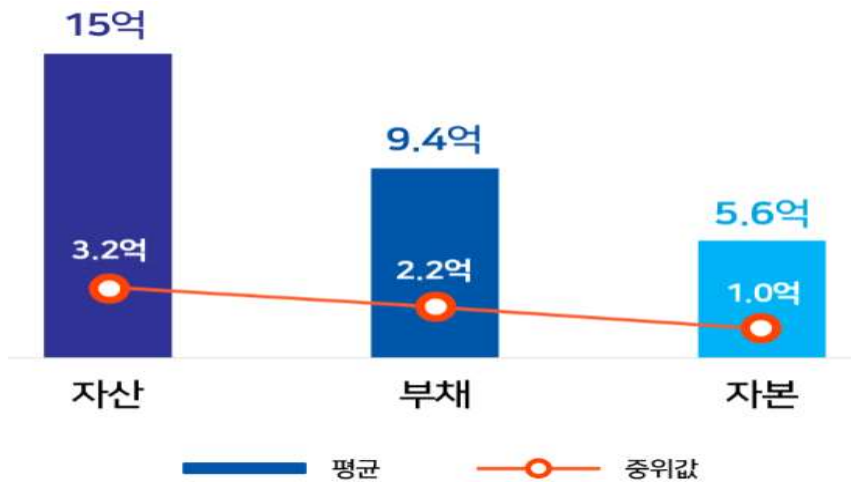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771개社 기준)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총합
399개(51.8%)	2,115명 (평균 2.7명)	549명 (평균 0.7명)	695명 (평균 0.9명)	3,359명 (평균 4.4명)

## 4. 재무현황

### ① (매출) '18년 평균 매출액은 1,659백만원

\* 3개년 매출 추이 : ('16) 401개, 6,625억원(평균 1,652백만원)→ ('17) 496개, 8,399억원  
(평균 1,693백만원)→ ('18) 590개, 9,791억원(평균 1,659백만원)

### ② (재무구조) '18년 평균 자산은 15억원, 부채는 9.4억원



- 평균 영업이익은 2백만원이며 54.2%가 영업이익을 실현 중 ('19년 설립기업·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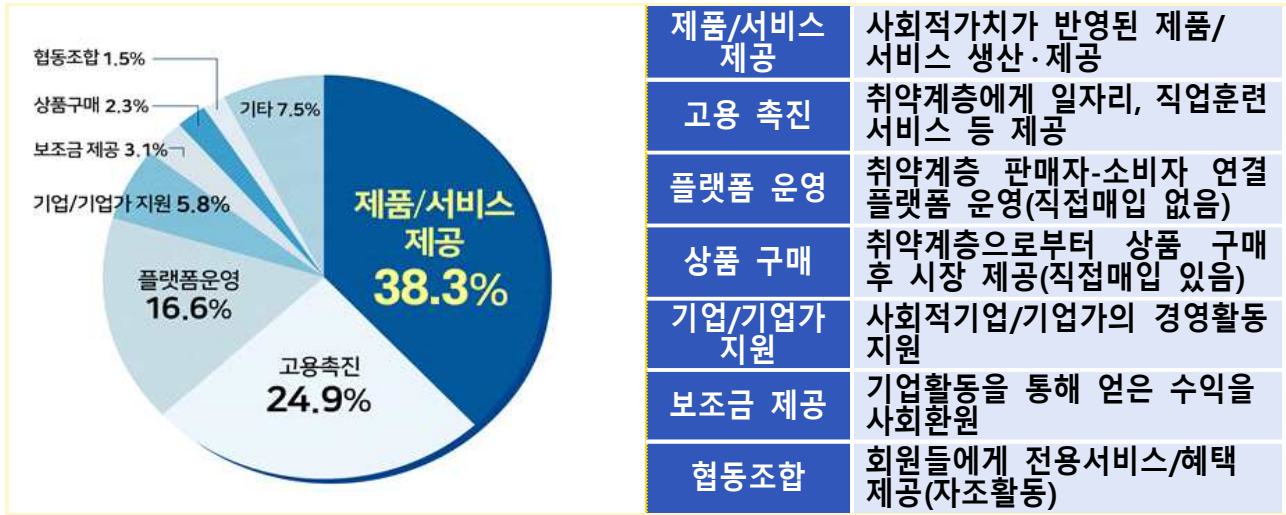
### ③ (자금조달) 일반적으로는 자체자금, 정부보조금, 민간은행, 정책융자·보증 순으로 자금을 고루 이용 (기업수 기준)

< '18.1.1~'18.12.31 중 자금조달 현황('19년 창업기업 제외, 2개 중복응답) >

구분	자체자금	정부 보조금	은행 등 금 용기관	정책 융자· 보증	임팩트 투자	기타
기업수 (평균금액)	293개사 (200백만원)	284개사 (115백만원)	226개사 (321백만원)	217개사 (309백만원)	60개사 (612백만원)	25개사 (303백만원)

## 5. 비즈니스모델 및 유형

① (비즈니스 모델·유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서비스 제공형’이 38.3%로 1위이며, 취약계층 ‘고용촉진’이 24.9%로 2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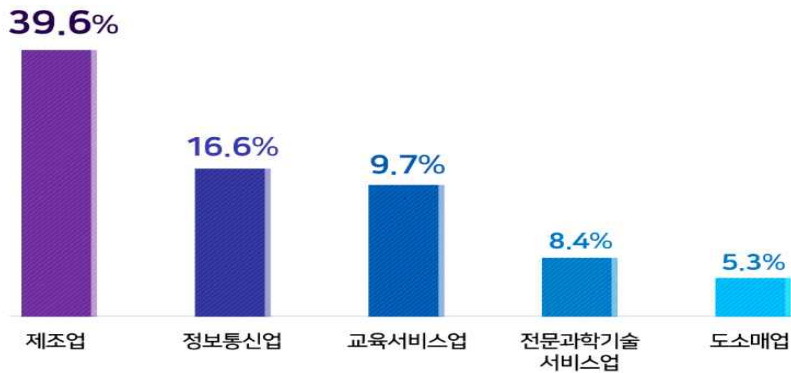


\*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유형 : 관련 해외연구 결과(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 : A Design Approach to Hybridity, 2012, Wolfgang Grassl)를 기반으로 번역 및 재가공

② (업종) **기술기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으며,

\* 기술기반업종(창진원) : 제조업 中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中 15개 업종 (OECD 및 EU의 지식기반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재구성)

○ 소셜벤처 상위 5순위 업종은 제조업(39.6%), 정보통신업(16.6%), 교육서비스업(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4%), 도소매업(5.3%)순



③ (관심있는 사회문제 분야) 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실업·일자리, 환경, 교육 분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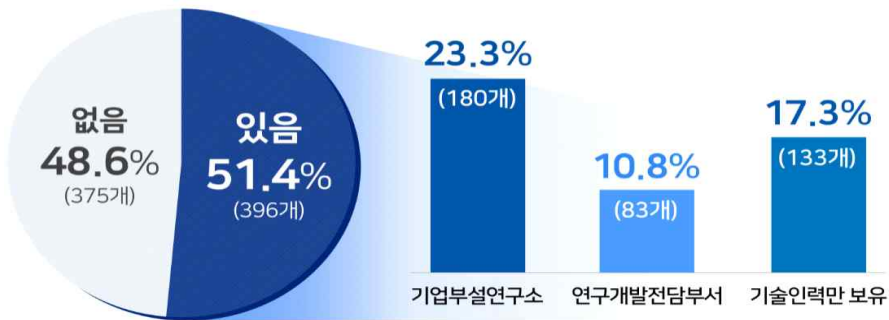
관심있는 사회문제	취약계층/장애인	청년/여성/노인/아동	실업/일자리	환경/생태	교육/보육	에너지/자원/재활용	기타
비중	18.1%	14.6%	13.4%	7.9%	6.4%	5.3%	34.3%

## 6. 기술혁신성

① (R&D조직) R&D조직·인력 보유비율은 51.4%

< R&D조직·인력 보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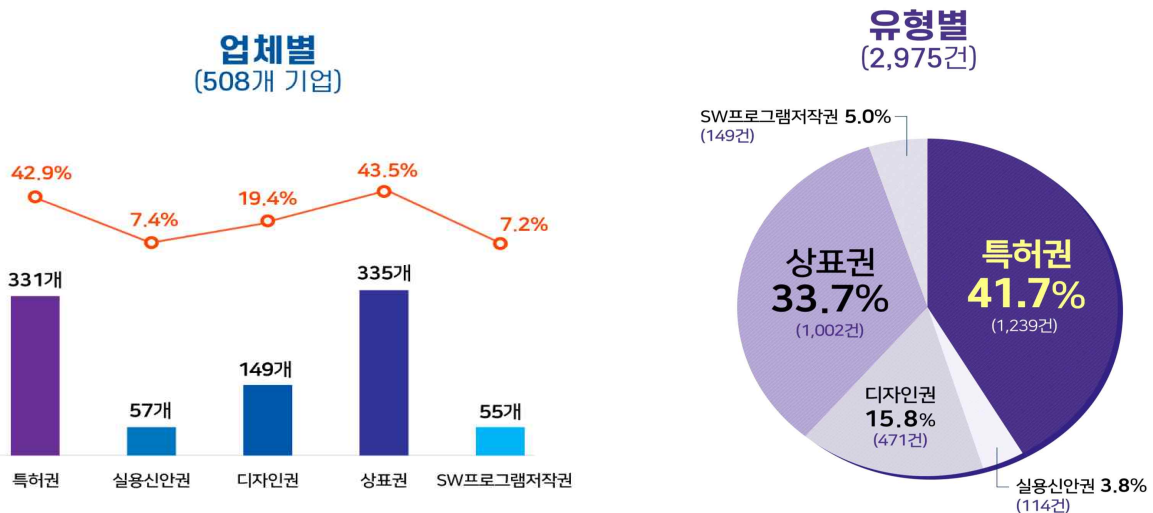
구 분	없음	있음	구 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인력
연구개발 조직보유	48.6% (375개)	51.4% (396개)	23.3% (180개)	10.8% (83개)	17.3% (133개)



② (지식재산권) 전체 소셜벤처 중 508개 기업(65.9%)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은 3.9건

< 지식재산권(4대 산업재산권+SW저작권) 보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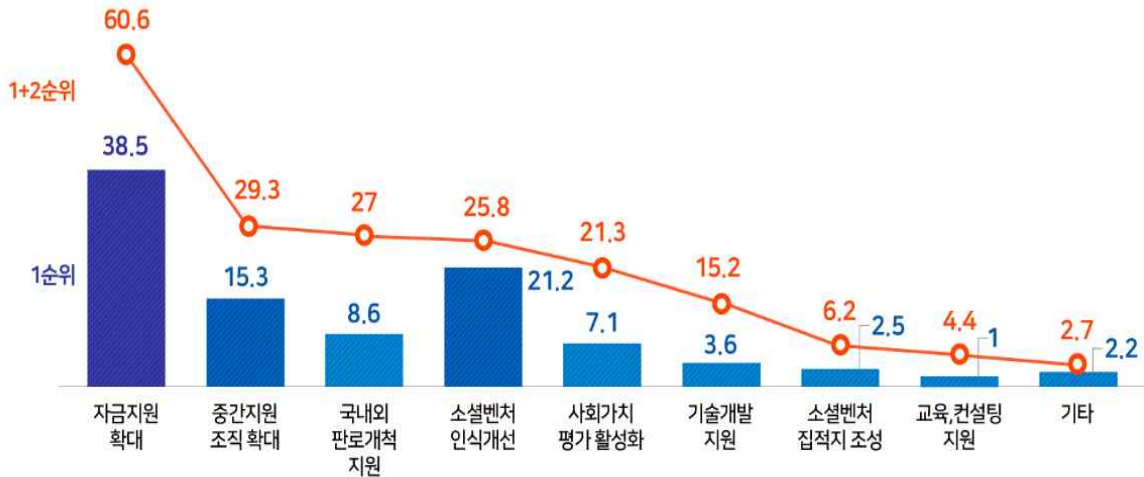
구 분	평균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SW프로그램 저작권
보유수	3.9건	1.6건	0.2건	0.6건	1.3건	0.2건



## 7. 애로사항 · 정책수요

- ① (개선사항) 소셜벤처 업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자금조달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간지원조직\* 확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소셜벤처 인식개선 등 지적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소셜벤처 BI 운영기관(헤이그라운드 등) 등



- ② (사회성과 평가 필요) 특히 은행 대출시 경제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응답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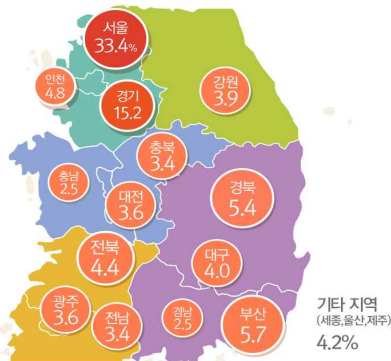


※ 본 조사와 관련한 요약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SOCIAL VEN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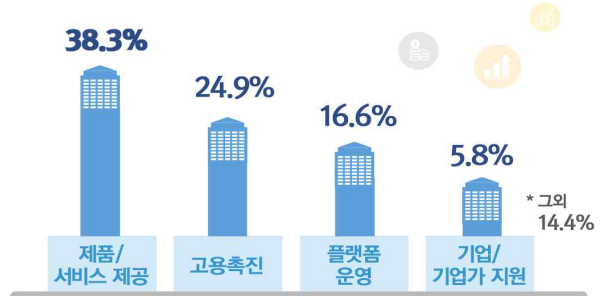
[ 지역 분포 ]

분석 기업 77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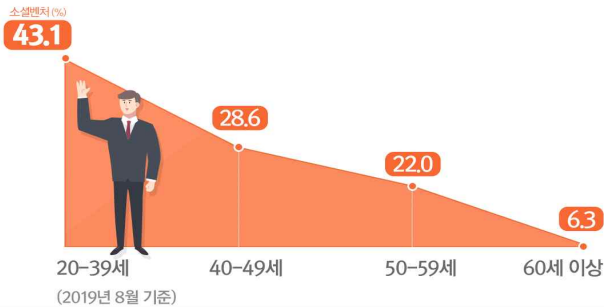
[ 소셜벤처 분야 ]

비즈니스 모델/유형



[ 특성 ]

창업기업 79.1% 업력평균 4.5년  
청년 창업(20-30대)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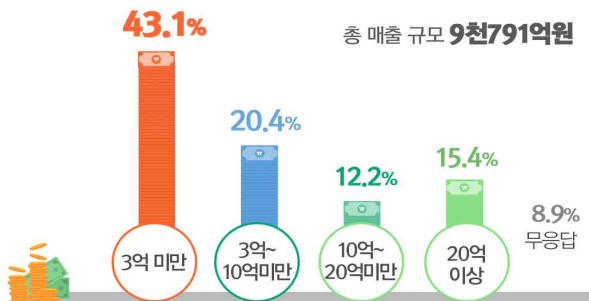
[ 고용 ]

평균 근로자 11.6명  
청년(20-30대) 근로자 45.1%



[ 재무 성과(2018년) ]

평균 매출 1,659백만원, 평균 영업이익 2백만원



[ 기술혁신 역량 ]

기술기반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80.5%  
R&D 조직 인력보유 51.4%



## 붙임4

## 기술기반 창업 업종분류 기준

제조업 부문(중분류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중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C) 10	식료품 제조업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N) 75	사업지원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P) 85	교육 서비스업
(C)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Q) 86	의료 및 보건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
(C) 24	1차금속제조업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3. 안산·서천·진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가 지정

####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3건 등을 포함한 총 7건 의결
- 지정 및 계획변경으로 기초 지자체에 47개 규제 특례와 총 5,891억원 투자가 이뤄져 지역소득 및 고용 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9명 등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제12조)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

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숲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 (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숲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숲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전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 (완도 해조류·전북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지역특구과 박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4. (계획변경)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전복산업특구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목 적	완도는 국내 최대의 전복(80%)·해조류(32%)생산지로서 향토산업을 고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09년과 '10년 지정한 특구를 통합 변경 * 생산유발효과 2,324억원, 소득유발효과 196억원, 고용유발효과 989명		
개 요	○(기간) '09~'22년 ○(면적) 4,418만㎡	○(기간) '10~'22년 ○(면적) 14만㎡	○(기간) '20~'23년 ○(면적) 4,432만㎡
특 화 사업	○ 3개 사업, 228억원 (국 105, 지 85, 민 38)	○ 2개 사업, 936억원 (국 396, 지 315, 민 225)	○ 5개 사업 1,290억원 (국 530, 지 515, 민 245)
규 제 특 레	① 국·공유재산 특레 ② 특허법 ③ 지방재정법 ④ 옥외광고물법 ⑤ 식품표시광고법		○ 총 6개 : 농수산물품 질관리법 1개 추가

#### 5. (계획변경)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목 적	죽녹원의 지방정원 등록,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 등을 계기로 기존 인문 학교육 특구에 전통정원을 추가하여 지역특화 문화 및 자원을 연계·발전 * 생산유발효과 1,373억원, 소득유발효과 467억원, 고용유발효과 1,027명	
개 요	○(명칭)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면적) 86만㎡ ○(기간) '16~'20년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118만㎡ ○ '16~'24년
특 화 사업	○ 4개 사업, 235억원 * 인문학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2개, 945억원 (국 393, 지 550, 민 2) * 인문학 및 전통정원 사업으로 재편
규 제 특 레	① 초·중등교육법 ② 도로교통법 ③ 농어촌 정비법 ④ 국·공유재산법 ⑤ 옥외광고물법	○ 총 5개: 신규 3개(도로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해제 3개(③,④,⑤)

#### 6. (계획변경) 증평 에듀팜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목 적	충북 최초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 특구를 <u>교육·체험·힐링·레저가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u> * 생산유발효과 3,332억원, 소득유발효과 857억원, 고용유발효과 2,778명	
개 요	○(사업자) 증평군수 등 ○(면적) 304만㎡ ○(기간) '09~'22	
사 업	○ 15개 사업 1,594억원 투자	○ 26개, 2,679억원 (민자투자 증가)
특 레	옥외광고물법, 국유림관리법, 장사법, 관광단지 지정, 농지법 등 16개	

## 참고2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지정 효과

-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정 현황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 지정 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8개 특구가 지정·운영**

\*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결과 고시(5.8)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5	19	14	38	28	15	3	198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4. 청년 창업가의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상한 기업(13호) 업무협약식

-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카페'를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에 마련  
\* 성수역점,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조선대점(광주), 더해운대R점
-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기부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타벅스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멘토링·투자연계 지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전진 기지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상한 기업(13번째)으로 선정됐다.

\* 자상한 기업 :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7일 성수동 소재의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대표 전창열),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와 '즐거운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5.7(목) 14:00~14:30, 스타벅스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
- [협약참여자] 중기부장관-스타벅스코리아 대표(송호섭)-프리즘 대표(전창열)-엑셀러레이터협회장(이준배)
- [협약내용] (중기부) 스타벅스 창업카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창업 문화 확산 지원 (스타벅스코리아) 창업카페 10개소 지정·운영, 창업프로그램 지원금 기부 (프리즘) 창업카페 활성화를 위한 기획·운영·홍보 등 지원 (엑셀러레이터협회) 창업카페 참여 인재에 대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지원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열세 번째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스타트업 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카페'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창업카페로 지정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점),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이상 서울),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조선대점(광주), 더해운대R점 등 10곳이다.

중기부는 창업카페가 청년들에게 교육,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협약 주체들(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은 청년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민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상생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업카페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소규모 네트워킹 매장을 유연하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까지도 창업카페를 거점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기부금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커피 등의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창업카페에서 진행되는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스타벅스-프리즘-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이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청년 인재에게 스타벅스 본사 및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본고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셋째, 스타벅스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전문 멘토링 과 투자연계를 지원한다.

창업카페를 통해 발굴된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연결해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효과적인 투자연계를 위해 스타벅스 액셀러레이터 스터디그룹 운영과 투자 IR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100명 내외의 재창업 희망자에 대해 별도의 전문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마련·운영하고, 매장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전창열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프리즘도 청년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만들어진 기회만큼 대한민국 청년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회장은 “세계적 기업인 스타벅스 등과 함께 청년 창업문화 조성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촉진 생태계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는 “중기부가 대한민국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지속 개발·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청년 신설법인 수는 지난 해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등장하길 기대한다.”며,

\* 청년 신설법인 : ('17) 26,526 → ('18) 28,442 → ('19) 30,409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나서 준 것에 감사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식 개요**

- (행사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상한 기업(13호)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20. 5. 7(목), 14:00,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
- (참석) 중기부 장관, 송호섭(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전창열(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 대표), 이준배(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회장)
- (진행) 사전환담→개회→인사말씀→MOU체결→기념행사 순

**□ 주요 협약내용****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타벅스를 청년 창업의 전진기지로 제공 (10개소)**

-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연·네트워킹 행사 전용공간으로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2호점)'을 포함한 창업카페 10개소\* 지정
  - \* 전국 대학가(서울 4개소 및 인천·천안·대구·대전·광주·부산 각 1개소), 별도 현판 제작
  - \* 창업프로그램 및 이벤트 강연·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 제공, 글로벌 스타트업과 청년 스타트업들이 비대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추진

**② 청년 예비창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부**

-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2호점)'의 수익금 일부를 스타벅스에서 진행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기부
  - \* 스타벅스, 프리즘, 엑셀러레이터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청년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발굴·운영

**③ 청년 예비창업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이 시애틀(스타벅스 본사) 등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본고장을 견학 하고, 현지 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④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 지원**

- 창업카페 참여 청년들에게 엑셀러레이터의 전문 멘토링 및 투자연계 지원
  - \* 청년인재 발굴 → 전문 멘토링 → 가능성 있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투자연계

**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매장 체험 등 지원 (연간 100명 내외)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틱스(TIPS) 운영사 모집

#### 2020년 틱스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 액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신규 운영사 10개 내외 추가모집
-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겨냥한 운영사 중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29일(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틱스 운영사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틱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R&D자금, 사업화자금, 해외마케팅비용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이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운영사는 1억원 내외의 엔젤투자를 통해 유망창업팀을 선별·보육해 틱스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틱스는 2013년 도입 이후 총 934개 창업팀을 육성했고, 국·내외 민간 투자를 총 26,323억원 유치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도출했으며 그 중 IPO 2개팀, M&A 17개팀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 4월 2일 포브스가 발표한 '2020년 아시아 30세 이하 300인의 리더'에 포함된 한국 스타트업 CEO 21명 중 7명이 틱스 지원을 받은 바 있다.(참고1)

또한,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키트를 개발한 휴벳바이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썸, 온라인 재택근무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 중인 콜라비팀 등 코로나19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팁스 지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성과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등 코로나 이후에 변화할 환경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팁스 운영방향도 개편한다.

이에 신규 운영사 선정 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투자전략,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전략적 투자·보육 역량을 중점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기관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운영사가 제출한 계획은 향후 상시점검·중간점검·최종점검 등 운영사 평가 시에 활용된다.

‘2020년도 팁스 신규 운영사 선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사, 초기전문VC, 선도벤처 등)
- **(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수) ~ 2020년 6월 5일(금) 18:00까지
- **(평가요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비전·전략 및 전문성**, 창업팀에 대한 엔젤투자재원 및 보육역량, 글로벌진출 지원역량, 보육공간 보유여부 등
- **(선정절차)** 우편·현장 접수 → 서면·현장·대면평가(6~7월) → 선정(8월 중)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은 팁스 홈페이지 또는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82, 7429, 7423

## 참고 1 포브스 선정 CEO리더 중 틱스 지원을 받은 기업

### □ 집토스



대표자	이재윤	설립일 / 틱스 선정 시기	2016.3.29 / 2018.10
사업내용	· 집토스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서비스 및 오프라인 직영 중개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며, 방을 구하는 1~2인 가구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방을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주요성과	매출 ('18) 약 2.6억원 후속투자 국내 약 20억 원 투자유치 고용창출 ('18) 37명 (8명 → 45명) 논문 및 특허 상표 국내등록 3건		

### □ 브이픽스메디칼



대표자	황경민	설립일 / 틱스 선정 시기	2016.12.1 / 2017.11
사업내용	· 공초점 현미경법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살아있는 세포 영상을 위한 초소형 형광 현미경 개발 등 실험실 용 이미징 장비를 개발하여 국내 연구기관에 판매		
주요성과	논문 및 특허 기술실시 계약 완료 국내 특허 2건 고용창출 ('18) 6명 (3명 → 9명)		

### □ 매스프레소



대표자	이종훈, 이용재	설립일 / 틱스 선정 시기	2015.6.22 / 2016.8
사업내용	· 명문대 선생님과의 질문답변(유료) 및 기존에 쌓인 DB를 OCR로 검색하여 보여주는 풀이검색(무료) 서비스를 제공		
주요성과	매출 ('16) 약 0.4억원 → ('18) 약 2.7억원 고용창출 ('18) 19명 (5명 → 24명) 투자 국내 약 300억원, 국외 약 150억원 투자유치 기타 서비스 쿼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앱스토어 교육부문 1위('19)		

### □ 폴라리언트



대표자	장혁	설립일 / 틱스 선정 시기	2015.5.7 / 2016.10
사업내용	· 관광기반 PLS 기술을 사용한 위치 트래킹 제품 판매 및 기술 라이선싱		
주요성과	매출 ('18) 약 0.3억원 논문 및 특허 미국등록 3건, 국내등록 3건, 일본등록 1건 및 출원 1건, 중국 출원 2건 고용창출 5명(3명 → 8명) 후속투자 국내 약 21억원(M&A포함), 국외 약 1억원 투자유치 기타 SOCAR M&A		

□ 스타스테크



대표자	양승찬	설립일 / 팁스 선정 시기	2017.11.30 / 2018.3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가사리 추출성분을 통해 기존 제설제의 문제점인 염화이온을 흡착하고, 불가사리 추출성분과 부식방지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식억제효율을 50배 가량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혁신적인 친환경 제설제 등 개발·판매</li> </ul>		
주요성과	<b>고용창출</b> 7명 (6명 → 13명) <b>매출</b> ('18) 약 6억원 <b>논문 및 특허</b> (특허) 국내 출원 2건 <b>투자</b> 국내 약 21억원 투자유치 <b>기타</b> 도전! K-스타트업 2017 국방부장관상, 2017 대한민국 기업대상 친환경 大賞, 2017 결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외의 보도기사 다수		

□ 에이비일팔공



대표자	남성필	설립일 / 팁스 선정 시기	2015.11.4 / 2016.4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딥링크와 앱 인덱싱 기술을 활용하여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앱 내에 콘텐츠를 검색하고, 미리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검색엔진을 구축</li> </ul>		
주요성과	<b>고용창출</b> 29명 (8명 → 37명) <b>매출</b> ('18) 약 24억원 <b>논문 및 특허</b> (특허) 국내출원 2건 <b>후속투자</b> 국내 약 23억원 투자유치 <b>기타</b> 상표 및 디자인 등록 2건		

□ 팜스킨



대표자	곽태일	설립일 / 팁스 선정 시기	2017.3.23 / 2018.3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자원화 되고 있지 않는 초유를 자원화 하기 위해 팜스킨만의 초유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li> <li>화장품 원료에 특화된 초유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산 초유를 활용한 기초 화장품 라인업 구축</li> </ul>		
주요성과	<b>매출</b> ('18) 약 3.6억원 <b>후속투자</b> 국내 약 50억 원 투자유치 <b>고용창출</b> 2명 (8명 → 10명) <b>논문 및 특허</b> (특허) 국내출원 5건 PCT 출원 2건 <b>기타</b> 농림부장관상 3점 / 교육부장관상 2점 수상		

## 참고 2 틱스 (TIPS) 설명자료

- 개요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목적) 성공벤처인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 (지원내용) TIPS 운영사가 고급기술 창업팀에 先투자(1~2억원 내외)·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최대 7억원)
    - \* 민간 엔젤투자(1~2억원) + 정부 매칭지원(R&D 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 추가연계(엔젤투자매칭펀드 2억원) + 후속지원(최대 5억원)
- 추진실적 ('20.4월 기준)
  - 성공벤처인 주도의 엔젤투자회사, 선도벤처 등 53개 운영사\* 선정
    - \* 엔젤투자회사 19개, 초기전문VC 16개, 선도벤처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글로벌투자보육기관 3개
  - 창업팀 934개, 엔젤투자 1,985억원 (팀당 평균 2억원)에 매칭 방식, R&D 4,108억원, 창업사업화 455억원, 해외마케팅 368억원 지원
- 주요성과
  - (고급기술인력 창업) 전체 창업자(2,752명) 중 석·박사 58% (1,605명), 국·내외 대기업\* 출신 30% (817명), 전문직 10% (282명)
    - \* 삼성 314명, 애플·구글 18명, 네이버·다음 81명, LG 139명, SK 76명, 인텔·MS 23명 등
  - (고용 효과) 사업지원 후 전체 신규 채용은 3,687명\*, 기업 당 5.5명
    - \* (조사 기준) '13년~'18년 선정기업, 665개사 / (선정당시) 4,387명, ('18년말) 8,074명
  - (민간투자 유치) 국·내외 민간투자 총 26,323억원 (엔젤투자 1,985억원+ 후속투자 24,338억원) 유치,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투자 유치 5.3배
    - 이 중 52개팀이 글로벌 VC 등으로부터 약 15,873만 달러 해외투자 유치
  - (EXIT) IPO(기업공개) 2개 창업팀 및 M&A 17개 창업팀
    - \* (IPO) 티앤알바이오팜('18년 코스닥), 지놈앤컴퍼니('18년 코넥스)
    - (M&A) 키즈노트('14), 엔트리교육연구소('15), 파킹스퀘어('16), 드라마앤컴퍼니('17), 튜터링('18), 레드스톤소프트('18), 시리우스('18), 옴텔라('18), 플라리언트('19), 유스필('19), 더널리('19), 라프텔('19), 수아랩('19), 스페클립스('19), 텍스트팩토리('19), 바이시큐('19), 비닷두('20)

선행 엔젤투자		후속 투자								총 민간투자 (선행+후속)		
		전체		M&A		해외투자		국내투자 (M&A 제외)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만달러,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평균 (억원)
934	1,985	398	24,338	17	3,636	54	15,873 (1,905)	381	18,797	934	26,323	28.1

# 2020년 팁스 (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2020년 팁스 (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팁스(TIPS) \*”는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이 주도하는 민간의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 사업내용

- 액셀러레이터\* 역량을 보유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 \*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회사 및 비영리법인

팁스(TIPS) 운영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재단), 초기전문 VC,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창업팀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li> <li>② 창업팀 추천 (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li> <li>③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 엔젤투자 (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li> <li>④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li> <li>⑤ 창업팀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M&amp;A, IPO, 글로벌 진출 등)</li> </ol> </li> </ul>

## 2. 지원 개요

□ 선정 규모 : 10개 내외

\* 신청기관들의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① 실적에 따른 운영사별 5~10개 내외 (1년 단위) 창업팀 추천권 부여

②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 운영기간 : 6년 (3년 + 3년)

\* 3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나, 매년 실적점검을 통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예비) 창업팀의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첨단·전문기술 기반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2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
  - ② 동일사업의 법인 전환이나 재창업 등의 경우는 별도 인정 (운영지침 참조)
  - ③ 운영사 투자 후 기준 창업팀 지분 60% 이상, 운영사 지분 30% 이하

## 3. 신청자격

### 1. 운영사 (컨소시엄 주관사)

□ 엔젤투자재원, 창업팀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8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한함

-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액셀러레이터 등록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평가를 통해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어도, 액셀러레이터 등록 완료 시까지 운영사 활동을 잠정보류

\* (접수 및 문의처)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액셀러레이터 담당 042-481-4488

- ① 엔젤투자회사 또는 엔젤투자재단
-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 ③ 선도벤처 및 중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등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 □ 구비요건

- ① 창업성공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팀 지원전문가 등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 (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 ② 창업팀에 대한 엔젤투자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 ③ 창업팀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 (최대 2개, 주 보육공간 지정은 필수)
  -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창업팀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 (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향후 틱스타운도 활용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 이상이며,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 가능)
- ④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해외법인기관(투자·보육 등) 참여
  - \* 다만, 주간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 우대사항

- ① 운영사(주간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 \*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소재하여야 하며(20년 신규 사업자는 예외),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 기준으로 인정
-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 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
- ③ 주간사가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인 경우
  - 아이디어 개발, 창업팀원 구성, 법인설립, 초기 사업화 과정까지의 쏠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창업팀을 발굴·투자·육성하는 플랫폼(또는 프로그램)을 구축·운영(실적 필수)하는 경우 적용

- ④ 컨소시엄 내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주간사가 기업형(선도벤처 및 중견기업 등)인 경우만 해당)

\* 주간사가 보유한 기술 또는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과의 공동개발, 판로지원 등 실질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체계를 구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적용

- ① 창업팀과의 공동개발 및 판로지원 등 지원프로그램 실적을 보유
- ② 주간사 내 초기기업 투자 및 상기 ①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주간사(관계사 포함)의 인프라를 직접 투입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 ⑤ 전문투자분야가 바이오, AI/빅데이터 등 중소기업 4IR 분야\* (첨부4 참고) 또는 핀테크 분야 또는 제조업인 경우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상기 기준분야에 최근 3년간 해당 투자실적 (금액 또는 피투자기업수)이 50%이상이며 3건 이상인 경우 적용
- 또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관련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사업계획서 내 향후 투자계획을 기재한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추가 우대 적용

- <제조업종 범위>**
- (정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공장·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종
  -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제조업, 10~34)"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대상) ① 정의에 해당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② 정의에 해당되는 활동을 위탁하여 수행 시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경우

\* 상기 우대사항 중 가점은 ①은 3점, ②, ③, ④, ⑤는 각 1점씩 부여 (단, ⑤의 경우 추가우대 적용 시 2점 부여)

## 2. 협력기관 (컨소시엄 참여)

- 창업팀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협력기관은 참여확인서, 양해각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기관의 경우는 불인정

- 대학 (병원),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 특정연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전문투자기관, 전문보육기관 (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기타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등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4월 29일(수) ~ 2020년 6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안서 양식 (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파일 (USB)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역삼동)  
해성빌딩 3층, (사)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연계사업팀

### ※ 신청서류

- ① (첨부1-1) 신청서 9부 (원본 1부 및 사본 8부).
- ② (첨부1-2) 협약서 9부 (원본 1부 및 사본 8부).
- ③ (첨부1-3) 사업계획서 (제안서) 9부.
- ④ 법인 정관 (원본대조필) 1부.
- 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부.
- ⑥ 최근 3년간 ('17~'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 ⑦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투자 후), 이체확인증 각 1부.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최근일 기준 10개 계약서만 제출)  
\* 제출한 투자실적 이외 나머지 투자실적은 현장실사 시 확인 예정
- ⑧ 협력기관 (컨소시엄 참여)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사본 각 1부.
- ⑨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또는 既제출했던 등록 신청서) 사본 1부.
- ⑩ 사업신청 구비요건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구분		서류 목록
투자 재원	고유재원 (자본금)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출자계획·협약서(해당시) 등
	조합(펀드)	조합(펀드)결성 통보 및 등록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조합원등록원부,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조합(펀드) 결성계획서, 출자협약서(해당시) 등
창업보육공간(BI)		보육공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등
전담인력		컨소시엄(주간사 및 협력기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창업경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등
해외법인기관		해외법인 설립증 또는 해외법인의 법적 증빙서류 등
기타		컨소시엄(주간사 및 협력기관) 주주명부, 창업지원프로그램 수행실적 등

- ※ 상기 제시된 신청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 및 USB에 저장하여 서류제출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및 USB는 반환되지 않음

## 5. 신청절차 및 일정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사전에 통지 예정

### □ 서면평가 (6월 중)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보육·글로벌 진출 지원역량 (인프라, 실적 등), BI 인프라, 투자실적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정량평가 실시 후 현장실사 추천 대상 선정 (선정계획 대비 2배수 내외)

\* 서면평가 결과는 사업 홈페이지 (www.jointips.or.kr)를 통해 통보하며, 현장실사 일정은 현장실사 추천 대상기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 현장실사 (6월 말)

-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 (주간사, 보육공간 등)을 실시 후 오류·수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

### □ 대면평가 (7월 중)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주간사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면평가 점수 부여

\* 대면평가 일정은 현장실사 시 기관별로 개별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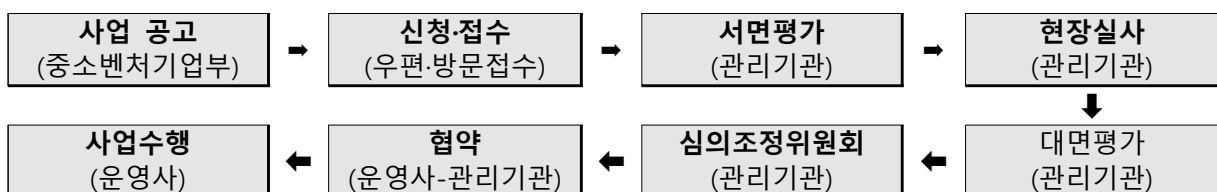
### □ 최종선정 (8월 초)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 (서면평가+대면평가+가점 (최대 5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사 최종 선정

### □ 협약체결 (8월 중)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운영사는 관리기관과 협약체결

< 운영사 선정절차 >



\*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6. 기타

- 선정된 운영사는 '팁스 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총괄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특히 팁스 표준 투자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 7. 문의처

-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9, 7482, 7423
  - 팁스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8947
  - 액셀러레이터 등록문의(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 : 02-3440-7309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거나 변경 세부내용은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을 적용

【 첨부 1 】

**팁스 (TIPS) 운영사 현황 (53개사)**

(‘20.4월 기준)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소재지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가재단	김철환	대전 유성구	김철환(이미지앤머터리얼스), KAIST	카이스트(대전) 팁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경기 성남시	김범수(카카오), 서울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팁스타운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서울 강남구	장병규(네오위즈),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팁스타운
	퓨처플레이	류중희	서울 강남구	류중희(올라웍스), KETI(전자부품연구원), 네오플라이	전자부품연구원 팁스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서울 강남구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팁스타운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지주, BNH인베스트먼트, 벤처스퀘어, 서울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TIPS 타운
3차 (‘14년 7월)	엔텔스	심재희	서울 강남구	심재희(엔텔스),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팁스타운
	액트너랩	조인제	서울 강남구	Lab IX(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인텔, SK텔레콤	팁스타운
	포스코	최정우	경북 포항시	포스코 계열사,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코센터(서울) 포항혁신센터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전 유성구	이용관(플라즈마트),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테이션니오	스테이션니오 생명공학연구원 팁스타운
	BSK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서울 서초구	차기철(인바디), 이민화(메디슨),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SVI	벤처기업협회SVI 팁스타운
	현대자동차	이원희	서울 서초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 광주혁신센터
	ETRI홀딩스	윤상경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대전)
5차 (‘15년 11월)	인포뱅크	박태형	경기도 성남시	박태형(인포뱅크), 텀블러, 젠엑시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자체 BI(경기)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오덕환	서울 서초구	씨엔티테크, 행복나눔재단(SK), 카이스트창업원(양재R&CD센터), 핀플레이, SK사회적가치연구원	카이스트창업원 (서울) 팁스타운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소재지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6차 (16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종훈	부산 해운대구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산TP,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부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스프링캠프	최인규	서울 관악구	-	자체 BI(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안태성	충북 청주시	LG전자, LG생활건강, LGU+, 충북TP,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청주상공회의소	자체 BI(충북)
	케이런벤처스	권재중	서울 강남구	이녹스, 성균관대, 테크코드엑셀러레이터코리아	성균관대(경기)
	포스텍기술지주	유주현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기업협업체, 포스텍 엔젤클럽,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포항공대 팁스타운
	시너지아이비투자	이건영	서울 서초구	요즈마그룹코리아	자체 BI(경기)
	휴젤	손지훈	서울 강남구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LSK인베스트먼트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7차 (17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김세현	서울 강남구	동국제약, (中)SCORE CAPITAL, 진학어플라이, 연세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공아이피씨	연세대(서울)
	빅뱅엔젤스	황병선	서울 강남구	평화홀딩스,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	이준배	세종시 연동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고려대, 충북수출클럽, 비피메이커스랩, 이노보스, HRG, 케이엑셀러레이터	자체 BI(세종)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서울 서초구	아이에셋, 아이피텍코리아, 송실대, 연세대, 이그나이트, Church&State	송실대 연세대(서울)
	코맥스벤처러스	변우석	경기 성남시	코맥스, 와디즈	자체 BI(경기) 팁스타운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서울 서초구	한국기술벤처재단, 전남대기술지주, 어썸벤처스, 리앤목특허법인, 케이디벤처팜,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체 BI 케이디벤처팜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서울 강남구	KB금융지주, 로아인벤션랩	자체 BI(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료원, 아이파트너즈,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KU글로벌센터,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자체 BI(서울) 아이파트너즈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소재지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8차 (18년 6월)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서울 강남구	(미)빅베이스캐피탈, 슈미트	슈미트 팁스타운
	메디톡스벤처투자	정현호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자체 BI(경기)
	서울대기술지주	박동원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자체 BI(서울) 팁스타운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정경선	서울 성동구	드림플러스강남센터, 루트임팩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인라이트벤처스	김용민 박문수	대구 북구	대구경제혁신센터, 광주경제혁신센터, (프)EuraTechnologies, 와이앤아처,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이전트엑스, 제주혁신성장센터	자체 BI(대구), 광주혁신센터, 제주혁신성장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수재	서울 성동구	한양대 창업지원단, 한양증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미)Founders Space, (싱가폴)Seamo Ventures, brinc, The GAIN, Accrete Innovation, Bridge Partners, Forence Group, HATCH! Ventures, Taiwan Accelerator, Innolab Asia	자체 BI(서울)
9차 (19년 5월)	김기사랩	신명진	경기 성남시	조이시티, EST soft Inc., 워크앤올, 공계임즈	자체 BI(경기)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WSV Capital	자체 BI 카이스트(대전)
	빅베이스캐피탈	윤필구	서울 강남구	송영길(NComputing), 신현성(TMON), 이택경(매쉬업엔젤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경기) 고려대(서울)
	씨엔티테크	전화성	서울 서대문구	-	자체 BI(서울)
	엔피프틴파트너스	양동민 허제 류선종	인천 연수구	엔피프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세종벤처파트너스, 아이디벤처스,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가센터, GS칼텍스, 마인즈랩, Harman Connected Services,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CampFire, 벨트코리아, KB국민카드	자체 BI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창수	서울 강남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케이티, 대광경영자문차이나,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소재지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0차 (19년 9월)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대전 유성구	igniteXL, 컴퍼니에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강원 춘천시	더존비즈온, 키컴,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TP,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BI(강원)
	데일리 파트너스	이승호	서울 강남구	MARSInnovation, Longlycapital,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벤처스퀘어	명승은	서울 강남구	Rehoboth Vietnam,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김종철	부산 해운대구	Saigon Innovation Hub, Able Advisors,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부산관광공사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서울 성동구	DSC인베스트먼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PHANTOM AI Inc., LVIS Corporation	자체 BI(서울)
	스파크랩	김유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스파크플러스,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Sparklabs Taipei,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서울 강남구	코로프라 넥스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경기혁신센터
	프라이머	권도균	서울 강남구	Primer Sazze GP, LLC., 대웅제약	대웅제약 (용인, 강남)
	플랜에이치벤처스	원한경	서울 서초구	KITA Inc., 네오위즈차이나,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네오플라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부산대기술지주회사, 울산과학기술지주, 충남대학교창업재단	자체 BI(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 유성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전혁신센터 팁스타운

【첨부 2】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핵심 기술 분야**

전략분야	전략품목	
인공지능 (6개)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Edge-Device 기반 고성능 경량-고속 시각 지능 플랫폼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제조 및 서비스 AI기반 군집 로봇 협업 운영 시스템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빅데이터 (6개)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영상, 음성, 문서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데이터 3D 변환 시각화 도구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IoT (8개)	IoT 디바이스 제품	홈 IoT 헬스케어 가전
	IoT용 스마트센서	IoT 융합 스마트 인테리어 제품
	지능형 IoT 소프트웨어 제품	스마트홈 방법시스템
	스마트 홈 에어가전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5G+ (5개)	5G 프론트홀·백홀	5G 밀리미터파 대역의 빔포밍 송수신 단말 및 장치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및 응용 시스템	5G 무선통신 테스트 및 계측 장비
	5G 기반의 스몰셀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스마트제조 (21개)	스마트제조용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네트워킹 시스템
	중소기업용 스마트제조 플랫폼	스마트제조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설비 관리 시스템	스마트 설비제어 시스템
	지능형 물류 시스템	산업용 지능형 센서
	공장용 환경보건안전(EHS) 솔루션	AI융합 핵심공정 설비
	산업용 인간-기계 협업 패키지	스마트 검사시스템
	스마트제조용 보안시스템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지원 로봇
	스마트 팜	IoT융합 제조일반 설비 및 시스템
	스마트 제조용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자유도 지능형 생산장비
	제품·공정 설계·해석 시뮬레이터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디지털트윈 생산시스템	

전략분야	전략품목	
지능형로봇 (5개)	지능형 가정용 로봇	건강관리 및 식사 보조 로봇
	체험형 시뮬레이터 로봇	배달 및 안내 서비스 로봇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시스템반도체 (9개)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반도체	DTV 시스템반도체
	IoT용 통신 반도체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헬스케어 기기용 시스템반도체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용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용 반도체	보안 솔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터치 및 터치리스 컨트롤러 반도체	
미래자동차 (9개)	초소형 전기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동/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바디인테리어 시스템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차량 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바이오헬스 (8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뷰티케어 디바이스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항체 의약품
	재활 및 고령친화 기기	기능성 화장품
스마트시티 (9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스마트 주차 관리 및 공유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분산자원 및 에너지 거래 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빌딩 관리 시스템
	AI 기반의 스마트 CCTV 시스템	
서비스플랫폼 (8개)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마이크로모빌리티 플랫폼
	게임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앱 플랫폼	O2O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콘텐츠 (8개)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	HMD
	영상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활용 오감센서
	모션처리 미들웨어	실감형 콘텐츠 활용 모션센서
	실감형 콘텐츠 디스플레이용 모니터	실감형 콘텐츠 활용 햅틱

전략분야	전략품목	
블록체인 (6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암호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P2P 네트워크 고속화 기술
드론 (3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신재생에너지 (9개)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부품(증감속기,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등)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바이오매스 기자재부품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폐기물 가스화를 통한 연료회수 공정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기계부품(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	
배터리 (5개)	모바일 기기용 소형 리튬이온전지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
	수송기계용 중형 리튬이온전지	배터리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대용량 전지저장장치용 대형 리튬이온전지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6. 사내벤처 육성할 기업을 찾습니다

##### '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20개사 공모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대·중견·중소·공기업 모집
  - \* 운영기업 현황(75개) : 대기업(16개), 중견기업(15개), 중소기업(28개), 공기업(16개)
- 올해부터 사업화 후속지원과 전담 액셀러레이터 연계 신규 도입
  - \* 지원내용 : **사업화 (1억원), 후속지원(최대 2억원), 액셀러레이터(1,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에 앞장설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자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해당 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정부지원기준 : 사업화 (1억원) 또는 분사기업에 한해 '사업화 및 사업화 실증지원(2억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기업으로 선정되어 사내벤처 육성 중인 기업은 75개이며(대기업 16개, 중견기업 15개, 중소기업 28개, 공기업 16개), 이를 통해 총 265개 창업팀('18. 94개, '19. 108개, '20. 63개)을 발굴·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존에 1:1 매칭 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칭비율을 100%에서 50%로 대폭 낮추어 부담을 완화했고, 사내벤처의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상품성과 시장성을 검증·보완하는 사업화 후속 지원(2억원, 1년간)과 전담 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지원을 신설했다.

사내벤처 발굴·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내부규정, 지원부서, 전담인력, 매칭자금 등)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과 공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http://www.mss.go.kr))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운영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 1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 사업개요 :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지원
  - \* '18년 신규도입, 75개 운영기업, 265개 창업팀 지원
- 사업예산 : ('18) 100억원(100개) → ('19) 100억원(100개) → ('20) 200억원(200개)
- 지원규모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팀) 200개 내외
  - \* 사내벤처팀 : 정부지원 및 사내벤처운영기업(민간) 1:(0.5~1.5) 매칭
  - \*\* 분사창업기업 : 정부지원 최대 70%, 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 지원대상 : ① 사내벤처팀 ② 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주요내용
  - 사업화 및 후속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
    - \* 정부지원 내용 : 사업화(1억원), 제품화·전략마케팅 등 사업화 후속 지원(최대 2억원), 전담 액셀러레이터 연계

### <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



구분	분사 전 (TRACK 1)		분사 후 (TRACK 2)	
대상	사내벤처팀(협약 후 1년 이내 분사 조건)		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		①사업화, ②사업화 후속 지원	
세부 지원 내용	직접	비즈니스모델 발굴,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직접	비즈니스모델 개선, 시제품 개선, 마케팅, 마켓FIT(상용화)검증
	간접	사례 전파,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간접	모기업의 기술사용, 생산시설 및 유통망 활용 등 지원
	후속	분사 후 후속지원 연계	후속*	세제혜택, 정책자금, 후속투자 등

\* 분사창업기업에 중진공 정책자금, 기보 및 신보 보증프로그램,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진출·판로 지원 및 VC·AC 대상 IR 등 후속투자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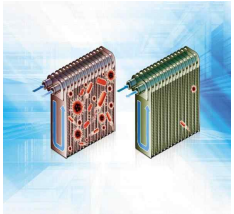

**참고 2**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현황 (75개사)**

구분	기업명
<p><b>대기업 (16)</b></p>	<p>현대자동차(주), (주)엘지씨엔에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엘에스전선(주),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엘지유플러스, (주)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주) 삼성전자(주), 엘지이노텍(주), (주)우리금융지주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주)케이티씨에스, 코오롱베니트</p>
<p><b>중견기업 (15)</b></p>	<p>(주)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코맥스, (주)코스콤, 대상주식회사, (주)휴맥스, (주)한솔교육, 한국타이어(주), (주)엔글, 보령메디앙스(주), 한솔피엔에스(주), (주)다날, 대웅제약, 제이비(주), 서울신문사, 이랜드리테일</p>
<p><b>중소기업 (28)</b></p>	<p>(주)삼진엘앤디, (주)휴넷, (주)인바디, (주)케이엘넷, 헬스투데이(주), (주)매스씨앤지, (주)위지웍스튜디오, (주)프론틱, (주)엔라인 (주)현대포리텍, 웅진개발(주), 케이씨글라스(주), (주)에이치나인, (주)씨아이그룹, (주)에프앤가이드, (주)이튜, (주)티제이이노베이션, (주)버티고우게임즈 씨엔티테크(주), (주)비에스알코리아, (주)스페이스솔루션, (주)샘파트너스, 수산아이앤티, (주)인키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주)비전, 아롬드리자산운용(주), (주)오상헬스케어</p>
<p><b>공기업 (16)</b></p>	<p>한국동서발전(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p>

### 참고 3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우수사례

	<p><b>(기업명)</b> 주식회사 한국금융솔루션 (대표 조영민, 舊회사명:핀셋)</p> <p><b>(운영기업)</b> 코스콤</p> <p><b>(사업내용)</b>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에 맞는 건전한 채무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용 및 부채를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별 특성에 맞는 간편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맞춤형 모바일 부채관리 플랫폼</li> <li>* 자신의 신용등급, 연봉, 근로상태 등 기본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자신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li> </ul> <p><b>(주요성과)</b> '19.1월 법인설립, 매출 : 110백만원, 고용인원 : 24명, 지재권 : 2건 ('19.12월 기준)</p> <p><b>(기타)</b>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8.5월, 금융위), 금융기관 계약체결(4개사), 상권 분석서비스 고도화사업계약(서울신보), 빅데이터 센터 선정(과기부), 핀테크랩 입주 선정(서울시)</p>
	<p><b>(기업명)</b> 엠바이옴 (대표 윤기영)</p> <p><b>(운영기업)</b> 현대자동차</p> <p><b>(사업내용)</b> 차량용 Air Quality Caring 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내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에바코어를 무취균 우점 코팅을 통해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 곰팡이 냄새 등의 악취 제거</li> <li>* 현대연구소와 품질본부의 지원을 받아 실차 모니터링을 200대 이상 진행하여, 에어코팅 적용 시 약 30%이상의 냄새 개선 효과 검증</li> </ul> <p><b>(주요성과)</b> '19.1월 법인설립, 매출 : 1,147백만원, 수출 : 226백만원('19.12월 기준)</p> <p><b>(기타)</b> '19.7 한-파키스탄 오토파트스 콜라보 2019 선발 및 참여 '19.3 Hyundai Motor India 양산 전차종에 자사 솔루션 적용 '19.6 Kia Motor India 최초 양산 차량 "셀토스"에 자사 솔루션 적용</p>
	<p><b>(기업명)</b> 팩트얼라이언스 (대표 이상훈, 舊팀명:PEACH)</p> <p><b>(운영기업)</b> 한국동서발전</p> <p><b>(사업내용)</b> 전력설비용 중전기기 진단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등 중전기기 및 신재생설비 진단을 통한 고장 예방으로 산업(발전)현장 손실 방지</li> </ul> <p><b>(주요성과)</b> '19.9월 법인설립, 매출 : 53백만원, 투자유치 : 2억원('19.12월 기준)</p> <p><b>(기타)</b> 투자관심사(6개사) 대상 IR 홍보 및 투자의향 조사 진행 중 지역 기술인재 2명 채용(10.1)</p>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7.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 청년 글로벌 마케터 200명 양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 양성

\* 기업당 2명 내외로 해외 마케팅비용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우대 선정하고,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 사업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 무역협회 주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 코로나19 사태 해소시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 병행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한-중 양국간 합의로 5월1일부터 우리 기업인을 중국 입국 시 입국 절차 간소화 시행, 정부는 국제기구와 각 국가와 기업인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간소화를 추진 중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마우처사업 신청 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제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http://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 **(사업목적)**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수출에 활용을 목적으로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청년요건> '19.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TOEIC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보유자  
 - (우대사항) 무역학·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무역사자격증 소지자, GTEP 등 무역인력양성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는 기업의 인력채용 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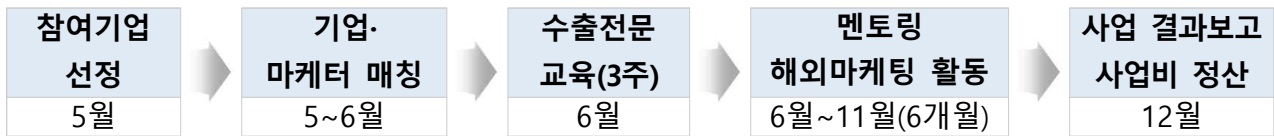
□ **(모집규모)**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을 목표 \* 2회 이상 분할 모집

□ **(지원내용)** 인력알선 → 수출교육 → 멘토링 →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인력알선)**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신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알선
- **(교육)** 청년마케터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무역 이론·실무 등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 **(멘토링)**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선정기업 내 멘토를 지정하고, 해외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별도 구성·운영
- **(해외마케팅활동)** 청년마케터가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을 기업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규모 : 실비용의 70%까지 지원, 30%는 자부담
  - 해외마케팅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면담 등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활동, 제품 주문 수주, 수출계약 등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일 ~ 2020. 12

□ 추진절차(1차 모집)



□ 1차 모집 공고 : 2020.5.11.(월)

\* 2차 이후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

□ 공고장소

- 중소기업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www.ikosta.net),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1차 모집 신청접수

- (신청방법)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0.5.11.(월) ~ 2020.5.29.(금)
- (선정절차)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평가 실시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8. 마스크 대란 해소 1등공신 스마트공장, 진단키트 생산에 도입

□ K-방역물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진단키트,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생산업체 등 18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진단키트(4개사), 손 소독제(6개사), 마스크(8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해외에서 수출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업체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할 때 삼성전자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신규설비 구축지원과 혁신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50%이상 증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설비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한 대표적 K-방역물품인 진단키트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A사에 따르면 5월부터 기존 생산량의 5배, 8월부터는 20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미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 놓았고, 지금도 수출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타 업체 또한 지난해 연간 생산량을 1~2달 내에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함께 진단키트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조 공정상 애로를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전문가(삼성 멘토)와 함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각 기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 개선과제 킥오프: 솔젠트(5.7일), SD바이오센서(5.19일), 코젠바이오텍(5.20일), 씨젠(5월중)

현장방문 결과 진단시약 업체의 공통 현안으로는 최근 단기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조현장에서 대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품질유지를 위한 철저한 구분관리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 자재, 반제품과 완제품이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 되는 현장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화 설비 운영에 대해서도 최적의 생산계획 수립 노하우를 전수해 신 공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A기업 진단시약 관계자는 “대량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량의 향상과 품질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업체에 대하여도 현장진단을 실시해 역량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스마트공장 설비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조주현 단장은 “진단키트 생산 업체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이후에도 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내 제조업의 혁신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코로나19 진단키트' 주요 생산업체 현황

### 1. (주)씨젠

- 대표 : 천중윤 ('0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1,219억원), 고용(312명)
- 생산품 : 감염병 진단키트, 분자진단 시약 등
- 코로나19 진단제품\* 美 FDA 긴급사용 승인(4.21)
- 4월말 기준 60여 개국에 진단키트 천만 테스트 이상 수출, 현재 주당 3백만 테스트 생산 수출



\* Allplex™ 2019-nCoV Assay

### 2. (주)솔젠트

- 대표 : 석도수/유재형 ('0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61억원), 고용(56명)
- 생산품 : 감염병 진단키트, 종합효소 등 생물학적 제제
-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2.27), 유럽인증 CE-IVD(2.28)
- 현재 일생산 6만개, 5월부터 5배 증산 필요 (해외 既수주 기준)



\* DiaPlexQ™ NovelCoronavirus (2019-nCoV) Detection Kit

### 3. SD바이오센서(주)

- 대표 : 이효근 ('1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737억원), 고용(210명)
- 생산품 : 면역진단 및 분자진단, 자가혈당측정 시스템 등
- PCR 진단키트\* 美 FDA 긴급사용 승인(4.23)
- 항원 신속진단(30분내) 키트 개발, 해외 수출 중
- 현재 일 30만개 생산 → 既수주 감안 일 240만개 증산 필요



\*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 4. (주)코젠바이오텍

- 대표 : 남용석 ('00년 창업) · 기업현황('19년) :매출액(100억원), 고용(69명)
- 생산품 : 유전자 분석키트 및 분석서비스
- 코로나19 진단키트\*외 유전병, 가축전염병 검사 키트 등 생산(800여종)
- 현재 일 8만개 생산 중,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안정적 생산프로세스 도입 필요



\* PowerChek M2019-nCoV RT-PCR kit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예 산 : ('18) 114억원 → ('19) 185억원 → ('20 예정) 250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 ICT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9천만원) 지원

구 분	정 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30%이상	40%이내

- (유형 2) 소기업이 기초수준(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확장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삼성전자 주관사업의 경우 구축기업에 전문인력(삼성전자 멘토 200여명)을 파견하여 공정개선, 기술전수 등 현장 혁신 지원

□ 지원실적

- '18년부터 '19년까지 대기업 등 주관기관과 정부가 총 630억을 지원하여 1,62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대기업수	대기업출연	정부지원	지원현황		
				유형1	유형2	계
2018년	4	117.1	114.5	180	417	597
2019년	10	213.5	185.2	505	518	1,023
합 계	-	330.6	299.7	685	935	1,620

- (삼성전자) '18 ~ '22년까지 600억 출연 예정, '18년 505개사, '19년 570개사 지원, '20년 마스크 4개사 신속 지원 등 사업 진행 중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19. 비접촉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제로페이 도입 1년 5개월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지난 4월 일평균 결제액은 34.1억원으로 '19년 4월 대비 40배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19년 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가 2년차를 맞이해 가맹점과 결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도입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5월 8일 가맹점 5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 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제로페이는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접촉하지 않고 결제 가능

올해 가맹점 신청이 1월에 5,500건, 2월에 8,900건이었으나, 3월에 8만5000건에 이어 4월에 5만9000건이 신청 접수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에만 가맹점이 14만4000건(주당 1만8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초반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가맹점에 집중적이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 또한 '19년 한 해 동안 767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원이 넘게 결제(1,021억원)돼 4월의 일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원을 기록하면서 '19년 4월 보다 40배 넘게 증가했다.

\* 월간 결제액(일평균): ['19.4월] 25.6억원(85백만원) → ['20.4월] 1,021억원(34.1억원)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로페이 가맹점인 것을 홍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맹점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제로페이의 인기는 모바일상품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뿐만 아니라 '19년 8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41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로 발행하고 있다.

\* 서울시 전 자치구(25개), 경남(경상남도,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산청, 창원, 하동, 합천), 전남(강진, 곡성, 담양), 강원(강원도, 춘천), 충북(진천), 경북(고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15%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지류나 카드형 상품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하고 발행비용도 저렴하며 거래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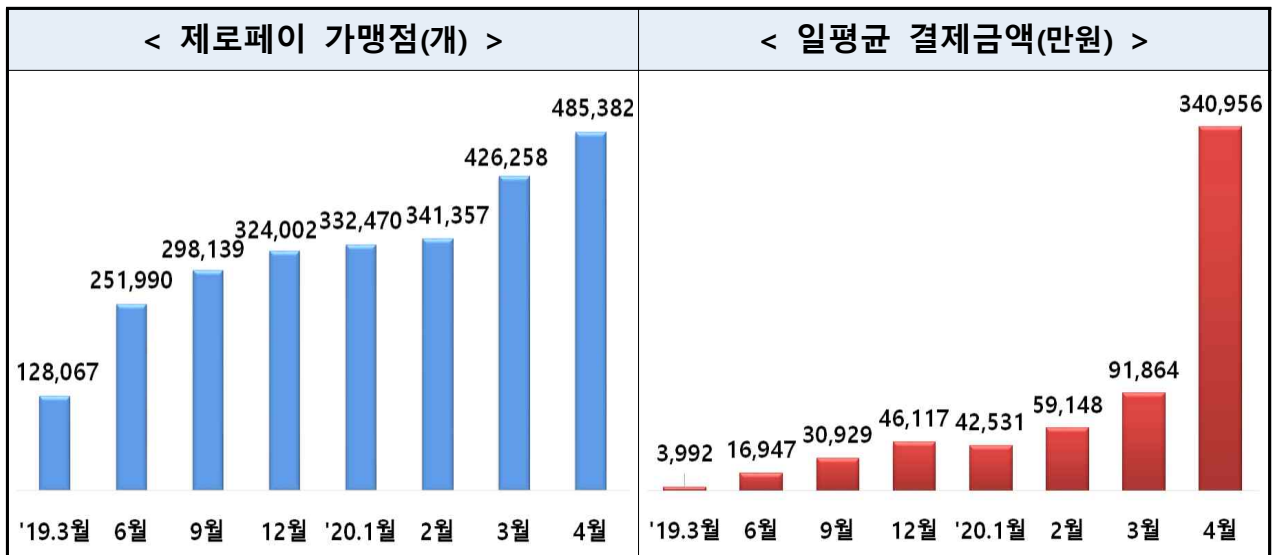
중기부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가입을 통해 저렴한 결제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 결제 편의 개선과 결제 기능 다양화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제로페이 가맹점 및 결제 현황('20.4월말 기준)

(단위 : 개, 건, 만원)

구 분	가맹점		결제 실적		일평균 결제실적	
	월별	누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12월(시범)	15,505	15,505	2,964	3,024	247	252
'19.1월	31,123	46,628	15,829	28,272	514	865
'19.2월	21,916	68,544	28,147	53,000	1,033	1,883
'19.3월	59,523	128,067	59,152	123,627	1,904	3,992
'19.4월	96,384	224,451	197,452	256,026	6,582	8,534
'19.5월	13,660	238,111	214,499	423,373	6,927	13,671
'19.6월	13,879	251,990	268,309	507,894	8,945	16,947
'19.7월	19,288	271,278	332,467	739,032	10,726	23,890
'19.8월	14,370	285,648	355,122	790,193	11,458	25,511
'19.9월	12,491	298,139	388,953	925,012	12,973	30,929
'19.10월	9,661	307,800	497,335	1,139,764	16,048	36,823
'19.11월	8,734	316,534	534,321	1,262,065	17,817	42,113
'19.12월	7,468	324,002	432,681	1,425,897	13,964	46,117
'20.1월	8,468	332,470	380,854	1,315,775	12,293	42,531
'20.2월	8,887	341,357	481,361	1,712,041	16,607	59,148
'20.3월	84,901	426,528	766,078	2,842,256	24,719	91,864
'20.4월	59,124	485,382	2,900,497	10,215,892	96,702	340,956
<b>합 계</b>	<b>485,382</b>		<b>7,856,021</b>	<b>23,763,143</b>	-	-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0. '스마트화'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50개사 지원

#### '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도입 지원
  -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6000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과 함께 언택트 분야 중점 지원으로 언택트 경제 전환 시 선제 대응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서비스는 '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이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기업 혁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등을 지원</li> </ul>
온라인 경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교육·식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 등을 지원</li> </ul>
공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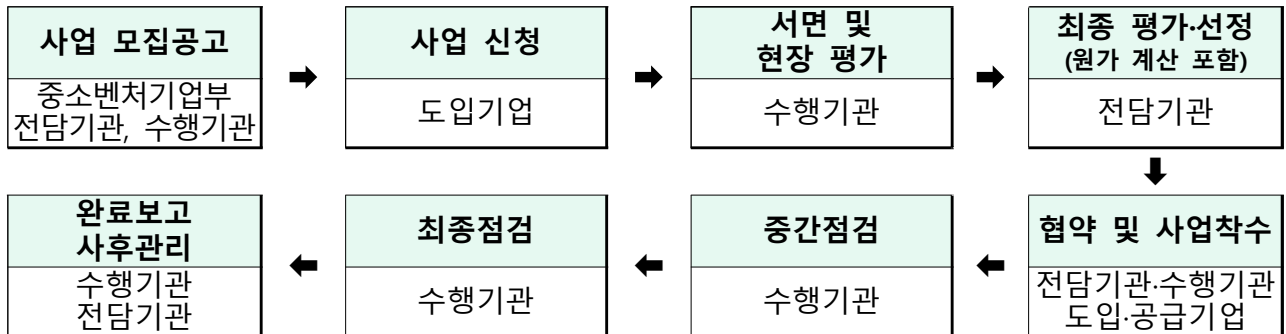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추진 프로세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이 조성되어 디지털 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지원 규모) : 93억원 (사업비 90억원, 운영비 3억원), 150개 사 이상
- (지원 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기업 혁신 서비스	■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등을 지원
온라인 경제 서비스	■ 온라인 교육·식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 등을 지원
공공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방향

-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 진단을 통해 기업 ICT 활용 수준을 분석하여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 <수준별 지원 예시>

수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기대 효과
3단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스마트 서비스 구현 여건이 마련된 기업	사전 예측 솔루션 도입, 신규 BM 발굴 컨설팅 등	스마트서비스 및 신규 BM 창출
2단계	업무별로 전산화되어 있어, 전사적 차원의 통합·분석이 미흡한 기업	전사적 데이터 수집 및 D.N.A 등을 활용한 분석 솔루션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고부가가치화)
1단계	업무 대부분이 비전산화 상태여서, 단순 반복 및 대면 방식의 업무가 지속 중인 기업	프로세스 자동화(RPA), 창고관리 시스템(WMS),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업무 디지털화	서비스 생산성 향상 비대면 업무 도입 등

- 언택트·온라인 경제에 중소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 중점 지원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1.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 핵심 주역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5.10) 이후 첫 현장행보로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 스타트업 리더'들을 만나 격려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의지 표명
- ◆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핵심 주역인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성장 엔진으로 하여, 세계를 선도하고 개척하는 '디지털 강국 경제모델' 구축 추진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온라인, AI·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펀드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계획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는 5월 14일(목), 나라키움청년창업허브 (서울 강남)에서 대통령 주재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 스타트업들의 과감한 도전을 격려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였음
-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담화 (5.10)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도약을 약속한 이후 첫 현장행보라는 점에서,
  - 디지털로 무장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개척하고 선점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

-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음
  - 지난해 벤처투자가 약 4.3조원으로, '18년 대비 25%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4조원의 벽을 돌파하였고,
    - \* 벤처투자 실적(억원) : ('17) 23,803 → ('18) 34,249 → ('19) 42,777
  - '17년 이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8개가 신규 출현하여 현재 총 11개로 세계 6위가 되었음
    - \* 국가별 유니콘 숫자('20.3) : 미 220, 중 108, 영 24, 인도 21, 독일 12, 한국 11
    - 특히,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군도 '17년 115개에서 '19년 235개로 약 2배가 증가하였음
  - 또한, '19년 한해동안 신설법인이 10만 9천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 4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임

##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의 경제주역 잠재력 확인]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하였음
  -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던 '코로나맵',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들이 줄을 설때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맵'은 다름아닌 스타트업의 작품이었음
    - \* 코로나맵 : 모닥, 마스크맵 : 굿닥, 똑닥, 웨어마스크 등
  - 또한, 바이오 벤처기업 군단은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과 키트를 조기 개발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였고,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
    - \* 씨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휴온스, 젠큐릭스 등

□ 최근 벤처투자 흐름을 보더라도,

-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반면,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업종 등은 각각 33.9%, 24.0% 증가하였고,

\* '19.1Q 대비 '20.1Q 신규 벤처투자 : ① 바이오·의료 (1,700억원 → 2,276억원, 33.9%↑),  
② ICT 서비스 (1,686억원 → 2,091억원, 24.0%↑)

-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에서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가 분야는 물류·유통 (195억원, 226.0%↑), 스마트 헬스케어 (599억원, 187.3%↑), 스마트 비즈니스&금융 (622억원, 157.7%↑)이었음

\* 분야 예시 : 물류·유통 (물류플랫폼, 배송대행 등), 스마트 헬스케어 (웨어러블, 의료 플랫폼 등), 스마트 비즈니스&금융 (원격근무, 스마트금융 등)

- 또한, 비대면 분야의 기업당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평균고용 27.2명보다 높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최근 3년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17년 0.8조원에서 '19년 1.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고용도 약 2.7만명에서 4.7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이를 투자 10억원당 고용 수치로 비교하면, 대면 분야 (3.6명)보다 비대면 분야가 1.9명 높은 5.5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비대면 분야가 벤처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상장사 중 벤처확인 이력 있는 혁신기업의 고용도 증가 추세로,

\* 분석대상 : 벤처확인을 받은 적이 있거나 벤처기업인 상장사 770개사

- '20년 1분기 총 13만 5,169명을 고용 (기업당 175.5명)하고 있으며, '19년 1분기 대비 1,265명 (0.9%), '19년말 대비 2,359명 (1.8%) 고용이 증가했으며,

- 주요 증가 분야는 의료·바이오, 온라인·게임, 네트워크·보안 등으로 코로나19 영향 속에 각광받는 기업들의 고용증가가 뚜렷함

\* 주요 사례 ('19년말 대비) : 셀트리온 (치료제 개발, +461명), 실리콘웍스 (반도체, +151명), 아이스크림에듀 (온라인 학습포털, +145명), 베스파 (게임, +135명) 등

## [차세대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방안]

- 오늘 행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적 펀드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펀드는 언택트·온라인, AI·빅데이터, 바이오 등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펀드로서,
  - 모태펀드와 더불어 멘토기업 등 민간자본이 조성단계부터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임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조준하는 대규모의 투자펀드가 질 좋은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 경제모델을 만들면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도 역점을 두어 혁신과 상생이 어우러지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음

## 참고

# 혁신 벤처·스타트업 최근 투자 및 고용동향

- 분석대상 : '20년 1분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385개社
- 고용현황은 고용정보 데이터 보유 기업 279개 대상으로 분석
- 출처 : 벤처투자종합정보(신규 벤처투자), 한국고용정보(고용현황)

### 1) 1분기 벤처투자 동향

-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 바이오·의료 및 ICT서비스는 각각 33.9%, 24.0%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ICT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합계
	제조	서비스								
'19.1분기	290	1,686	447	226	1,700	880	204	1,634	721	7,789
'20.1분기	293	2,091	306	384	2,276	365	165	962	621	7,463
증감률	1.0	24.0	△31.5	69.9	33.9	△58.5	△19.1	△41.2	△13.9	△4.2

\* '20.5.1. 기준 데이터값(벤처캐피탈의 실적수정 등으로 인해 既 발표수치와 차이발생)  
화학·소재의 높은 증가율 원인은 고무, 비금속 분야의 ('19.1Q) 0 → ('20.1Q) 107억원 증가

- 이 중 후속투자 기업은 230개사, 전체 벤처투자금액의 72.9%인 5,444억원으로 후속투자 비중 증가(5.7%p ↑)\*

\* 신규 벤처투자 중 후속투자(비중) : ('19.1Q) 5,235억원(67.2%) → ('20.1Q) 5,444억원(72.9%)

- 1분기 벤처투자 중 비대면 분야(181개사)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1.7% 증가(2,968억원 → 3,613억원), 비중도 10%p 이상 증가(38.1% → 48.4%)

- 증가 주요 분야는 물류·유통(195억원, 226.0% ↑), 스마트헬스케어(599억원, 187.3% ↑), 스마트BIZ&금융(622억원, 157.7% ↑)

단위 : 억원, %

구 분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BIZ&금융	생활 소비	엔터	물류유통	기반 기술	합계	비중
'19.1분기	208	98	241	574	1,328	60	458	2,968	38.1%
'20.1분기	599	63	622	1,022	463	195	650	3,613	48.4%
증감률	187.3	△36.0	157.7	77.9	△65.1	226.0	42.0	21.7	

\* 분류 예시 : 물류·유통(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등), 스마트헬스케어(웨어러블, 의료 플랫폼 등), 생활소비(전자상거래, 생활 중개 플랫폼, 스마트상점 등)

## ② 1분기 후속 투자기업 동향 (1분기 투자 385개사 중 230개사)

- ICT서비스(1,736억원, 31.6%), 바이오·의료(1,606억원, 29.5%) 2개 부문이 전체 후속투자의 60% 이상 차지
- 후속투자 중 비대면 기업은 118개사로, 230개사의 51.3%
  - 생활소비(29.1%), 스마트BIZ&금융(19.6%), 스마트헬스케어(17.7%) 3개 부문이 비대면 후속투자 금액의 65% 이상 차지

단위 : 억원, %

구 분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BIZ&금융	생활 소비	엔터	물류유통	기반 기술	합계
신규투자	599	63	622	1,022	463	195	650	3,613
후속투자	544	25	605	897	367	136	509	3,083
비중	17.7	0.8	19.6	29.1	11.9	4.4	16.5	100.0

## ③ 1분기 투자기업의 고용 동향

- 1분기 투자기업은 '19년말 대비 496명(8,706명 → 9,202명, 5.7% 증)을 신규 고용 (기업당 +1.78명, 10억원당 +0.87명)
  - ICT 서비스(+227명), 유통·서비스(+191명), 바이오·의료(+102명) 고용 증가 뚜렷

단위 : 명, %

구 분	ICT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합계
	제조	서비스								
'19년도	580	2,518	517	598	1,015	750	308	1,918	502	8,706
'20.1분기	601	2,745	573	654	1,117	590	282	2,109	531	9,202
증감수	21	<b>227</b>	56	56	<b>102</b>	△160	△26	<b>191</b>	29	<b>496</b>
증감률	3.6	<b>9.0</b>	10.8	9.4	<b>10.0</b>	△21.3	△8.4	<b>10.0</b>	5.8	<b>5.7</b>

- 비대면 분야의 기업당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기업당 27.2명)보다 높은 고용 유지 효과

구 분	전체	비대면	대면
기업 수	279개	153개	126개
고용현황	9,202명	5,779명	3,423명
기업당 평균 고용	33명	37.8명	27.2명
투자금액	5,709억원	3,437억원	2,272억원

- 비대면 분야 중 생활소비(+179명, 9.1% ↑), 기반기술(+117명, 10.9%)은 고용이 크게 증가

< 최근 3년간 투자기업(2,608개사) 중 비대면 업체 투자 및 고용 동향 >

- 신규 벤처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49.5%)도 전체 벤처투자 증가율(34.1%)보다 높은 수준
-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 비대면 분야의 투자 비중도 매년 꾸준히 증가

구 분	'17년	'18년	'19년
전체 벤처투자(A)	23,803억원	34,249억원	42,777억원
업체 수	1,266개	1,399개	1,608개
비대면 벤처투자(B)	7,596억원	12,165억원	16,979억원
업체 수	932개	1,112개	1,277개
투자비중(B/A ×100)	31.9%	35.5%	39.7%

\* 비대면 기업 수는 연도별로 산정한 기준으로 중복 포함

- 대면 분야 보다 비대면 분야가 높은 고용창출 효과
  - 비대면 분야의 '17년말 대비 '19년말 신규 고용 창출은 대면(16,690명, 32,865명 → 49,555명)보다 3,526명 많은 20,216명(27,442명 → 47,658명)
  - 특히, 투자금액 10억원당 평균 고용증가는 비대면 업체가 5.5명으로, 대면 업체(3.6명)보다 1.9명 높음

④ 상장사(코스피, 코스닥) 중 벤처확인 경험이 있는 기업\*의 고용동향

\* 상장사 중 현재 벤처기업, 과거 벤처기업 등 한번이라도 벤처확인을 받은 경험(790개사)이 있고, 고용데이터가 있는 770개사(현재 벤처기업 397개사, 과거 벤처기업 373개사) 분석

- 금년 1분기 현재 총 13만 5,169명을 고용(기업당 175.5명)하고 있으며, '19년 1분기 대비 1,265명(0.9%), '19년말 대비 2,359명(1.8%) 고용 증가
  - '19년말 대비 셀트리온(치료제 개발, +461명), 아이스크림에듀(온라인 학습 포털, +145명), 베스파(게임, +135명) 등 코로나19 영향 속에 각광 받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가 뚜렷

단위 : 명, %

구 분	기업수	'20.1Q 고용(A)	'19.1Q 고용(B)	증감 (A-B)	증감률	'19년 고용(C)	증감 (A-C)	증감률
전 체 (기업당 평균)	770개사 (코스피 34)	135,169 (175.5)	133,904 (173.9)	1,265 (1.6)	0.9%	132,810 (172.5)	2,359 (3.1)	1.8%
現 벤처 (기업당 평균)	397개사 (코스피 6)	53,933 (135.9)	52,572 (132.4)	1,361 (3.4)	2.6%	51,836 (130.6)	2,097 (5.3)	4.0%
과거 벤처 (기업당 평균)	373개사 (코스피 28)	81,236 (217.8)	81,332 (218.0)	-96 (-0.3)	-0.1%	80,974 (217.1)	262 (0.7)	0.3%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2.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안전관리에 국비 지원

678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안전관리에 국비 332억원 지원

- 633개 시장 공동마케팅 212억원, 45개 시장 종합 안전관리에 120억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화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4일 전통시장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332억원을 투입하여 633개 시장에는 공동마케팅을, 45개 시장에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20년 제1차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공고를 거쳐 대구 서문시장을 포함한 678개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은 할인행사, 문화공연, 특별이벤트(경품, 체험부스 운영) 등 고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시장 규모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받은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크리스마스마켓'과 연계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전통시장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4개 시장에는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②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은 연대와 협력의 상징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4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화재 알람시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노후된 전기시설 등 화재안전 관리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전체 임대인의 20% 이상 또는 임대 점포수의 20% 이상이 참여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전통시장 자부담 10~50%)\*과는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통시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1. 지원 배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 및 활력 제고

### \* (참고) '20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바우처 한도 범위<sup>1)</sup> 내에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주도로 선택·추진하는 시장경영혁신 사업<sup>2)</sup>을 지원
  - 1) (가등급) 6천만원, (나등급) 4천만원, (다등급) 3천만원
  - 2)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
- 지원규모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50여곳

##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국비 21,240백만원, 전통시장 등 633개소

\* 지원금액은 선정된 시장규모(영업점포수)에 따라 차등 지원(2~8천만원), 운영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 설정

- (지원내용) 공동마케팅 활동\* 비용을 1곳당 평균 4천만원 수준으로 지원

\* 고객유입 촉진, 매출 증대 등을 위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활동 등

- (지원조건) 국비 100%

\* 추경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90→100%)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

**1. 지원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중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상점가 중 아래 조건을 충족

\* 전체 임대인의 20% 이상 또는 임대 점포수의 20% 이상이 참여

- (지원예산 및 규모) 국비 12,000백만원, 전통시장 등 45개소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초과~ 500개 미만	500개 초과~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상점가)당 지원한도(최대)	4억원	6억원	8억원	10억원

- (지원내용) 전통시장·상점가 안전 관련 전 분야

- 전기시설 : 노후화된 분전반 및 옥내 배선, LED 전등 교체 등
-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 신종소화장치, 소화전 등
- 화재알림시설 : 화재 감지기 및 수신기, 화재예방용 CCTV 등
- 가스시설 : 노후화된 LPG배관, 가스안전시설 등
- 기타 안전 관련 분야

- (지원조건) 국비 100%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3. 강원·세종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특구, (세종) 자율주행실증특구의 특구사업자를 추가하는 특구사업계획 변경 안을 승인
- 강원 특구 원격의료 실증확대를 위해 13개 특구사업자 추가 (1차 병원 7곳, 전문기업 2곳, 대학 4곳)  
세종 특구는 자율주행 본격 실증을 위해 팬텀AI 등 3개 기업 추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사업자를 보강하고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요 >

- **심의일자** : 2020. 5. 4(월) ~ 5.8(금)
- **심의위원**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8명) :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부처 차관(급) 공무원
- **주요내용** :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 의결
  - 강원 : 특구사업자 13개 추가(1차병원 7개, 기업 2개, 산학협력단 4곳)
  - 세종 : 특구사업자 3개 추가

먼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 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규제특구의 경우도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주)팬텀AI코리아)가 추가 참여하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네이버시스템(주))를 새로 추가하여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술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이 세종 특구에 참여하는 팬텀AI코리아는 '16년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해외에 설립했던 유망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하여 국내 미래차 산업발전에 동참한다.

팬텀AI코리아는 정부의 특구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올해 2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팬텀AI의 우훈제 이사는 “미국은 인프라 지원이 전무하지만, 한국은 세종시에 교통관제시설, BRT 등 첨단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강원과 세종 특구의 특구사업자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우리의 혁신 중소기업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헤쳐 나오면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 ○ 특구사업자 3개 추가

- 네이버시스템(주) : 도심공원 실증구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 안전 인프라\* 및 관제시스템 등 운영 사업자 추가

\* CCTV, 보행자검지기, 돌발상황검지기 등

- (주)오토너머스에이투지, (주)팬텀AI코리아 : 국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BRT, 주거단지 등 실증구간\*에 국산 자율주행차 운영 사업자 추가

\* (주)오토너머스에이투지(BRT 등 일반도로), (주)팬텀AI코리아(주거단지)

## ○ 실증 계획 :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 후 5월말 착수예정

## 2.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 ○ 특구사업자 추가

- 1차병원 : 관보 고시 예정
- 전문기업 : (주)라이프시맨틱스, (주)건강마당
- 대 학 :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 특구사업자 추가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 특구면적 2,190m<sup>2</sup> 추가(799,533m<sup>2</sup> → 801,723m<sup>2</sup>)

## ○ 실증 계획 :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 후 5월말 착수 예정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4. SKC, 14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

##### SKC, 자상한 기업(14호) 업무 협약식

- 대기업인 SKC의 참여로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시스템 첫 구축
- SKC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경영개선 지원 및 혁신역량 공유

대기업인 SKC가 자사의 '오픈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R&D, 경영, 안전 등의 혁신역량을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유도하면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상한 기업(14번째)으로 선정됐다.

\* 자상한 기업 :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SKC(대표이사 이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공동의장 안성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과 '공정 기술거래와 개방형 혁신으로 상생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5.13(수) 10:00,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
- [협약참여자] 중기부 장관(박영선)-SKC 대표이사(이완재)-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의장(직방 대표 안성우)-기술보증기금 이사장(정윤모)
- [협약내용] (중기부·기보)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중개, 기술이전 활성화지원 등 (SKC) 기보에 기술수요정보 제공, 자사 '오픈플랫폼'으로 혁신역량 공유 (코스포) 기술이전, 혁신역량 공유가 필요한 스타업을 발굴하여 연계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열네 번째로, 대기업 SKC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담아 성사됐다.

\* 기선정 기업 :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 스타벅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업 간 기술이전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기보를 통한 기술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08건(20.3월말 기준)의 기술을 신탁 받았고, 그 중 52건을 다른 중소기업에 이전한 바 있다.

\* 신탁기관이 기업 우수기술을 신탁(특허권 이전)받으면,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난 12차 자상한 기업인 ARM과의 업무협약이 글로벌 기업인 ARM의 IP를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IP를 국내 대기업인 SKC에 제공해 SKC는 R&D,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기술 확보 등이 필요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믿고 맡길 중개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이번에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시스템인 '2Win-Bridge시스템'을 기보에 구축하고 여기에 SKC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 2Win-Bridge 시스템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Win, Win할 수 있는 기술거래시스템으로 기보의 기술신탁을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거래시스템

SKC가 비밀유지협약 하에 수요기술을 기보에 제공하면, 기보는 10만여 개 중소기업 기술을 탐색해 매칭되는 기술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신탁 받은 후 SKC와의 기술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거래 참여와 함께, SKC는 자사에 구축한 '오픈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R&D, 경영, 생산, 안전 등의 혁신역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 오픈 플랫폼 : SKC의 R&D, 경영, 생산, 안전 부문 혁신역량을 스타트업·중소기업들과 공유하는 시스템

이에 1,330여개의 회원사를 가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기보가 SKC의 오픈 플랫폼에 참여하여 소재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과 더불어, SKC와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4개사가 반도체 제조공정용 필터, 스마트공장 솔루션 등의 기술에 대해 SKC 임직원들 앞에서 발표회를 했다.

또한, 중소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거래, 공동 R&D, 판로개척 3가지 섹션별로 SKC의 담당부서가 1:1로 매칭되어 기술거래·구매상담회가 이루어졌고, 기술금융 및 기술보호 관련 별도 부스도 마련됐다.

SKC 이완재 사장은 “SKC는 2017년부터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을 운영해 오면서 역량공유, 상생협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 소재기업의 성장을 도와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보증기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건강한 소재사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으로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게 되면 모두가 Win, Win할 수 있는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점에서 오늘처럼 서로 배려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R&D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신탁기술이전 실적을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1

## 중기부·SKC·기보·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협약식 개요

### □ 행사 개요

- (목적) SKC(수요자)-기보(중개)-중소기업·스타트업(공급자) 간 기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SKC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경영개선을 지원
- (일시·장소) '20.5.13(수) 10:00~11:50,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
  - \* (티타임) 09:50 ~ 10:00, VIP룸 → (MOU체결·기술발표회) 10:00 ~ 10:50, 행사장
  - \*\* (기술발표회) SKC 수요에 맞게 기보가 추천한 기업 중, SKC가 선정한 4개社 발표
- (참여기관) 중기부, SKC(사장 이완재), 기보(이사장 정윤모),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공동의장 직방 대표 안성우)

- (중기부·기보)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중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 (SKC) 기보에 기술수요정보 제공, 자사 '오픈플랫폼'으로 혁신역량 공유
- (코스포) 기술거래, 혁신역량 공유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연계

- (MOU형식) 4자(중기부·SKC·기보·코리아스타트업포럼) MOU 체결
- (부대행사) SKC와 거래희망 중소기업(8개사) 기술거래·구매상담회
  - \* 3가지 섹션(①기술거래, ②공동R&D, ③판로개척)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세부일정(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업무협약 (30')	10:00~10:05 (05')	▪ 행사 브리핑	• 안내 : 전문 MC
	10:05~10:08 (0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진행 : 전문 MC
	10:08~10:17 (09')	▪ 인사말씀	• 장관, SKC사장, 코스포, (각 3분)
	10:17~10:18 (01')	▪ 협약서 주요내용 설명	• 발표 : 전문 MC
	10:18~10:30 (12')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이벤트* 포함) *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관련 퍼즐부착	• 중기부-SKC-기보-코스포 간
기술발표회 (20')	10:30~10:50 (20')	▪ 중소기업 보유기술 소개(4개사*) * (주)이안, (주)에버컴텍, (주)지엔에스산업, 도원바이오테크	• 4개 중소기업 각 5분
상담회 (60')	10:50~11:50 (60')	▪ SKC 거래희망 중소기업(8개사) * 코로나 상황 악화 시 화상으로 대체	• 상담실 3개와 기술보호, 기술 금융 상담부스 별도 운영

## □ 업무협약 주요내용(안)

### ①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중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 SKC는 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시스템\*에 수요기술정보를 제공

\* 2Win-Bridge 시스템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거래를 기보가 중개해주는 시스템

- 기보는 10만여개 중소기업 기술을 탐색하여, SKC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신탁\*받은 후 기술거래를 중개

\* 신탁기관이 기업 우수기술을 신탁(특허권 이전)받으면,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관리, 기술거래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중기부는 공정 기술거래 문화 정착 및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② '오픈 플랫폼'으로 혁신역량 공유

- SKC는 자사의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Biz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

\* SKC의 R&D·경영·생산·안전 부문 혁신역량을 스타트업·중소기업들과 공유하는 시스템

- 기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SKC의 오픈 플랫폼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을 플랫폼에 연계

### ③ 기술거래·혁신역량 공유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5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약기관 지원사업 연계

## 참고2

## 부대행사(기술거래·구매상담회) 개요

- **행사목적** :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 內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향후 추진할 사업을 시범적으로 개최하고 개선점 등을 도출
- **주요내용** : SKC(주)와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8개社)을 대상으로, SKC(주)의 담당부서 실무자가 1:1 현장상담 진행
  - (참가대상) SKC(주)와 기술거래, 공동 R&D 또는 판로개척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선별절차) ① SKC 수요기술정보 수집 → ② 기보 DB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 매칭 및 SKC에 후보 리스트 제공 → ③ 대상기업 최종선정

1) SKC(주)의 수요정보\*를 기보의 10만개 중소기업 기술 DB와 연계하여 우수기술 탐색

\* 수요기술분야 : 페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 냉난방 효율개선 Window Film 등

2)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리스트를 SKC에 제공하고 SKC가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

- 상기 절차를 통해 8개 중소기업 최종선정 완료하였으며, 상담 진행을 위한 추가 기술자료도 SKC와 공유

※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 분	상담내용	비 고
기술거래	• 중소기업이 매각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사업 부문과 SKC 수요기술의 부합 여부 검토	• 섹션별 3개社 내외
공동R&D	• SKC의 R&D 인프라(테스트베드) 또는 실무 노하우를 활용한 공동R&D 제안내용 설명	• SKC실무자는 신청기술 내용에 따라 별도지정
판로개척	• 중소기업이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거래가능 여부를 문의	• 협력이 불가할 경우 SKC의 오픈플랫폼을 통한 지원 검토

## □ 기타사항

- 기술구매 상담회와 동시에 기술금융(기보) 및 기술보호(대·중소재단) 관련 상담 희망 기업을 위한 별도의 부스 마련 예정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5.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 '18년 대비 11조원 늘어난 105조원(837개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78% 수준)
-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부 순으로 구매비율 증가폭 커
- 코로나 여파 내수절벽에 완충역할 기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9년 사상 최초 1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된 후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하는 837개 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8년 94조원에서 11조원이 늘어난 105조원에 달했다.

이는 총 구매액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비중)을 늘리려는 개별 기관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개요>

- (개요) 해당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판로지원법 제5조)
- 대상기관(837개) : 국가기관(46), 지자체·시도교육청(260),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339), 지방공기업(151), 지방의료원(35), 특별법인(6) (판로지원법 제2조)

#### <대상 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기관수(개)	765	775	788	836	837	837
총구매목표(조원)[A]	114.3	119.9	118.4	121.9	124.4	133.2
중기제품구매목표(조원)[B]	80.2	85.7	86.2	89.9	93.8	103.4
중기제품구매목표비율[B/A]	70.2%	71.5%	72.8%	73.7%	75.4%	77.6%
총구매실적(조원)[C]	119.2	116.9	123.4	123.4	135.0	-
중기제품구매실적(조원)[D]	85.5	86.1	92.2	94.0	105.0	-
중기제품구매실적비율[D/C]	71.7%	73.7%	74.8%	76.2%	77.8%	-

이들 기관의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전체 103조4,000억원으로 작년 목표치인 93조8,000억원에 비해 9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상 기관들이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 105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8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최대 130여조원에 달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이 중 약 78%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술개발제품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도 '18년에 비해 '1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기술개발제품('18.1% 증가) : ('18) 4조5,300억원 → ('19) 5조3,500억원
- \* 여성기업제품(12.5% 증가) : ('18) 10조5,800억원 → ('19) 11조9,000억원
- \* 장애인기업제품(18.6% 증가) : ('18) 1조7,700억원 → ('19) 2조1,000억원

한편, 이들 기관 중 '18년에 비해 '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의 증가폭이 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내용 별첨1)

같은 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증가폭이 큰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광역시청, 경기도청, 교육부, 인천광역시청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세부내용 별첨2)

또한, 중기부가 '18년 이후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80%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에 의한 구매 우수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 청주시, 용인시, 고양시, 포항시 등이 순으로 선정됐다. (☞ 세부내용 별첨3)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올해에는 작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절벽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기제품 구매액 3천억원 이상인 기관에 한정하여 선정

연번	기 관 명	2019년 중기제품 구매비율 (%)	2018년 중기제품 구매비율 (%)	증가폭(%p)
1	경기도청	78.1%	66.4%	11.7%p
2	인천국제공항공사	71%	64.1%	6.9%p
3	교육부	90.1%	83.3%	6.8%p
4	한국환경공단	82.6%	76.1%	6.5%p
5	한국공항공사	88%	82.4%	5.6%p
6	인천광역시청	74.1%	68.8%	5.3%p
7	전라남도교육청	87.5%	82.4%	5.1%p
8	국토교통부	71.5%	66.7%	4.8%p
9	전라남도청	81.4%	77.1%	4.3%p
10	경상북도교육청	91.7%	87.4%	4.3%p
11	전남대학교병원	92%	88.1%	3.9%p
1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90.4%	86.6%	3.8%p
13	경기도 용인시	94.1%	90.6%	3.5%p
14	한국토지주택공사	67%	63.6%	3.4%p
15	한국철도공사	84%	80.8%	3.2%p
16	한국전력공사	76.2%	73.3%	2.9%p
17	한국철도시설공단	39.4%	36.6%	2.8%p
18	한국동서발전(주)	66.8%	64.4%	2.4%p
19	한국남동발전(주)	65.5%	63.2%	2.3%p
20	부산광역시교육청	89.3%	87%	2.3%p

## 별첨2

## '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증가 기관

\* 중기제품 구매액 3천억원 이상인 기관에 한정하여 선정

연번	기 관 명	2019년 중기제품 구매액 (백만원)	2018년 중기제품 구매액 (백만원)	증가율(%)
1	한국수자원공사	949,692	454,067	109.15%
2	광주광역시청	386,944	213,499	81.24%
3	경기도청	1,126,731	722,228	56.01%
4	교육부	861,295	585,145	47.19%
5	인천광역시청	440,994	299,930	47.03%
6	경상남도교육청	1,031,979	771,150	33.82%
7	대전광역시청	321,494	243,413	32.08%
8	경기도교육청	1,439,726	1,114,569	29.17%
9	강원도 원주시	309,448	240,151	28.86%
10	전라남도청	437,976	342,662	27.82%
11	국방부	3,339,159	2,638,698	26.55%
12	서울주택도시공사	626,376	495,128	26.51%
13	서울대학교병원	385,258	304,859	26.37%
14	경기도 화성시	565,043	447,307	26.32%
15	전라북도교육청	689,072	547,851	25.78%
16	한국환경공단	767,521	610,777	25.66%
17	한국동서발전(주)	344,603	276,356	24.70%
18	행정안전부	489,303	397,208	23.19%
19	강원도교육청	619,013	513,359	20.58%
20	경기도 용인시	467,986	392,405	19.26%

### 별첨3

## '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 중기제품 구매액 3천억원 & 구매비율 80%이상인 기관에 한정하여 선정

연 번	기 관 명	2019년 총구매액(백만원)	2019년 중기제품 구매액(백만원)	2019년 중기제품 구매비율(%)
1	강원도 원주시	327,389	309,448	94.5 %
2	충청북도 청주시	460,462	433,762	94.2 %
3	경기도 용인시	497,357	467,986	94.1 %
4	경기도 고양시	353,574	332,343	94 %
5	경상북도 포항시	352,313	324,014	92 %
6	전남대학교병원	338,594	311,498	92 %
7	전라북도교육청	749,964	689,072	91.9 %
8	경상북도교육청	858,105	786,801	91.7 %
9	인천광역시교육청	680,628	620,574	91.2 %
10	대구광역시교육청	519,793	473,619	91.1 %
11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34,896	302,705	90.4 %
12	교육부	955,893	861,295	90.1 %
13	경기도 화성시	627,041	565,043	90.1 %
14	대전광역시청	356,957	321,494	90.1 %
15	광주광역시교육청	384,417	344,213	89.5 %
16	부산광역시교육청	510,548	455,936	89.3 %
17	제주특별자치도청	1,350,159	1,204,414	89.2 %
18	경기도 성남시	455,541	406,059	89.1 %
19	경상남도교육청	1,160,759	1,031,979	88.9 %
20	경기도 평택시	381,581	339,275	88.9 %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6. 컴업(COMEUP) 유튜브'글로벌 구독자 관심 집중

- 중기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COMEUP)'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7개국에 2만4200명(4.24기준)
-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도약하는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24일 기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COMEUP)'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7개국에 2만4200명이라고 밝혔다.

**\* 유튜브 채널명 : K-Startup Week COMEUP**

'컴업'은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창업관계자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써, 작년에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개최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이다.

작년 11월 컴업 개최 전까지 유튜브 구독자는 국내 중심의 1,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행사 개최 후 5개월 만에 세계 27개국에 신규 구독자 2만3,000명이 넘게 추가돼 4월 24일 기준 누적 구독자가 2만4200명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93.7% (한국 구독자 6.3%)가 해외 구독자란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러한 성장세는 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의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스타트업 관련 해외 전시회 유튜브 현황 (4.20일 기준) >

행사				
구독자	2.2만명	1.2만명	4.2만명	0.8만명
개설일	2019년 5월	2011년 8월	2007년 11월	2012년 7월
영상 콘텐츠	46개	1,639개	866개	1,010개

‘کم업’ 유튜브 채널은 ‘한국 창업 생태계, 현재와 10년 뒤 미래’, ‘کم업 (COMEUP) 2019 하이라이트’, ‘유명 스타트업·벤처캐피털 강연’ 등 한국의 창업생태계 관련 콘텐츠를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 개최하는 ‘کم업 (COMEUP) 2020’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활약한 한국의 스타트업·벤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창업 환경을 고려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 열리는 ‘کم업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کم업(COMEUP) 2020 개요 >

- **일정, 장소** : 20.11.19(목) ~ 21(토),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여대상** :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대기업, VC 등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 **주요내용**
  - **(COMEUP 2020)** 글로벌 스타트업 주요 트렌드 및 미래 유망 기술별 강연, 패널 토크, IR피칭, 쇼케이스 운영
  - **(K-Startup Week)** '20.11.3째주를 'K-Startup Week'로 지정하고, 민관의 다채로운 스타트업 행사(AI올림픽, 해외 투자설명회 등)를 해당 기간에 유치하여 연계 개최

□ 개요

- (목적) 국내 창업생태계를 전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판로마련 기회를 제공
- (일시) '20.11.19 (목) ~ 21 (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 (참석자) 스타트업, 대기업, 벤처캐피털 등 글로벌 창업관계자

□ 주요내용

- (메인행사)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별 강연, 패널토크, IR피칭 등 교류·협력의 장 마련
- (K-Startup Week) 11.3째주를 K-Startup Week으로 지정하고 민관이 개최하는 타행사를 유치하여 행사간 시너지 효과 제고

< ComeUp 2020 주요 일정 >

구분	11.16(월)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 메인행사						
■ K-Startup Week 연계행사						

< COMEUP 2019 현장 사진 >



< 개막식 >



< 강연 및 패널토크 >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 27. K-유니콘 서포터즈 영상 IR 개최

- K-유니콘 서포터즈 영상 IR,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K-유니콘 서포터즈' 주관으로 4월 27일부터 5주간 대규모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K-유니콘 서포터즈 온라인 I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유니콘 서포터즈는 대형 펀드가 부족한 국내 벤처 투자시장의 문제점을 대규모 공동 투자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운용규모 상위 벤처캐피탈 24개사를 시작으로 작년 11월에 출범했다. 현재는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대기업·유니콘 기업까지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IR은 서포터즈 간 우량 투자 풀을 공유하기 위해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고성장 기업과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중 10개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대면 네트워킹이 어려워 영상 IR을 실시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IR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서포터즈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주간 매주 월요일 마다 2개 기업의 IR 영상을 서포터즈에게 공개하고, 서포터즈는 피드백을 전달하며, 투자를 희망하는 서포터즈와 기업은 금요일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IR 참여기업 10개사는 바이오/헬스케어 3개사, AI/이커머스 2개사, 핀테크 2개사, 콘텐츠/패션 2개사, 소재부품 1개사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첫 주인 4월 27일(월)에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바이오)와 백패커(이커머스)의

IR이 실시된다.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15년 창업, 대표 최철희)는 세포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나노크기 물질인 '엑소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패혈증 및 고셔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다.

- \* (패혈증) 혈액이 세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사망위험
- \* (고셔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병으로, 간, 비장과 신경계에 이상증상 유발

또한 백패커('12년 창업, 대표 김동환)는 '14년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 대상을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한 기업으로 핸드메이드 소품과 수제 먹거리를 거래하는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핸드메이드 동영상 강의 서비스 '온라인 금손 클래스'도 오픈하며 현재 핸드메이드 분야 1위의 커머스로 평가받고 있다.

< K-유니콘서포터즈 온라인 IR 일정 >

일정	기업명	업종	기업명	업종	비고
4월27일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백패커	이커머스	
5월4일	뤼이드	AI	테라핀테크	핀테크	영어IR진행
5월11일	밸런스히어로	핀테크	센서택	소재부품	센서택 소부장 강소기업
5월18일	원소프트다임	헬스케어	엘씨벤처스	패션	브랜드K
5월25일	바이오녹스	바이오	왓차	콘텐츠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는 “국내 Top-tier VC들이 추천한 고성장 기업의 영상 IR이 서포터즈의 투자 협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특히 영상 IR과 별도 비대면 미팅으로 이어지는 다소 실험적인 이번 IR 시도가 글로벌 확장성과 시공간, 비용과 관련된 효용성이 입증되면 연중 지속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K-유니콘 서포터즈 온라인 IR' 참가 기업 개요

번호	기업명	분야	주요 제품 및 성과	추천VC
4월27일 (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 엑소좀 플랫폼 기술 기반 혁신신약 개발	인터베스트
	백패커	이커머스	•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아이디어스>	스톤브릿지 벤처스
5월4일 (월)	뤼이드	AI	• AI/머신러닝 기반 학습 솔루션(AI 튜터, <산타토익> 등)	한국투자 파트너스
	테라핀테크	핀테크	• 부동산 전문 P2P금융플랫폼 <테라펀딩>	SBI 인베스트먼트
5월11일 (월)	밸런스히어로	핀테크	• 인도 모바일 결제/대출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센서텍	소재 부품	• 초음파센서, 전기, 전자, 로봇, 자동차부 품 제조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	소부장 강소 100
5월18일 (월)	원소프트다임	헬스 케어	• 휴대용 체지방 분석기 <Fitrus>	브랜드K
	엘씨벤처스	패션	• 커스터마이징 가방 <러브참>	브랜드K
5월25일 (월)	바이오녹스	바이오	• Oncolytic Virus (항암바이러스 신약)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왓차	콘텐츠	• 영상 추천 및 감상 플랫폼<왓차플레이>	네오플렉스

[붙임 2] K-유니콘 서포터즈 참여기관(46개)

연번	구분	기관명	연번	구분	기관명
1	VC	네오플렉스	24	VC	한화투자증권
2		대성창업투자	25		코오롱인베스트먼트
3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26		뮤렉스파트너스
4		미래에셋벤처투자	27		위벤처스
5		소프트뱅크벤처스	28	대기업	네이버
6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9		롯데
7		스톤브릿지벤처스	30		포스코
8		스틱벤처스	31		아모레퍼시픽
9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32		LG 전자
10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33		현대자동차
11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34	은행	하나은행
12		에스엘인베스트먼트	35	자산 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3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36		쿼드자산운용
14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37		DS자산운용
15		엘비인베스트먼트	38	증권사	NH투자증권
16		유니온투자파트너스	39		케이비증권
17		유안타인베스트먼트	40	창업 기획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18		인터베스트	41		스파크랩
19		케이비인베스트먼트	42	유니콘	무신사
20		케이티비네트웍	43	단체	한국벤처투자
21		티에스인베스트먼트	4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2		프리미어파트너스	45		벤처기업협회
23		한국투자파트너스	46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구성 : 벤처캐피탈 27, 대기업 6, 은행 1, 자산운용사 3, 증권사 2, 창업기획자 2, 유니콘기업 1, 단체 4